

외국(영, 미)의 종교교육제도 개선사례 연구

2011년 12월

연구책임자: 류성민(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안 신(배재대 교양학부 교수)

< 목 차 >

[연구 개요]

I. 서론	15
1. 연구의 목적	15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17
II. 미국의 종교교육제도 개선	20
1. 종교상황과 종교교육	21
2. 학교 제도 및 종교교육의 위상	25
3. 종교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	28
4. 종교교육 현실과 특징	33
III. 영국의 종교교육제도 개선	36
1. 종교상황과 종교교육	38
2. 학교 제도 및 종교교육의 위상	41
3. 종교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	45
4. 종교교육 현실과 특징	50
IV.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 개선 비교	57
1. 종교상황과 종교교육	57
2. 학교 제도 및 종교교육의 위상	59
3. 종교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	60
4. 종교교육 현실과 특징	64
V. 영국과 미국의 종교교육 제도 개선의 시사점	70
1. 역사적 변천과정의 의의	70
2. 종교교육의 위상	72
3. 종교교육의 제도와 내용	75
4. 문제점과 대안	78

VI. 결론	86
<참고문헌>.....	90
<부록> 주요 문헌 요약 번역	
1. 영국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의 종교교육 관련 주요조항들	101
2. 『2008년 영국의 웨일즈정부 종교교육 지침서』에 나타난 종교교육을 위한 국가표준	110
3. 미국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관한 교사용 지침서』요약 (A Teacher's Guide to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 ...	115
4. 미국 『공립학교(K-12)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 지침서』 요약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125

〈표 목 차〉

<표 1>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제도 비교 주제	18
<표 2> 미국의 종교인구 현황	21
<표 3> 미국 개신교 주요 종교단체 일람	23
<표 4> 미국 공립과 사립학교 학생 수 및 비율	25
(2008-2009, K-12학교)	
<표 5> 미국 교육제도 변천과 주요 내용 (20세기 중반 이후)	29
<표 6> 미국 공립학교 종교교육 지침 주요 내용	30
<표 7> 영국의 종교인구 (2001년 4월 기준, 영국 통계청)	39
<표 8> 영국과 미국의 공립학교 종교교육제도 변천 주요 내용	64
<표 9> 영국(스코틀랜드) 종교교육의 주요 내용	65
<표 10> 영국(웨일즈) 종교교육의 내용	75

[연구 개요]

■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내 종교교육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하여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종교교육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150여 년에 걸쳐 학교 내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를 통해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학교 내 종교교육 제도가 어떻게 변천하고 개선되었으며, 그러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의미를 탐구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그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종교교육 제도의 현실을 비추어 보고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종교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종교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찾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차문화적인 비교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2장과 제3장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문헌연구에서는 영미 양국의 종교교육제도 변천의 역사와 최근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주안을 둘 것이며, 종교교육 관련 중요한 법령의 분석도 함께 다룰 것이다. 제4장과 제5장에서 적용될 교차문화적 비교의 방법은 종교상황, 학교 제도 및 종교교육의 위상, 종교교육제도 개선의 역사적 변천, 종교교육의 현실과 문제점 등을 주제로 한 비교의 틀을 사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학교 내 종교교육 제도개선 과정과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 한다.

■ 미국의 종교교육제도 개선

미국은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국가임을 천명하여 왔고,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념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기

독교적 배경을 지닌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이주자들이 미국 국민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기독교적인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었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도 기독교 중심적인 신앙교육 내지는 도덕교육 위주였다. 공교육 체제가 확립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까지도 기독교 중심의 종교교육이 공교육 체제에 남아 있음으로 해서 종교의 자유와 국교 설립 금지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많았다.

20세기 중반에는 공립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특정 종교 위주의 종교교육이나 신앙교육(the education of religion)은 위헌이나 종교에 대한 교육(the education about religion)은 가능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크게 진작되었다.

그 후 수많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와 관련하여 점차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한편(대표적인 것이 1984년의 「동등접근법」[Equal Access Act]), 교사 및 교육행정 담당자들의 종교적 중립의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말하자면 학생들에게는 수정헌법의 종교의 자유 조항이, 교직원에게는 국교설립 금지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의 정리와 더불어 1980년대부터 진흥된 미국의 종교학(the study of religion) 연구자들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기 시작했고, 미국 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 AAR)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다.

첫째, 미국에서 종교에 대한 문맹(illiteracy about religion)이 널리 퍼져있다.

둘째, 그러한 문맹으로 인해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다양성과 평화로운 공존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셋째, 초·중등 학교들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종교적 문맹을 줄일 수 있다.

종교에 대한 지식의 결여를 종교에 대한 문맹으로까지 언급된 이러한 주장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었고, 1990년대 중반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종교단체, 교육단체, 학술단체 등이 합의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현행법에 대한 공동성명” 및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 등의 문건이 발표되었

다. 이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학부모 지침서” 등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들도 발표되었다.

문제는 미국의 공립학교에는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정규 교과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사와 세계사 등 역사과목, 사회과목, 문학과목, 예술과목, 영어과목 등에 종교에 관한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는 인식이 제고됨으로써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교사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문헌들에서 인용하고 있듯이 종교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 종교에 대한 학교의 접근방법은 학문적(academic)이지 헌신적(devotional)인 것이 아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들을 알게 하는 것(awareness)을 추구해야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도록(acceptance)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종교에 대해 공부하도록(study) 후원을 해야지 종교를 실천(practice)하도록 지원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종교적 견해들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지(expose)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갖도록 강요해서는(impose)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모든 종교에 대해 교육을 해야지(educate) 종교를 증진하거나 부정해서는(promote or denigrate) 안 된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념들을 알려 주어야지(inform) 어떤 특별한 신념을 학생들이 확신하도록(conform)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종교에 대한 교육 자체가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임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목적이 “인간 경험의 종교적 차원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임을 확신시켜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아울러 교사들이 지녀야 할 역량과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종교전통, 신념, 실천은 물론 무신앙이나 무신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 신념, 실천 혹은 전통이 부적절하다는(혹은

공정하지 않다는)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

3.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4. 교사들은 승인된 교과과정의 내용대로 종교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5. 교사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실천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아니며 부자격 요건도 아니다. 종교의 내용과 교육학에 대한 학문적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며, 교사가 개인적 종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실적으로 종교에 대한 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정규 과목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역량과 태도가 종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종교교육의 현실이다.

■ 영국의 종교교육제도 개선

영국은 1870년의 최초 교육법에서부터 비교과적 기독교교육을 공립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1902년의 교육법 개정에서도 그 규정은 강조되었다. 그러나 1944년의 교육법 개정에서는 공립학교에서의 종교훈육(religious instruction)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정치대표, 영국성공회 대표, 교사대표, 다른 교단 대표 등 지역대표위원회에서 협의된 교과과정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영국 종교교육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이해된다. 1988년의 교육개혁법은 종교훈육을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으로 용어를 변경하면서, 종교교육이 학생들을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전인교육이라는 교육적 차원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표 외에 다른 종교의 대표들까지 참여하는 상설 종교교육자문위원회를 두게 함으로써 가히 종교교육의 혁명을 이룩했다고 평가된다.

영국 종교교육 제도의 이러한 변화는 기독교 일색의 영국 사회와 문화가 점차 다종교, 다문화 사회로 진전한 현실을 수용하는 한편,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저명한 니니안 스마트와 같은 종교학자들의 종교교육적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종교교육이 다문화 사회의 전인교육이자 시민교육으로 국민의 필수적 교육과정이 된 것이다.

영국의 이러한 종교교육 제도 개선은 교육 내용으로 구체화되었다. 지역(county)별 종교상황에 따라 교육내용이 다소 다르지만, 전통적 종교로서의 기독교, 세계종교들, 신념과 가치의 발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각각을 신념과 가치와 실천으로 구분하여 학년에 따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과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교육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적용되고 있다.

체계적 연구(systematic study)

- 종교의 핵심 개념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특정 종교나 여러 종교들, 그리고 비종교적 관점을 함께 공부한다.
- 예컨대 기독교의 예배와 실천이 어떻게 예수와 가르침에 연관되는가 하는 문제나, 인문주의와 유대교의 비교를 통해 사회참여의 양상을 체계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주제별 연구(thematic study)

- 주제별 물음들에 대한 종교적 답변의 이해를 다룬다.
- 예컨대 종교들의 절기와 축제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전쟁과 죽음과 같은 주제들에 대한 여러 종교의 신념과 실천 등을 이해토록 한다.

교차-교과적 연구(cross-curricular study)

- 다른 교과의 주제들과 연계하여 종교를 공부한다.
- 예컨대 과학과 종교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 방식 비교, 이민의 역사적 원인과 시민의 권리,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를 함께 비교하고 설명한다.

이러한 영국의 종교교육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종교적 세계관뿐만 아니라 무종교인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종교들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종교인 사이,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 사이의 소통과 공존의 토대를 교육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영국 종교교육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제도 개선 비교

영국과 미국의 종교교육 개선 과정을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제도변천 내용	영국	미국
학교제도	공립학교(지역학교 + 기부학교)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배제)	공립학교(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종교교육도 가능)
제도 변화의 법적 근거	교육법 - 교육개혁법(1988)	수정헌법 - 대법원판례 - 각주 헌법 및 교육법
교육 내용	비교파적 기독교교육 → 세계종교를 포괄한 전인교육으로서의 종교 교육	특정 종교의 교리와 사상 교육 → 종교에 대한 객관적, 중립적 교육
용어의 변화	종교훈육(religious instruction)에서 종교교육 (religious education)으로 변화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변화
제도적 강조점	기독교 전통과 다종교상황, 무종교를 모두 고려한 종교교육에 주안점을 둠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과 교직원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

교육법 개정을 통해 확립된 영국의 종교교육은 독립된 과목이자 의무교육이라는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비교파적 기독교교육으로 시작되었던 종교교육이 의무교육이 되고 다시 기독교 중심의 훈육교육에서 전인적 종교교육으로 전환된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전 세

계적으로 종교교육이 가장 중시되는 국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영국 종교교육의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장점으로는, 종교교육을 전인교육으로 보고 국가의 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것, 학습과 경험을 동시에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둔 것, 기독교와 그 외의 세계종교를 동일한 체계로 교육하는 것, 종교교육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 지역별 종교상황의 차이를 반영토록 한 것, 상설 자문위원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 중심적 교육에 치우친 것, 종교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세계의 주요 종교들에 대한 교육에 치우친 것,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념으로 채택했고, 그로 인해 기독교 중심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점차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혹은 다종파)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교의 분리가 중시되고 종교교육도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한 오랜 시도가 있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장점을 들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종교교육도 가능하지만 국가(정부)의 지원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학생수에 있어서 사립은 공립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¹⁾ 미국 전체에서의 사립학교 종교교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립학교(대부분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비록 특정 종교나 교파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공립보다 높고 학생들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입학하기 때문에 종교 관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다. 둘째로 미국의 종교교육에서는 학생(학부모)의 종교 자유 보장과 교사 및 교직원의 엄정한 중립 요구를 통해 양자를 구분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종교교육에 대한

1) 2006년에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3-2004년 기준, 공립학교 학생은 4,900만 명 정도이나 사립은 51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마침내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기 위한 교사지침과 학부모 지침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이 주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어 주별 차이가 적지 않고, 그로인해 몇몇 주에서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계속적인 법적 시비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비는 몇 년에 걸쳐 지속되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영국과 같은 종교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종교교육 자체가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 아닌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단점이다. 양자가 학계에서나 교육계에서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일반 교과과정에 일부 포함되나 독립적인 과목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계와 종교학계의 공동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과서 개발과 교육과정 확정 및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 우리나라 종교교육 제도개선예의 시사점과 대안

지금까지 살펴 본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의 사례를 참고로 우리는 한국에서 소극적인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 모델에서 적극적인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모델로의 성숙한 방향전환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제도는 단순히 벤치마케팅이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교육제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인교육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한 여과된 대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종교 관련 공통교과서(common textbook)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 교과서의 사용여부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당국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야겠지만 적어도 정부와 학계가 세계종교 혹은 일반종교에 대한 지침서의 차원에서 공통집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만약 종교학계와 종교교육학계의 전문가 조언을 얻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종교 공통교과서 내

지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서가 제작되어 일선 교사들에게 보급된다면 지금까지 종교별 종교교과서들의 편견을 수정하고 보다 객관적이며 공감적인 종교일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종교에 대한 교육의 기준(criterion)과 원천(resource)이 될 것이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무종교인(no religion)의 세계관에 대한 교육도 종교 교과서에 새롭게 편성되어 종교교육의 장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들만큼이나 무종교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동서양 종교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나아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는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종교학적 혹은 종교교육학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종교 간 대화와 소통의 방법과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관계개선과 대화문화의 정착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오히려 기독교사회에서 세속화를 경험하면서도 무신론(혹은 무종교) 논쟁이 활발한 영미의 분위기와는 달리 47%의 무종교인에 대한 무관심이 학계나 교육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종교와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보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태도를 가지고 교육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초·중등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교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 강사의 양성과 파견을 제안한다.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종교와 세계종교를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교육하여 정기적으로 일선학교에 파견한다면 특정 종교로 편중된 교육내용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주도하여 종교교육과 관련된 미디어 매체와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하거나 혹은 종교교사를 중앙부처에서 파견하는 시범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다섯째, 다종교 교육을 위한 특별 주간이나 구체적인 지역행사와 연계된 종교교육이 일선학교에서 진행된다면 지역 공동체의 종교 간 이해

와 화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단순히 지침서와 교재를 통한 종교교육을 넘어서 구체적인 경험과 만남을 통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 정부의 경우도 특정종교의 행사나 연구에 대한 지원은 피하지만 종교간 혹은 다종교 연구와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여섯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효과적인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문제이다. 철학과 윤리의 차원을 포함하면서도 종교일반과 세계종교전통들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공감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교사가 일선 교육현장에 파견되어야 한다. 그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을 위한 특강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공인한 종교교사로서 공교육의 현장에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종교교육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형태로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례에 대한 참석과 공동체의 윤리를 어느 정도 체득하는 것이 종교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특정종교에 편행되거나 특정종교를 배제하는 태도를 극복하면서도 그러한 실천적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인근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해당종교를 설명하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종교교육은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정교분리의 헌법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온 초기 백인정착민들의 기억이 아직도 사회저변의 의식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차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지양하며 종교학의 기초를 둔 접근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영국은 성공회(잉글랜드의 경우)와 장로교(스코틀랜드의 경우)를 국교로 정하고 있는 준국교의 국가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주민공동체에 의한 종교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을 교육한다는 차원에서도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아홉째, 끝으로 영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과 종교학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 교안개발이 한국 교육 현장에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교재 개발의 영역은 마치 황무지와 같다. 소수 학자들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교육제도가 입시위주로 편제되어 있고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도 국·영·수 위주의 교육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 자체에서의 내적 개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과 종교교육 분야의 학제 간 전문서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을 통시적이며 공시적으로 살펴서 마련된 세계종교의 지식과 실천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고려하기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교육자의 과감한 수용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공립학교를 우선으로 종교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종교 일반에 대한 지식과 특정 종교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 태도와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영미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다 공감적이며 객관적인 다문화 종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고려한 채신안을 개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정 종교단체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어도 공교육의 차원에서는 시민교육을 위하여 긍정적인 기여보다는 부정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판단 아래 영국과 미국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특정 종교에 치우친 종교의 교육을 포기하고 종교에 대한 교육, 나아가 다문화 종교교육에서 그 탈출구를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재정적 지원과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21세기 한국 사회가 종교교육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 사회문화에서 최근 일어나는 갈등과 불통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영국과 미국 등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내 종교교육²⁾이 어떠한 제도적 개선을 하여 왔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종교교육의 제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다음과 같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대다수 국가들에서 종교다원사회가 보편화되었고 다양한 종교가 중심을 이룬 다문화 상황도 예전보다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말하자면, 종교가 달라도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하며, 종교적 배경이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가운데서 문화적 삶을 영위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종교 간 갈등을 증폭시켰고 문화적 충돌 양상을 다변화시키면서 갖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단순히 종교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소외와 폭력으로 치닫는 경우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예전보다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전형적인 종교다원사회가 된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종교 간 갈등이 계속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사회의 질서와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격화되고 있으며, 종교차별이나 종교편향과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교 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러한 갈등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종교와 문

2) ‘종교교육’이 아직도 ‘기독교교육’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점차 특정 종교와는 구분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법에서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는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제5조 ②항)고 규정함으로써 어느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과 그렇지 않은 종교교육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8년의 교육개혁법을 통해 religious education과 religious instruction을 구분하였고, 전자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후자는 사립학교나 개별 종교단체들에서의 특정 종교 교리교육 혹은 신앙교육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religious education이란 말을 쓸 때 education of religion과 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후자의 의미로만 사용하고 있고, 그것만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종교교육’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따른 혼란이 있으나, 영국에서의 religious education과 미국의 education about religion은 거의 같은 의미이며,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종교교육’을 이 두 의미와 같은 뜻으로 사용하되, 문맥에 따라 설명방식을 달리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자 한다.

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도모하고 이웃 종교들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면, 무엇보다 학교 내에서의 종교교육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학교 내에서의 종교교육이 종교 간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는 데에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여 왔고, 다양한 종교들이 인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이해는 인간을 이해하고 세계의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 길이며, 한 국가 내에서조차 종교다원사회가 더욱 확대된 오늘날에는 여러 종교들에 대한 인식이 국민의 기본적 소양이자 시민 교육의 내용으로 중시되고 있다. 심지어 종교에 대한 무지가 마치 글을 모르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의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까지 언급되면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종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미국과 영국 등 이른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학교 내 종교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을 해오고 있다. 공립교육과 사립교육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건국 초기부터 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 위주의 종교교육(사실상의 특정 종교의 신앙교육)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중심의 종교교육이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야기되면서 20세기 말엽에 가서는 연방정부 차원의 종교교육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졌고, 각 주에서도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라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특히 연방대법원의 종교교육 관련 판례와 각 주의 종교교육 관련 법적 조항 및 관련 제도들은 정교의 분리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의 원칙을 확립하면서 동시에 종교 간 갈등과 분쟁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학교 내 종교교육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종교교육 제도 개선에서 참고할 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영국은 1870년에 최초의 교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종교교육이 중시되었으나 기독교 교파 교육이 중심을 이루었고, 1944년의 교육법을 통해 교파를 넘어서는 기독교교육으로 전환되었다가 1988년의 개정된

교육법을 통해 기독교를 포함한 세계 여러 종교들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는 종교교육의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가히 혁명적인 종교교육 제도가 만들어진 영국의 사례는 아직도 일부 기독교 중심적인 요인이 있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의 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교교육 자체가 종교계 사립학교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러한 사립학교가 사실상 공립학교 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며, 종립학교의 종교교육도 종교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특정 종교 위주의 신앙교육 내지는 종교 훈육에 주안을 두고 있다. 더군다나 공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교과과정이 준수되지 못하고 있고, 교과서마저 그 과정에 충실하지 못함으로써 종교교육 자체가 교육현장의 문젯거리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우리나라 종교교육의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제도의 운영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운영 자체가 임의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학교 내 종교교육 제도가 어떻게 변천하고 개선되었으며, 그러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의미를 탐구하고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그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 종교교육 제도의 현실을 비추어 보고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종교교육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종교교육 실시를 위한 제도적 보완점을 찾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차문화적인 비교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문헌연구에서는 영미 양국의 종교교육제도 변천의 역사와 최근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주안을 둘 것이며, 종교교육 관련 중요한 법령의 분석도 함께 다룰 것이다. 제Ⅳ장과 제Ⅴ장에서 적용될 교차문화적 비교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비교의 틀을 사용하여 미국과 영국의 학교 내 종교교육 제도개선 과정과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으려 한다.

<표 1>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제도 비교 주제

비교 주제	세부적 비교 내용	비교
1. 종교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별 인구 분포 - 지역별 종교인구 - 종교상황의 특징 	기독교의 경우 교파별, 종파별 정리
2. 학교 제도 및 종교교육의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제도의 특징 - 종교교육의 위상 - 종교교육의 제도적 특징 	공립, 사립, 종 교계 사립 등 고려
3. 종교교육 관련 제도의 역사적 변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교육 관련법의 제정,변천 - 종교교육제도의 변천 - 종교교육제도의 특징 	시기 구분 참조
4. 종교교육의 현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교육 실시 상황 - 종교교육의 내용 - 종교교육에 대한 반응 	초등학교, 중교 등학교 구분
5. 주요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주 혹은 지방별) 특징 - 국가별 특징 - 교육제도 및 내용상의 특징 	1, 2, 3, 4에 따 라 정리
6.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상의 문제 - 교육 내용의 문제 	1, 2, 3, 4에 따 라 정리
7. 한국 종교교육 에의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 - 교육 내용 개선을 위한 시사점 - 기타 시사점 	1, 2, 3, 4에 따 라 정리

영국과 미국의 종교교육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표 1>의 비교 틀 (the framework of comparative perspectives)은 크게 4가지 근거를

통해 마련한 것이다. 종교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각국의 종교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의 종교상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상황의 차이가 종교교육에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고려한 것이다. 둘째로, 종교교육이 학교교육에서 어떠한 위상에 있고, 그러한 위상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는지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차이가 오랜 기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종교교육의 현실을 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들에서 어떤 내용이 종교교육으로 가르쳐지고 있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영국과 미국의 종교교육 특징을 보다 분명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양국의 종교현실-종교교육의 위상과 제도적 변천-종교교육의 현실 등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양국 종교교육의 장단점을 도출, 우리나라의 종교교육에 줄 수 있는 시사점 및 대안을 찾는 것이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종교교육의 제도적 보완을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그 목적에 충실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으로는 영국의 경우 교육법이 제정된 18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미국의 경우 건국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범위 설정은 현재의 영국과 미국의 교육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에서부터 오늘날까지의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려는 것이다. 전반적인 연구 국가는 미국과 영국 두 국가에 연구 범위를 제한하였지만,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사례로 참고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학교의 범위는 공교육체제 속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이다.

II. 미국의 종교교육 제도 개선

미국(정식 명칭은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50개 주와 1개의 특별구로 이루어진 연방제 국가이다. 세계 4위에 해당하는 950만 km²의 넓은 국토 면적과 3억 명이 넘는 많은 인구,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에서부터 유럽, 아시아, 중남미 등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인종의 이주민, 세계 최대의 국민총생산(GDP) 등 가히 세계 최강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적으로도 유치원에서 초·중등교육까지를 의무교육이자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공교육 체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종교교육(기독교 중심의 종교훈육)이 배제되었으나 건국 전후부터의 기독교적 문화와 관행으로 인해 종교교육은 항상 미국 교육계에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사립학교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종교교육도 가능하고 그러한 종교교육에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적 자금이 전혀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공립학교에서는 성서의 낭독에서부터 기도, 진화론 교육 등 무수한 논란이 나타났다. 이러한 논란은 미국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향을 낳기도 했고, 교과서마저도 종교 관련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야기시켰다. 20세기 후반에 미국 학계에서 크게 성장한 종교학(the study of religion or religious studies) 연구자들은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80년대에는 미국 종교학회(AAR)를 중심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의 필요성과 그 방법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20세기 말에는 미국의 연방정부와 교육부도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연방대법원에서도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education of religion)이 아닌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을 공립학교에 가르치는 것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연방정부가 주축이 되고 종교계, 교육계, 종교학계 등 관련 기구들이 참여하는 지침들이 마련됨으로써 종교에 대한 교육에 일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종교교육 관련 논란은 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해결하여 왔고, 그 판결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수정헌법 제1조의 국교 설립의 금지와 종교의 자유 관련 조항이었다. 따라서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미국 종교교육의 정책적 기준이자 제도적 확립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미국의 종교교육은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미국의 종교상황과 종교교육의 관계를 먼저 살펴 본 다음, 학교 제도에서 종교교육이 차지하는 위상을 분석하고, 판례에 의거하여 변천해온 미국 종교교육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종교교육의 현실과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미국의 종교상황과 종교교육

미국은 민족적으로나 인종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다종교상황이 될 수 있는 미국의 종교정책 기조는 1791년의 수정헌법 제1조에 근거하고 있다. 그 주된 내용은 종교의 자유(free exercise)와 정교의 분리(no establishment)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무수한 종교들과 교파, 교단들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종교별 인구를 통해 미국이 전반적인 종교상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미국의 종교인구 현황³⁾

종교	신자수(명)	구성비(%)
기독교(Christian)	242,011,000	85.6
독립기독교(Independent)	80,639,000	28.3
개신교(Protestant)	66,287,000	23.3
천주교(Roman Catholic)	59,542,000	20.9
동방정교회(Eastern Orthodox)	5,915,000	2.1
성공회(Anglican)	2,464,000	0.9

3) *Britannica Book of the Year 2008*, London: Encyclopaedia of Britannica Inc., 2009, p. 956에서 재구성.

기타 기독교	10,348,000	3.6
유대교(Jewish)	5,771,000	2.0
이슬람교(Islam)	4,242,000	1.5
불교(Buddhist)	2,515,000	0.5
힌두교(Hindu)	1,059,000	0.4
신종교(New-religionist)	832,000	0.3
바하이교(Baha'i)	773,000	0.3
민간전통신앙(Ethnic religionist)	447,000	0.2
시크교(Sikh)	240,000	0.1
중국전통종교(Chinese folk-religionist)	80,000	0.0
기타 종교인구	1,171,000	0.4
비종교인구	25,745,000	9.0
계	284.886,000	100.0

미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기독교(개신교와 천주교)가 주류를 이루는 국가임을 알 수 있지만, 유대교와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시크교 등 세계적인 종교들이 거의 다 전래되어 있음을 <표 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는 많은 교파와 종파로 세분되어 있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데, <표 2>의 ‘독립기독교’와 ‘성공회’나 ‘기타 기독교’도 대부분 개신교 교파나 교단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은 개신교가 가장 큰 종교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주요 종교인구 통계에서는 미국인의 절반 정도가 개신교인으로 보고 있다.⁴⁾ 개신교 다음으로는 천주교가 총인구의 20.9%로 약 6,000만 명이 신자가 있고, 동방정교회는 천주교의 10분의 1인 총인구이 2.0%, 약 600만 명이 신자가 있다. 전반적으로는 미국의 기독교 신자를 개신교와 천주교가 65 대 35의 비율로 분점하고 있다 하겠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의 종교단체(종파나 교단)에 가입하여 있는 신자는 약 1억 4,700만 명이며, 주요 단체들(1위에서 10위)의 현황을 보면 <표 3>과 같다.

4) 예컨대 위키피아 사전(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의 영어판 “Religion in the United States”에서는 미국의 개신교 신자수를 총인구의 51.3%로 인용하고 있으며, 위의 책, p. 283에서도 천주교와 정교회를 제외한 개신교 신자수가 약 55%로 추계된다.

<표 3> 미국 개신교 주요 종교단체 일람⁵⁾

순위	종교단체	회원수(신자수)
1	천주교회(The Catholic Church)	68,115,001
2	남침례교 총회(Southern Baptist Convention)	16,228,438
3	연합감리교회(The United Methodist Church)	7,853,987
4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몰몬교회)	5,974,041
5	하나님의 교회(The Church of God in Christ ⁶⁾ , 오순절파)	5,499,875
6	미국 침례회 총회(National Baptist Convention, U.S.A)	5,000,000
7	미국 복음 루터교회(Evangelical Lutheran Church in America)	4,633,887
8	아메리카 침례회 총회(National Baptist Convention of America)	3,500,000
9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	2,899,702
10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2,844,952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단일 기독교 단체로는 ‘천주교회’ (신자수 약 6천 800만 명)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남침례교 총회’, ‘연합감리교회’, ‘몰몬교’, ‘하나님이 교회’의 순이다. 기타 개신교 교파까지 포함하면 대체로 개신교 내에서는 침례교가 가장 크고 감리교, 오순절교, 장로교, 몰몬교 등이 미국의 5대 개신교 교파로 지칭된다.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에서는 유대교가 총인구의 2.0%인 577만 여명의 신자가 있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슬람교로 424만 명(1.5%)의 순이다. 또한 불교(251만 여명), 힌두교(105만 여명)도 총인구 대비 비율

5) 미국 NCC에서 펴낸 *The 2010 Yearbook of American and Canadian Churches reports*에 근거한 것으로 http://en.wikipedia.org/wiki/Church_of_God_in_Christ 참조.

6) 기독교 오순절 성결 교단(Pentecostal Holiness Christian denomination)으로 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그 신자들이다.

에서는 1% 미만이지만 1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신자가 있고, 시크교와 바하이교도 수십 만 명의 신자가 있는 등 가히 전 세계 대표적 종교들이 모두 미국에 공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컨대 미국은 전반적으로는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면서도 그 교파와 교단의 다양성이 종교다원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기독교 이외의 세계적 종교들이 모두 들어와 종교다원상황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족 종교나 신종교들도 그 활동이 사회에 알려질 정도로 활동하고 있다. 말하자면 철저한 종교의 자유 보장이 미국의 종교상황을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미국의 주류 기독교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종교인구의 감소추세가 있는 등 종교에 대한 관심도에 부침이 있다는 것도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교파나 교단 중심의 종교다원상황에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이 포함된 확대된 종교다원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연방정부 내에 종교단체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고 별도의 종교 관련 특별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종교 활동은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부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지 않게 되어 있다. 특히 1993년에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는데 곧 ‘종교자유회복에 관한 조례’(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가 그것이다. 이 조례의 골자는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정부(연방정부와 주정부 등)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법원이 중립적인 법으로 종교 활동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익을 고려하고 법에 의해서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도 재차 확인하였다.

요컨대 미국은 종교 자유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과 법(판례)을 통한 종교문제의 해결(정교분리의 법적 확인)이라는 양면을 비교적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가운데 종교가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그러한 조화로운 공존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법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미국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된 지속적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면서 미국 연방 정부가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이 되었다.⁷⁾

2. 학교 제도 및 종교교육의 위상

미국의 초·중등학교는 크게 공립학교(public school)와 사립학교(private school)로 구분되나, 그 외에 공립학교나 교육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⁸⁾)이 있다. 이러한 세 분류에 따른 등록 학생수를 보면 <표 4>과 같다.

<표 4> 미국 공립과 사립학교 학생 수 및 비율
(2008-2009, K-12학교)

구분		학생수	
		명	비율(%)
공립	정규학교	49,266,000	87.7
	차터학교	1,433,116	2.6
소계		50,699,116	90.2
사립	가톨릭학교	2,160,000	3.8
	기타 종교학교	2,076,000	3.7
	비종교계 학교	1,252,000	2.2
소계		5,488,000	9.8
총계		56,187,116	100.0

출처: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NCES),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Appendix A: Supplemental Table”에서
 재구성.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초·중등학교 등록 학생수를 기준으

-
- 7) 미국 연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1995년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와 교육부장관의 발표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뒤에서 다룬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현행법에 대한 공동성명”이 그 결과의 하나이다.
- 8) 공적으로 재정을 지원받는 공립학교이나 주(州)나 지역 교육당국의 규제와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학교들이 새로 설립되거나 이전에 공립이나 사립이었던 학교가 차터스쿨로 전환을 하기도 했다. 일종의 공적인 대안학교의 성격을 지니지만, 그 공적 성격의 차이가 크며 학교 형태도 다양하다.

로 할 때, 공립학교 학생수는 전체의 90.2%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는 전체의 9.8%로 공립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사립학교들은 주 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공적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공적으로 선출되거나 지명된 행정 직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종교교육에 관한 국가 혹은 정부의 어떤 규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계 사립학교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종교를 가르칠 수 있으며 그것이 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미국에서의 종교교육에 관한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공립학교, 특히 공립학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정규학교의 문제이다.

미국 공립의 정규학교에서 종교교육은 “종교에 대한 교육”(the education about)만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⁹⁾ 그러나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학(religious studies) 과목이 필수 교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종교에 대한 교육을 위한 과목은 아직 정규화 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종교에 관한 내용이 여러 과목의 표준 교과과정에 두루 포함되어 있고, 특히 역사(세계사와 미국사) 과목, 사회 과목, 영어 과목, 문학 과목들에서 종교에 대한 내용이 많다. 현재는 이러한 표준 교과과정에서 종교에 대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주요 관심사이고,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¹⁰⁾ 교사 교육을 위한 기관들도 설립되고 있다.¹¹⁾

9) 이 점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임.

10) 몇몇 주요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harles C. Haynes, *Religion in American History: What to Teach and How*(The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0); Susan L. Douglass(prepared), *Teaching About Religion in National and State Social Studies Standards*(Council on Islamic Education & First Amendment Center, 2000); Emile Lester & Patrick S. Roberts(prepared), *Learning About World Religions in Public Schools*(First Amendment Center, 2006); Charles C. Haynes, *Teaching About Religion in Public Schools: Where do We go from Here*(First Amendment Center, 2003); Warren S. Nord & Charles C. Haynes, *Taking Religion Seriously Across the Curriculum*(First Amendment Center, 1998).

11) 종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중요 교육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The First Amendment Center at Vanderbilt University, The California 3Rs Project(Right, Responsibility, and Respect); Utah School Districts; The State Humanities Council in Georgia; The Program in Religion and Secondary Education at Harvard Divinity School, Harvard University; Religion in Public Life Certificate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이러한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에 대한 연방정부 지침”(Federal Guidelines for Religious Expression in Public Schools¹²⁾)은 종교에 대한 교육의 합법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종교 자유와 교사들의 종교적 중립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이후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종교학계와 교육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에서 가장 크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대표적인 종교 관련 학회인 미국 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 AAR)는 2007년에 “학교에서의 종교 관련 태스크포스”(The AAR Religion in Schools Task Force)를 구성하였고, 2010년에 “미국 공립학교(K-12)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 지침서”(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를 발간했다.¹³⁾ 특히 이 지침서를 만들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기도 하다.

첫째, 미국에서 종교에 대한 문맹(illiteracy about religion)이 널리 퍼져있다.

둘째, 그러한 문맹으로 인해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다양성과 평화로운 공존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셋째, 초·중등 학교들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종교적 문맹을 줄일 수 있다.¹⁴⁾

이러한 주장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종교에 대한 문맹”(the illiteracy about religion or religious illiteracy)이란 말이다. 종교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은 문맹의 하나로 보고, 그러한 문맹으로 인해 편견, 적대적 태도, 공존과 화합의 결여 등이 생겨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교

Pennsylvania 등. Charles C. Haynes, *Teaching About Religion in Public Schools: Where do We go from Here*(First Amendment Center, 2003), pp. 12-13 참조.

12) 이 지침은 클린턴 대통령의 지도 하에 교육부장관에 의해 1995년에 발표되었고 1998년에 대법원의 결정을 반영, 일부 수정되었다.

13) 이 태스크포스는 하버드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종교학과 교육학을 가르치는 Diane L. Moore 교수가 의장을 맡았고 그 외 6명의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었으며, 10명의 교수들이 Working Group으로 참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의 [부록 4]를 참조.

14) The AAR Religion in the Schools Task Force,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American Academy of Religion, 2010), p. 4.

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만큼 종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 것이며, 향후 미국 공립학교 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미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은 비록 필수 과목으로보다는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많이 선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다른 과목들의 교과과정에 포함된 종교에 관한 내용을 합법적이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에서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더욱 중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하겠다.

3. 종교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수정헌법은 정교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에 대한 교리와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교육은 불가능하다. 또한 1789년과 1826년의 교육법에서도 특정 종교관련 종교교육을 할 수 없게 했고 각종 종교 관련 교육교재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걸쳐 확립된 미국의 공교육 체제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그러한 종교교육이 공교육에 포함될 수 없도록 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체제의 도입자체가 주(state, 州)별로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고, 더군다나 미국의 교육제도상 교육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의 고유 기능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교육에 대한 입장에서 주에 따른 편차도 적지 않았다. 공교육 체제가 완벽하게 확립되기 이전에는 종교단체들(대부분 기독교단체)이 세운 학교들이 교육의 중심에 있었고, 공교육이 제도적으로 도입된 후에도 그러한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미국의 연방정부가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 문제를 본격적으로 관심하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이다. 그리고 20세기 말에는 연방정부가 종교교육에 관한 지침까지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적 보완을 해왔다. 그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표 5>과 같다.¹⁵⁾

15) 이 표는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제도의 변화와 그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조치들을

<표 5> 미국 교육제도 변천과 주요 내용(20세기 중반 이후)

년도	제도 개선	주요 내용	특징
1948	맥콜롬 소송 (대법원 판례)	공립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종교 교육 불가 판정	기독교내 교과교육 지양의 기독교교육 실시
1951	국가교육협회 결정	유신론과 무신론을 중립적 입장에서 교육해야 한다.	종교에 대한 일반 적 교육만 인정, 이후 유사한 판례 가 계속 나타남, 공립학교에서는 어 떤 종교교육도 불 법으로 간주됨
1984	동등접근법 (Equal Access Act)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금지되나 정교 수업시간 외의 학생 주도의 자발적 종교모임은 허용, 학교 시설물 사용 허용	교사의 영향력이나 공적 재정의 지원 이 없는 학생들의 자발적 종교모임 허용
1995, 1998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현행법에 대한 공동성명” ¹⁶⁾ 및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 ¹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종교 활동이나 종교적 발언을 차별하는 규칙을 만들거나 운영할 수 없다. - 학교 직원과 교사는 종교 활동을 권유하거나 격려할 수 없으며 학생과 함께 참여할 수 없다. - 종교수업을 할 수는 없지만 종교에 대해서 가르칠 수는 있다. - 수업 내용이 학생이나 학부모의 종교에 대한 이의나 양심적 불만을 일으킬 경우 학교는 학생 개인을 수업에서 면제시킬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보다 자유로운 자치 활동으로서의 종교활동 보장 - 교사나 교직원 은 공무원에 준하는 종교적 중립 의무 규정 - 학생들의 종교 관련 선택권 부여

함께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제도는 주와 주 교육위원회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1999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 및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학부모 지침”	위 내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	교사 및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규정
------	--	-----------------	---------------------

미국의 종교교육 제도가 기독교 교육에서 출발하였지만 점차 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지양하고 종교 일반에 대한 교육으로 나가게 되었음을 <표 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 교사와 교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철저한 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구체화됨으로써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이 만들어 졌고,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현행법에 대한 공동성명” 및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 그리고 그것들에 근거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교사 지침” 및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학부모 지침”도 관련 단체들이 합의를 통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¹⁸⁾

<표 6> 미국 공립학교 종교교육 지침 주요 내용

주요 항목	주요 내용
학생들의 기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을 이루어 기도하거나 종교

16)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장관이 35개 관련 단체의 합의로 발표된 것임.

17) 위 합의 발표 내용을 일부 갱신하여 1998년에 미국 교육부가 발표한 것임.

18) 이러한 지침들의 기본 내용은 “Federal Guidelines for Religious Expression in Public Schools(1998)”에 의거하고 있으며, 2001년에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발표한 “Guidance on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ayer in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의 내용도 참조하여 <표 6>으로 정리한 것이다.

도	적 입장을 발표할 권리를 갖는다. ¹⁹⁾
졸업식 기도와 종교적 학위수여식	학교 당국자들은 졸업식에 기도 순서를 포함시키지 말아야 하며, 종교적인 학위수여식을 거행해서도 안 된다.
종교활동에의 공식 참여와 격려	교사들과 학교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종교 활동이나 반종교 활동을 고무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 또한 학생들과 더불어 그러한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사적으로 교사 휴게실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종교에 대한 교수	종교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례에서 거듭거듭 강조했듯이, 종교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 설명은 무방하다.
숙제와 종교	학생들은 보고서(report)나 숙제, 예술작품 등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러한 표현은 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교사들은 그러한 것들이 단지 종교적인 상징들을 포함하거나 종교적인 주제를 다루었다고 하여 거부해서는 안 된다. 숙제는 오직 학문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종교적 문건의 배포	적절한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종교적 문헌을 배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부인이 종교적 문헌 혹은 반종교적 문헌을 배부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오는 것을 제지할 수 있다.
특별활동	방과 전이나 후에 있는 이벤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학교직원들이 그러한 이벤트에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거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종교적 설득과 종교적 괴롭힘	이 양자의 관계는 매우 미묘한 것이다. 정치적인 주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동료 학생에게 말하고 설득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인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주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 괴롭힘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교회가 가자고 초청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가자고 초대를 하는 것은 종교적 괴롭힘이 될 수 있다.
평등한 사용권	만일 한 학교에서 비교과 클럽에게 방과 시간 외에 만나는 것에 대해 학교 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종교 클럽에도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들이 그러한 클럽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으며,

	외부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그 활동을 지도하도록 할 수는 없다.
종교축일들	일반적으로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축일들에 대해 가르칠 수 있으며, 그 휴일의 세속적 측면을 축하할 수도 있고, 그것들의 종교적 측면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그 축일들을 종교적 사건으로 준수할 수는 없다.
종교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수업의 면제	학교에서는 종교적인 이유로 개개의 학생들이나 그 부모에게 항의를 받을 수 있는 수업에 대해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실질적 결정권을 갖고 있다. 만일 특정한 수업들이 학생의 자유로운 종교적 실행에 부담이 된다거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학생에게 그 수업을 면제하여주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된다.
가르침의 가치 문제	학교에서는 성적인 절제와 피임을 가르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적 신조로서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의상	종교적 문구를 써넣은 티셔츠와 그와 같은 것들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강제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유대교의 기도나 의식에서 남자들이 두르는 작은 두건(yarmulke)과 머리 스카프와 같은 종교적인 의상을 입을 수 있고, 그들이 종교적인 근거에서 정중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는 체육복을 입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교외에서 허용되는 개인 활동	학교는 교외에서의 종교 교육에 학생들을 내보낼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다. 단 학교가 참여를 독려하거나 저지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표 6>의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째,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의 종교적 신념의 표현과 활동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둘째, 종교교육이 공평하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교육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셋째, 일반 과목(역사와 문학 등)에서 종교에 관한 단편적 교육이 아니

19)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기도 문제는 가장 첨예한 사안이었고, 1965년의 ‘초·중등 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SEA)의 Section 9524와 그 내용을 수정한 2001년의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을 통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다. 주요 골자는 학생들은 학교의 활동이나 수업을 받을 때가 아니면 개인으로든 집단으로든 기도를 할 수 있는 반면, 교사(교직원이나 학교의 고용원)는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기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종교활동 보장과 교직원의 공적인 종교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이다.

라 종교에 대한 집중적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은 불가능한가?

첫 번째 물음에 대한 것은, 일단 학생들과 교직원을 구분하고, 학생들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종교활동을 최대한 허용하는데, 정규 교과과정이 아닌 자발적 활동이나 교외 활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혹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며, 교직원은 정교의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교직원으로서의 신분에 따른 활동에는 어떠한 종교 활동도 배제토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특정 종교나 교과와 관련이 없이도 얼마든지 종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종교적 차원이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교육적 차원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종교교육 자체가 특정 종교나 교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 종교학계와 교육계가 공동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미 2000년에 미국종교학회 주도로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특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교과서 개발, 교과과정 설정, 교사교육 문제 해결 등을 다루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필요성을 교육계에 주지하고 있다. 지금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종교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고, 그 실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바, 조만간 정식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²⁰⁾

4. 미국의 종교교육 현실과 특징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념으로 채택했으나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여전히 기독교 중심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점차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혹은 다종파) 상황이 전개되면

20)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 in the United States*, 2010. 4; [부록 4] 참조.

서 정교의 분리가 중시되고 종교교육도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한 오랜 시도가 있었다. 최근 미국수정헌법센터에서 발간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사용 지침서」와 종교학회에서 펴낸 「미국 공립학교(K-12)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 지침서」는 그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건들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²¹⁾

- 종교에 대한 학교의 접근방법은 학문적(academic)이지 헌신적(devotional)인 것이 아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들을 알게 하는 것(awareness)을 추구해야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도록(acceptance)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종교에 대해 공부하도록(study) 후원을 해야지 종교를 실천(practice)하도록 지원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종교적 견해들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지(expose)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갖도록 강요해서는(impose)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모든 종교에 대해 교육을 해야지(educate) 종교를 증진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념들을 알려 주어야지(informs) 어떤 특별한 신념을 학생들이 확신하도록(conform)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종교에 대한 교육 자체가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임을 인식시키는 동시에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목적이 “인간 경험의 종교적 차원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임을 확신시켜주고자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²²⁾

또한 구체적인 종교에 대한 교육 내용은 과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떠한 과목에서도 공통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종교학(religious studies)의 전제가 제시되고 있는데, 주요한 제목만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²³⁾

- 종교는 내적으로 다양하다.
- 종교는 역동적이다.

21) Ibid., pp. 7-8; First Amendment Center. *A Teacher's Guide to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 Nashville: First Amendment Center, 1999, p. 3 참조.

22)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op. cit., p. 5.

23) Ibid., pp. 12-15. 구체적인 내용은 이 보고서의 [첨부 4] 참조.

- 종교는 문화 속에 깊이 심겨져 있다.

이러한 종교학에서의 전제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종교학회의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문적 방법으로는 역사적 방법(the historical approach), 문학적 방법(the literary approach), 전통에 토대를 둔 방법(the tradition-based approach), 문화적 방법(the cultural approach) 등이 천거되고 있으며,²⁴⁾ 아울러 교사들이 지녀야 할 역량과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1.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종교전통, 신념, 실천은 물론 무신앙이나 무신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 신념, 실천 혹은 전통이 부적절하다는(혹은 공정하지 않다는)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
3.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4. 교사들은 승인된 교과과정의 내용대로 종교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5. 교사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실천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아니며 부자격 요건도 아니다. 종교의 내용과 교육학에 대한 학문적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며, 교사가 개인적 종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현실적으로 종교에 대한 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정규 과목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교사의 역량과 태도가 종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과목들을 가르치는데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 종교교육의 현실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미국 학계에서 널리 논의 중에 있다.²⁶⁾

24) Ibid., pp. 9-12.

25) Ibid., pp. 18-20.

26) 이에 대해서는 Warren S. Nord & Charles C. Haynes, op. cit., Part II. The Curriculum 참조.

Ⅲ. 영국의 종교교육 제도 개선

종교는 인간 삶의 핵심 가치를 다룬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언행심사(言行心事)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줌으로써 개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사회를 통합한다. 지금 한국의 초·중등학교에 요청되는 종교교육은 단순히 한국과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전통들에 대한 개인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면, 오히려 (1) 현대사회를 형성하는 다양한 종교들과 신념들을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며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공감적 태도를 갖고, (2) 종교의 내용(contents)을 설명할 수 있는 ‘종교 문해’(religious literacy)의 능력을 배양하며, (3) 종교적 실천과 수행의 중요성을 깨달아 사회변혁의 지혜를 습득하는 데까지 그 초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생이 효과적인 ‘다문화’ 종교교육을 받는다면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성인이 되어 누리게 될 삶과 직장 그리고 노후에 대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교교육은 초·중등학생을 ‘성공적인 학습자’로서만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성숙한 세계관을 토대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건강한 시민’을 교육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인은 종교교육을 통하여 가치를 분별하는 지식을 얻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적 기여와 더불어 종교교육은 개인이 사회의 다양성을 공감적이며 동시에 비판적으로 이해하게 함으로써 이질적인 종교와 인종 그리고 문화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여 갈등과 차별 그리고 사회분열을 치유하는 사회통합에도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한국 종교교육학계는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개인의 성숙과 건강 그리고 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요청되는 종교교육에 대하여 기존의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문화종교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종교교육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 필자는 영국의 종교교육 개선 사례를 들어 한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실시 가능한 종교교육의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무종

교인구와 함께 불교와 기독교가 종교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의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이미 한국의 종교교육학계와 종교학계는 영국의 공교육에서의 진행되어 온 종교교육에 주목하였다. 종교교육학자 손원영은 영국의 종교 상황에서 나타나는 국교인 성공회를 배경으로 한 기독교교육의 공적 담론화와 다종교 사회화로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영국 사회에서 발전한 종교교육의 주요 특징으로서 (1) ‘필수과목’으로서의 종교교육, (2) ‘종교학적 종교교육’에서 ‘인격교육적 종교교육’으로의 전환²⁷⁾, (3) 기독교 중심적 다문화종교교육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그림피트와 구더햄이 제시한 다양한 종교교육의 유형들²⁸⁾을 분석하면서 (1) 개신교와 천주교의 교회 일치적 종교교육안의 개발, (2) 신앙적 종교교육과 종교학적 종교교육의 갈등해소, (3) 학문적 비판적 종교교육의 활성화 영성 교육의 도입을 제안하였다.²⁹⁾

반면에 필자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종교교육의 변화를 1988년 교육개혁법 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종교교육의 외연이 과거에 비하여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 성공회를 포함한 기독교 중심의 모델에 머물러 있으며, (2) 종교교육의 태도보다는 내용에 치우쳐 있고, (3) 세계종교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다른 종교전통이 간과되어 왔으며, (4) 공교육에서 지향하는 이념이 일종에 대체 종교로서 강요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³⁰⁾

27) 1988년 교육개혁법의 변화를 ‘종교에 관한 교육’(수평적 접근)에서 ‘종교로부터의 교육’(실존적 접근)으로 전환이라고 보는 해석보다는 오히려 ‘특정 종교에 대한 훈육’(수직적 접근)에서 ‘다문화적 종교교육’(수평적 내지 다차원적 접근)으로의 변화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28) 그림피트는 ① 신앙고백적 혹은 교리적 접근, ② 신(新)신앙고백적 혹은 신(新)교리적 접근, ③ 개인적 문제탐구 접근, ④ 현상학적 혹은 비교리적 접근 등으로 영국의 종교교육이 발전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⑤ ‘실존적 접근’과 ‘수평적 접근’[차원적 접근]을 합친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한편 구더햄은 ① 종교적-고백적 종교수업유형, ② 고백적-인본주의적 유형, ③ 종교적-학문적 유형, ④ 학문적-인본주의적 유형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그림피트처럼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림피트가 제안한 ‘통합적 접근’은 한국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교육안 개발의 한계가 있으며 구더햄도 단순히 유형을 구분하는데 그쳤다는 한계가 있다.

29) 손원영, 「영국에서의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14집 (2006): 211-232.

30) 안 신,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종교교육의 최근 변화와 한계: 1988년 교육개혁법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47권 (2007): 241-261.

1. 종교상황과 종교교육

유럽의 종교 지형 안에서 영국은 그 변화의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공식 명칭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크게 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앵글로 색슨족이 다수를 차지하는 잉글랜드와는 달리 나머지 세 지역은 켈트 문화(Celtic Culture)를 공유하며, 영어 외에도 다양한 문화와 언어(스코츠어, 갈릭어, 웰쉬어 등)를 사용하며 지역 나름의 독특한 문화교육을 진행하고 있다.³¹⁾

종교적으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는 ‘국교’(established church)로서 각각 성공회(Church of England or Anglican Church)와 장로교회(Church of Scotland or Presbyterian Church)를 공인하고 있으면서도, 이 밖에 다양한 개신교 교파들(감리교, 침례교, 구세군, 유니테리안교회 등), 가톨릭교회, 동방정교회, 그리고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현재 6천만 전체 인구 중 약 70퍼센트가 넘는 영국인들이 자신을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목적(名目的, nominal)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활동하는 신자의 수는 급격하게 줄어 지금은 전체 인구의 약 8퍼센트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³²⁾ 이러한 세속화와 함께, 교인들의 노령화와 청장년층의 무관심이 종교인 감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어, 고색창연하던 많은 교회건물들은 그 본연의 종교적 기능을 상실한 채, 극장이나 상점 혹은 카페 등 세속적인 용도로 전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한편,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중동 등에서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면서, 무슬림 인구가 약 1백 8십만 명에 이르고 있고, 주로 인도에서 들어온 힌두교와 시크교도가 각각 5십만과 3십 2만 정도를 차지하면서, 런던, 버밍햄, 부라드포드, 올덤, 글래스고우 등의 주요 도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 밖에도, 유대인, 조로아스터교, 바하이교 등이 산재되어 있고, 최근 뉴

31) 잉글랜드와 웨일즈와는 달리, 스코틀랜드의 종교교육은 스코틀랜드의회에서 교육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32) Steve Bruce, *Religion in Modern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p. 29-72.

에이지(New Age)와 영성(Spirituality)의 유행으로 신종교인들을 비롯한 영적 구도자들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은 급격한 세속화 가운데 전통적인 의미의 종교들은 "죽어" 가고 있는데 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신종교와 영성모임들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제 2의 종교혁명 혹은 "재성화"(re-sacralization)라고 할 만큼 그 영향력이 큰 것은 아니다.

최근 고조되고 있는 종교에 대한 개념규정에 대한 학계의 논란도 이러한 세속화에 대한 기존의 전통종교의 침체 속에서 새로운 종교학적 담론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의 준거틀 안에서 문화, 문학과 예술에 대한 종교 인식,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의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를 종교 분석에 포함시키는 경향,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의 시민종교론(Civil Religion) 등은 세속화된 현대 사회를 새로운 종교학적 시각에서 분석하려는 학자들에게 여전히 효과적인 준거틀을 제공해 왔다. 최근 축구, 럭비, 스키 등 스포츠와 예술의 종교성에 대한 논의도 영국의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영향 아래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표 7> 영국의 종교인구(2001년 4월 기준, 영국 통계청)

종교	전체 인구수(명)	전체인구 비율(%)	비기독교 종교인구비율
기독교	41,014,811	71.8	-
무슬림	1,588,890	2.8	51.9
힌두교인	558,342	1.0	18.3
시크교인	336,179	0.6	11.0
유대교인	267,373	0.5	8.7
불교인	149,157	0.3	4.9
기타 종교	159,167	0.3	5.2
비 기 독 교 종교인구	3,059,108	5.4	100.0
무종교	8,596,488	15.1	-
무응답	4,433,520	7.8	-

총계	57,103,927	100.0	-
----	------------	-------	---

현재 영국의 종교는 2001년 통계청의 자료(<표 7> 참조)에 따르면 71.8%의 기독교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뒤를 이어 무종교(no religion)인이 15.1%, 무슬람이 2.8%, 힌두교인이 1.0%, 시크교인이 0.6%, 유대교인이 0.5%, 불교인이 0.3%를 차지하고 있다.³³⁾ 그러나 2010년 유럽의 무슬림 통계에 따르면, 영국의 무슬림은 290만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에 영국 왕실의 결혼식은 독특한 영국의 종교지형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2011년 4월 29일에 있었던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캐서린 미들턴의 결혼식은 미디어를 통하여 전 세계 20억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왕자와 평민의 결혼이라는 점이 크게 부각되었지만, 그들의 결혼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기독교식(式)으로 진행되었으며 초대된 하객의 명단에는 성공회 대표를 포함한 이웃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국은 정교분리(政敎分離)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국교가 엄연히 존재한다. 따라서 결혼식의 주례는 영국 성공회의 로완 윌리엄스 대주교가 맡았으며, 초대된 종교인 대표들에는 성공회를 넘어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등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5월 18일 100년 만에 이루어진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아일랜드 방문도 주목할 사건이다. 가톨릭을 국교로 삼고 있는 아일랜드와 성공회와 장로교를 국교로 삼고 있는 영국의 종교적 갈등을 잘 보여준다. 물론 영국의 오랜 식민지 정책에 대한 분노가 그 이면에는 놓여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아일랜드에 정착한 영국의 개신교인과 아일랜드의 가톨릭교인 간에 일어나는 종교적 갈등으로 보인다. 런던, 버밍햄, 글라스고 등의 대도시에서는 이국적인 옷을 입은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의 신자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의 제국주의가 관련되었던 식민지의 역사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에서 이주해 온 이민자들의 종교들은 이제 2세와 3세로 내려가면서 영국의 주류종교로서 변모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 인구의 71.1%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는 우리에게 어

33) 영국 통계청 자료는 http://www.statistics.gov.uk/cci/nugget_print.asp?ID=954를 참조.

떤 의미를 주는가? 실제로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비율은 5%미만이라는 점에서 ‘명목적 기독교인’(nominal Christian)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교회활동 없이 모호한 기독교 신(神)의 개념을 믿으면서도 전혀 일상 속에 기독교적 삶의 실천과 헌신이 없는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기독교인’(cultural Christian)은 오랜 서구문화를 지탱해 온 기독교 문화의 영향 아래 별 다른 대안 없이 체득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인이 고령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사라지는 노년에 이르게 되면 다시 냉담자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젊은이들이 영국의 교회에 거의 참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21세기 영국사회가 직면한 종교의 다양화는 이민과 유럽통합에 맞물린 피할 수 없는 국제화의 부산물이다. 2005년 7월에 런던폭파사건은 영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정책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제 2의 종교로서 이슬람은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규모가 크지만 영국 주류사회와의 관계에서 대체로 보수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2001년 9·11사태가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외국인에 의한 무차별 테러였다고 한다면 런던의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폭파사건은 영국에서 성장한 무슬림 영국인들이 주류 영국인에 대한 불만에서 자행된 테러였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영국에서는 프랑스와는 달리 이주 공동체의 문화와 언어 및 종교를 존중하며 그 다양성의 가치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다문화 종교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지역별로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곳도 있다. 1500여개의 모스크가 있으며 대부분 수니파에 속하는 성원이며 4%정도가 시아파 모스크이다.

2. 학교제도 및 종교교육의 위상

1870년에 최초의 교육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숙학교에서는 ‘교파적인 훈육’(denominational instruction)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기독교 성경을 교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특정한 교파의 특색을 지닌 어떤 종교적 교리문답이나 종교적 의식서도 학교에서는 교수될지 않아야만 한다.’(No religious catechism or religious formulary

which is distinctive of any particular denomination shall be taught in the school).³⁴⁾ 이 규정은 1902년 교육법에서 다시 강조되었고, 교사를 위한 규정과 정부와 교회의 협력관계가 일부 첨가되었다. 이러한 ‘비교파적 기독교 교육’(non-denomination Christian Education)은 오늘날까지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주요 경향이 되어왔다. 그러나 종교교육정책의 변화는 20세기에 접어들어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영국인들은 1944년과 1988년 두 차례 종교교육법안의 변화를 경험했다. 종교교육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이라 할 만큼, 1944년 교육법이 "종교교육의 근간을 마련한 계기"라고 한다면, 1988년 교육개혁법은 "종교교육의 혁명"이라고 지칭할 만큼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에서 두 교육법을 간략하게나마 비교 검토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1944년 교육법(1944 Act)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공립 학교(maintained school)들은 소위 ‘종교훈육’(religious instruction)이라는 것을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규정했다. 영국의 학교에는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는데, 다시 공립학교는 지역학교와 기부학교로 세분되어 진다. 여기서 공립학교란 개인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 혹은 종교 단체의 지원을 받는 학교를 의미한다.

지역학교(County School)는 전적으로 공공 재정의 지원에 의존하는 학교이다. 그리고 기부학교(Voluntary School)는 종교단체로부터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학교이다. 기부학교에는 정부지원학교(Aided school), 정부지배학교(Controlled School), 특약학교(Special Agreement School)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학교가 있다. 정부지원학교의 유형에는 대부분의 개신교 교과 학교와 유대교 학교가 포함되는데 재정적 지원을 하는 종교단체에서 이사회를 임명하고 따라서 종교훈육의 성격을 각 학교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보통 특약학교도 종교훈육의 차원에서 정부지원학교의 모델을 따랐다. 그러나 정부지배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특정 교사에 의한 교과적 종교훈육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지역학교의 모델을 따랐다.

따라서 1944년 교육법에 따라 지역학교와 정부지배학교는 “종교훈육

34) Robert Jackson, "Religious Studies and Development in Religious Education in England and Wales," ed. Ursula King, *Turning Points in Religious Studies* (Edinburgh: T & T Clark, 1990), p. 102.

을 위한 협의된 교과과정”(Agreed Syllabuses for Religious Instruction)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다. 물론 보호자와 교사의 의사에 따라, 이 종교훈육을 학생들에게 배우거나 가르치는 것에 대해 선택하게 함으로써 양심적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학교에서 종교훈육은 ‘비교파적’(non-denominational)이어야 하고, 지역 대표 위원회들로 구성된 기구에 의하여 발간된 교과과정을 따를 것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지역대표를 크게 (1) 그 지역의 정치 대표, (2) 영국성공회(잉글랜드의 경우) 대표, (3) 교사 대표, 그리고 (4) 다른 교단 대표 등 네 그룹³⁵⁾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는 정치, 종교, 교육 전문가들이 종교교육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영국 정부의 기본 입장을 밝혀 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동시에 잉글랜드 지역의 국교인 성공회의 ‘교과 중심적’ 교육을 지양하면서, 다양한 기독교의 교파들, 예를 들어, 가톨릭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동방교회 등이 종교교육에 대한 보다 폭넓은 기여의 창구를 정책적으로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톨릭교회가 주로 기부학교 중에서도 정부지원학교와 특약학교의 형식을 선호해 왔으므로 실상 다른 교파 대표는 주로 성공회가 아닌 개신교 범주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44년 모델은 ‘교과적 배타주의’를 극복하는 원칙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기독교(개신교) 중심적 종교지도’의 모델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버밍햄과 같은 다종교 다문화상황을 경험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1944년 교육법의 ‘다른 교단 대표’에 대한 조항을 ‘다른 종교전통’으로까지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종교훈육 교과과정에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1988년 개정된 교육법은 1944년 교육법의 기본적인 틀을 거의 유지 (규정, 거부, 협약된 교육과정 등의 경우)하면서도, 교과과정 안에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을 강화시키고 당시 그 분야의 발전된 논의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획기적’ 사건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발전된 논의란 종교학의 파급 효과를 의미한다. 영국의 종교교육학자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도 지적하고 있는

35) 웨일즈에서는 성공회가 잉글랜드처럼 국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정치대표, 교사, 교회대표 세 그룹이 종교지도의 협의된 교과과정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것처럼, 종교적 신념들을 의도적으로 전달한다는 의미가 강한 '종교훈육'(religious instruction)을 대신하여,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이란 용어가 새롭게 대체한 것은 1988년 교육법의 '가장 의미심장한 발전'이라 할 것이다. 종교교육은 이제 그 목표 자체가 학생들이 '종교적'이 되기를 목적으로하기보다는 '교육적' 차원에 머물러야 할 것이며, 그 교과과정도 '교육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다.³⁶⁾

그러나 필자의 관점에서는 "용어의 변화"보다도 더욱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종교교육의 구체적 교과과정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교육과정 위원회의 상설화와 그 구성원의 확대이다. 영국의 종교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법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타종교의 대표자들이 교과과정 심사과정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1조 4항은 해당 지역마다의 주요한 종교 전통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³⁷⁾ 따라서 잉글랜드의 런던, 버밍햄, 브래드포드에서는 무슬림 대표, 런던과 레이체스터에서는 힌두교 대표, 요크셔 서부에는 시크교 대표가 교과과정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물론 1944년 교육법이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 교육, 종교 관련 전문가들의 기여의 문을 기본적으로 열어놓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1988년 개혁법은 과거에 선택적이었던 종교교육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s on Religious Education)의 위치를 '상설 (Standing) 기구'로 만들었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 종교자문위원회는 종교교육 교과과정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지역 교과과정을 평가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이 최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효과적으로 종교교육 과정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가 마련한 셈이다.

36) Robert Jackson, "Religious Education after the Reform Act," eds. by Robert Jackson and Dennis Starkings, *The Junior Religious Education Handbook* (Cheltenham, England: Stanley Thornes Ltd, 1990), pp. 3-5.

37) 1988 11 4 (a) Christian and other religious denominations as, in the opinion of the authority, will appropriately reflect the principal religious traditions in the area.

3. 종교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

영국 종교교육제도의 혁신을 상징하는 1988년 교육개혁법에 나타난 종교교육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³⁸⁾ 필자는 1988년 교육개혁법의 전문 일부를 번역하여 부록에 실었다.

첫째, 1조에서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과 종교예배(religious worship)가 ‘국가 기본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과 함께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함을 밝히면서, 그 기본적인 개혁 방향이 학생들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 발달을 촉진시키고’(promotes the spiritual, moral, cultural, mental, and physical development), 학생들에게 “성인의 삶에 기대되는 기회와 책임 그리고 경험”(the opportunities, responsibilities, and experiences of adult life)을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1조 2항에 따르면, 종교교육은 모든 공립학교(maintained school) 학생들에게 ‘기초 교육과정’(basic curriculum)으로서 교수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는 종교교육을 일반교육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교육을 학생의 ‘전인교육’의 필수요소로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자각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종교에 대한 지식의 전달로서의 종교교육이 아닌, 종교예배의 참여에 대한 규정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종교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생의 삶 가운데 종교가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정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종교가 학생의 정체성 형성과 시민의식의 확립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있다.

둘째, 6조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이 매일 합동예배(daily collective worship)에 참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 전체 혹은 학년별로 나누어 시행할 수 있는 이 공동 예배의 계획은, 지역학교(County School)인 경우 이사회와 협의 후 교장이 결정하고, 기부학교(Voluntary School)의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의 후 이사회가 결정한다. 그리고 합동예배는 학교부지에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합동예배는 ‘비교단적’(undenominational)이며 ‘비교파적’(non-sectarian)이어야 한다. 학생의 부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예배에 자신의 자녀를 보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보통 예배는 오전

38) 영국의 1988년 교육개혁법 전문은 [부록 1]을 참조.

일찍 행해지며 이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은 (예배를 마친 후) 출석을 부르는 시간에 등교를 하여 ‘세속적 교육’(secular religion)을 계속 받게 되어 있다. 보통 기독교 성경 이야기가 예배의 주요 요소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잉글랜드 지역에 성공회가 국가교회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다.

셋째, 7조에서는 합동예배는 전체적으로 “대개 기독교적 성격”(broadly Christian character)을 지녀야 할 것을 규정한다. 그러나 7조 2항은 “특정 기독교 교파”(particular Christian denomination)의 독특한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특정교파에 예속되지 않는 “기독교 신념의 전통들”(traditions of Christian belief)을 가르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역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가정 배경이나, 그들의 나이와 적성을 고려하여 합동예배의 성격을 나름대로 규정할 수 있다. 7조 6항에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교파”(other religious denomination)로 국한된 합동예배도 지양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종교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종교적 고립지역이 영국 내에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한 영국 정부의 통합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합동예배의 성격에 대하여도 학부모 간의 견해의 차이가 커서 학교장이 예배를 기획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기독교 예배가 어떤 학부모들에게 너무 약하고 혹은 반대로 너무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무슬림 학부모들은 근처 모스크의 이맘의 인도 아래 무슬림 예배를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넷째로, 8조에서는 종교교육의 교과과정은 영국(Great Britain)의 종교 전통들이 주류 기독교라는 사실을 ‘반영’(reflect)하면서도, 영국을 대표하는 다른 주요 이웃종교들의 가르침과 신행을 ‘설명해야’(take account of)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여전히 국가교회로서의 성공회의 역사성과 주도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급격하게 변하는 다종교상황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이분법적 도식이 1988년 교육개혁법에서도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9조에서는 학생의 부모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합동예배와 종교교육에서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면제는 해당 학교에서 부모가 원하는 종교교육을 학생에

게 제공할 수 없을 때, 그러한 종교교육을 행하는 학교로 해당 학생을 보낼 수 없을 때, 학교 시간 동안 다른 곳에서 그와 같은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합동예배와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국 주류 영국 사회에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학생시기부터 갖게 될 우려를 느낀 많은 부모들은 이러한 면제요청을 하는 대신에 기독교적 예배에 학생을 노출시키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종교교육이 가능한 학교 근처로 이사하여 전학을 가곤 한다.

여섯째, 11조에서 모든 지역 교육 당국은 “종교교육 상설 자문 위원회”(standing advisory councils on religious education)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종교교육에 이용되는 특정한 교수 방법(particular methods of teaching), 교과자료의 선택(choice of materials), 교사 훈련 지침(provision of training for teachers) 등의 문제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1) 해당 지역의 주요 종교전통들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기독교 혹은 타종교 교과 대표, (2) 영국 국교회 (Church of England), (3) 교사 대표 기구와 (4) 교육 당국, 크게 네 그룹으로 구성되어 진다. 분명하게, 11조 5항은 영국 국교회의 대표 외에 반드시 (중복됨이 없이) 타교단 혹은 타종교의 대표를 이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위원회는 매년 교육당국에 자문과 그 이유를 전달하고 그 결과는 보고서로 출판한다. 무슬림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이슬람 예배가 기독교 예배를 대신하고 있으며, 다종교적인 예배 형식을 구성하여 시행하는 지역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³⁹⁾

일곱째, (최근 정부공립학교가 된) ‘과거 지역학교’(former county schools)의 종교교육에 대하여, 84조 13항은 어떤 사람도 그 자신의 종교적 의견, 혹은 종교 예배에 참석 혹은 불참석했다는 이유로 교사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어, 14항은 어떤 교사도 종교교육을 가르치거나 가르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종교예배에 참석 혹은 불참석했다는 이유로 보수, 진급 등에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종교교육을 하도록 강요당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한다.

요컨대, 1988년 교육개혁법이 영국 종교교육에 있어서 ‘혁명적’

39) W. Owen Cole, "The New Education Reform Act and Worship in County Schools in England and Wales, ed. King, *Turning Points*, 1990, p. 122.

(revolutionary) 전환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공공정책이 그렇듯이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독교 신학계에서 존 히크(John Hick)의 종교다원주의가 주류 기독교인들과 심지어, 타종교인들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아온 것처럼, ‘문화다원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영국의 종교교육과 이를 뒷받침하는 종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영국 종교교육의 틀은 여전히 기독교 중심 모델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명목적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실질적인 예배 참석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종교교육에서 교수되고 합동예배가 기초하는 주요 전통으로 여전히 기독교, 더 정확히 말해 개신교 중심으로 남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교파주의적인’ 개신교 운동과 갈등을 개선하고 지양하려는 ‘교회연합적’(Ecumenical)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교로서 성공회에 종교교육 상설 자문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등 영국의 종교교육은 기존의 한 특정교파에서 주도하는 기독교 교육과 (근본적으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판단을 가능케 하다. 이러한 차별적 경향은 국교를 인정하는 잉글랜드 지역이 웨일즈 지역보다 더 두드러진다.

둘째, 종교교육을 교수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신학적, 사회과학적, 종교현상학적 등 상호 구별되는 종교 연도가 종교학계에서는 큰 쟁점이 되어 왔다. 그러나 종교교육학계에서는 교수의 ‘태도’(attitude)보다는 그 ‘내용’(content)에 더 중점을 기울여 왔다. 사실, 종교 교육을 어느 입장에서 교수하느냐를 선택하는 문제는 종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감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오히려 왜곡된 선입관을 학생들에게 유년 시절부터 유포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종교교육과 합동예배를 담당할 종교교사의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국의 실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셋째, 종교교육의 범위가 영국 종교 지형을 대표하는 주요 ‘세계 종교’(world religion)를 교육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 종교나 신종교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다. 영국에서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시크교, 힌두교, 불교가 대표적인 6대 종교로 교수되고 있는데, ‘종교’에 대한 개념규정 만큼, 그 범주의 한정은 종교학계에서 큰 논란

이 되어왔다. 기성의 전통 종교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종교 혹은 대체 종교에 대한 ‘부정적 가치판단’을 초등학교 중등학교 과정의 어린 학생들에게(본인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부모와 정부의 결정으로 형성된 종교관을 주입시킨다는 위험이 있다. 사실, 종교교육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점에서, ‘종교 교과서’(text)보다는 ‘종교체험’(religious experience)에 보다 중점을 두어 교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지역 종교공동체를 견학하고 지역 종교지도자를 초대하는 등의 경험적 교육을 강조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미 지적한 방법론의 문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기도 한 점인데, 영국의 종교교육이 지향하는 다양한 종교에 대한 교육이, 전통종교와는 다른 새로운 종교관(new religious worldview) 혹은 새로운 종교 내지 신념을,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선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유포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근본주의자,’ ‘보수주의자,’ 혹은 ‘복음주의자’ 등이 영국의 종교교육을 최근에 비판하며, 나름대로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과적 종교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대표적 논리가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1988년 영국의 교육개혁법은 종교교육의 거시적 안목에서 종교교육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 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전히 영국은 오랜 기독교 전통의 뿌리 깊은 영향으로, 타종교와 종교일반에 대한 보다 ‘공감적’ 이해를 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종교교육의 개혁과 그 법안이 필요할 정도로, 이미 영국의 종교지형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존 Hicks의 종교다원주의가 영국의 버밍햄이라는 도시의 종교다원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듯이, 영국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에서 도출된 종교교육은 영국의 종교 현상과 그 상황에 기반을 둔 것이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역사와 문화면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동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의 상황에 지금까지 살펴 본 영국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종교교육은 한국의 종교를 이해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지형에 대한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분석을 토대로, ‘묘사’(description)와 ‘공감’(empathy)을 강조하는 ‘종교현상학’적 접근 방법이 효과적으로 함께 사용될 때, 하나의 실천 가능한 ‘한국

적’ 종교 교육의 모델이 제시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도시와 지역마다 차이를 인정하는, ‘획일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교육의 모델들이 가까운 미래에 제시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점에서 종교교육이 가져 올 분명한 결과를 확신한 니니안 스마트의 다음과 같은 입장은 여전히 한국적 정황에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⁴⁰⁾

우리는 [종교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종교들과 가치들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양자를 교리적인(dogmatic) 방식이 아닌 다원적인(plural)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4. 종교교육 현실과 특징: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사례

1) 다문화 종교교육의 방법: 영국 잉글랜드의 사례

필자는 미국과 영국에서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종교교육에 있어서 큰 차이를 발견하였다. 아이들이 4년 동안 미국의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성탄절과 하누카와 같은 유대-기독교절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제공되는 것 외에는 본격적인 어떤 형태의 종교교육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의 공립 초등학교(primary school)에 입학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모든 학부모에게 입학한 학생이 세계종교를 학교에서 배울 예정인데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공문이 전달되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⁴¹⁾

물론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종교학자로서 필자는 종교교육을 허락하였다. 흥미로웠던 것은 단순히 교재를 통하여 세계의 종교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종교공동체의 지도자(목사, 신부, 랍비, 이맘)를 학교로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도 하고 학생들이 지역의 종교공동체를 직접 방문하여 지도자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는 점이었다. 초등

40) Ninian Smart and Donald Horder, ed. *New Movements in Religious Education* (London: Temple Smith, 1975), p. 22

41) UK Government, *Religious Education in English Schools: Non-Statutory Guidance*, London: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10), p. 17. 학부모는 자녀가 종교교육에 불참하는 이유를 학교 측에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학교는 학부모의 요청을 수용해야만 한다. ‘아동, 학교, 가족부’는 2010년에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로 변경되었다.

학생 때부터 영국의 학생들은 이웃종교인들을 ‘타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만나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유대교와 힌두교의 축제를 배웠고 여러 신들의 이미지를 색칠하기도 하며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을 만져보며 북미 토착민[인디언]과 바이킹의 언어와 문화를 배웠다.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도시를 방문하자 학교는 학생들과 라마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영국은 종교를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사라질 시대착오적 주제로 파악하기보다는 인류가 보전해야 할 오랜 문화유산과 인류의 지혜로서 종교를 교육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영국 종교교육의 기본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잉글랜드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지침서에도 종교교육의 중요성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종교교육은 중요한 교과목이다.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고 더 넓은 공동체의 통합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정부는 양질의 종교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⁴²⁾

영국에서는 종교교육을 다른 유관 강좌들과 긴밀하게 연결시켜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 인문학, 인격, 보건, 경제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 등과 결합하여 타자의 삶에 나타나는 종교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종교교육을 통해 초·중등학생들은 삶과 사회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을 적극적으로 던지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탐구하며 정체성과 소속감을 기르고 타인에 대한 존경심과 책임감을 형성한다.

영국의 종교교육은 네 가지 차원의 공동체를 교육의 맥락으로 고려한다. 첫째 ‘학교공동체’(school community) 안에서 다양한 문화, 신념, 가치가 기념되고 탐구될 수 있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한다. 둘째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안에 있는 다른 종교와 신념을 조사하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셋째 ‘영국 공동체’(UK

42) UK Government, *Religious Education in English Schools*, p. 4. 잉글랜드의 경우, 초등학교 6년과 중등학교 5년이 의무교육 기간이다.

community) 안에서 종교가 국가적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를 배운다. 넷째 ‘세계 공동체’(global community) 안에서 종교와 신념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세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한다.⁴³⁾ 이러한 다층적 맥락을 고려한 종교교육은 추상적이며 교과적 종교연구에서 경험적이며 일반적 종교연구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나아가 영국의 종교교육은 (1) 체계적 연구, (2) 주제별 연구, (2) 교차교과연구를 병행함으로써 교과과정의 범위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⁴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체계적 연구’(systematic study)란 종교의 핵심개념들을 탐구함으로써 특정 종교나 여러 종교 혹은 비종교적 관점을 탐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5학년에는 기독교의 예배와 실천이 어떻게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관련이 되어있는지를 밝히고, 9학년[중학교 3학년]에는 유대교와 인본주의(humanism)를 비교하여 그들의 신념이 어떻게 세계를 개선하는 사회참여로 이어지는 지를 다룬다.

‘주제별 연구’(thematic study)는 주요 물음에 대한 종교의 답변을 찾는다. 예를 들어, 4학년에는 기독교의 사순절(Lent)과 이슬람의 라마단(Ramadan) 등의 절기와 축제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에는 공정거래, 정당한 전쟁, 죽음 등의 주제를 가지고 불교와 바하이신앙의 신념과 실천을 다룬다.

‘교차교과연구’(Cross-curricular study)는 다른 교과목의 주제와 연결시켜 종교를 공부한다. 예를 들어, 6학년에는 과학과 종교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한 설명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과 과정을 비교한다. 7학년[중학교 1학년]에는 이주(migration)를 주제로 하여 역사적 원인과 시민의 권리 및 종교적 정체성을 자이나교와 조로아스터교 공동체를 사례로 다룬다.

영국의 최근 종교교육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는 종교적 세계

43) UK Government, *Religious Education in English Schools*, p. 8. 핵심교과(영어, 수학, 과학)를 포함해 총 12과목이 국가교과과정(National Curriculum)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종교교육, 성교육, 진로교육도 법률로 지정된 교과이다. 특히 종교교육은 1988년 교육법개정으로 모든 공립학교에서 교과로 포함되었다. 이 교과과정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 사용하며 스코틀랜드는 유사하지만 다른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교육과정은 스코틀랜드 교육부 웹 페이지(<http://www.ltscotland.org.uk/>)를 참조.

44) UK Government, *Religious Education in English Schools*, p. 24. 지침서는 다양한 구체적 사례들을 담고 있다.

관들뿐만 아니라 무종교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종교적 신념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철학적 관점을 배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 주제는 나쁜 가치들의 통합과 증진을 촉진해야 한다.⁴⁵⁾

영국의 종교교육은 이미 1988년 교육개혁법의 혁신을 통하여 특정한 종교를 훈육하는 방식의 교육(religious instruction)을 극복하고 종교교육과 비교파적 종교예배를 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켰으며,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다른 세계종교들을 설명하는 큰 그림을 그렸다. 제도적으로 ‘종교교육 상설자문위원회’(standing advisory councils on religious education)의 설치가 규정되어 영국국교회[성공회], 주요종교전통들, 교사대표, 교육당국대표가 종교교육의 방법과 자료선택 및 교사훈련의 지침마련 등의 결정과 시행감독에 참여하고 있다.⁴⁶⁾

2) 다문화 종교교육의 단계별 모델: 영국 스코틀랜드의 사례

잉글랜드와는 달리 스코틀랜드는 초등학교 7년과 중등학교 4년으로 의무교육이 구성된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잉글랜드처럼 2년을 더 공부하는데, “종교와 도덕 교육”(religious and moral education)이 ‘건강과 보건’, 언어, 수학, 과학, 사회, 예술, 기술과 함께 필수교과목으로 교육되고 있다.⁴⁷⁾ 대학준비학년을 포함한 모든 초·중등학생들은 종교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크게 비교파적 학교(non-denominational school)와 로마가톨릭학교(Roman Catholic school)의 과정으로 구분된다. 잉글랜드정부가 지역 교육당국과 학교에 구체적인 교육내용의 결정을 맡기고 있는데 반하여 스코틀랜드정부는 학년별 종교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⁸⁾

45) UK Government, *Religious Education in English Schools*, p. 23.

46) 안 신, 「잉글랜드와 웨일즈 종교교육의 최근 변화와 그 한계」, pp. 253-256.

47) Scottish Government, *A Curriculum for Excellence: Progress and Proposals*,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2006), p. 14.

● 비교파적 학교의 종교교육 내용 [공립학교]

1. 기독교

1) 신념

- 초기단계: 신과 예수에 관한 기독교이야기, 이미지, 음악, 시를 배운다.
- 1단계: 성경이야기를 통하여 신과 예수를 이해한다. 기독교의 지식을 넓히고 스코틀랜드와 세계에서의 역할을 탐구한다. 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해 본다.
- 2단계: 성경과 다른 기독교 이야기에 대한 나의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 예수와 다른 성경 인물의 삶을 통해 기독교의 신념을 이해한다. 독교 신념을 이해하고 나의 신념과의 유사점을 찾는다.
- 3단계: 기독교자료를 이용하여 신, 예수, 인간에 관한 믿음과 실천을 설명한다. 스코틀랜드와 세계의 발전에 대한 기독교의 기여사례를 찾는다.
- 4단계: 기독교자료를 토대로 신념과 영향력을 파악하고 나쁜 견해를 갖는다. 스코틀랜드와 세계의 발전에서 기독교신념의 기여를 설명한다.

2) 가치와 문제

- 도덕, 가치, 정의, 관용 등의 덕목과 기독교의 관계를 배운다.

3) 실천과 전통

- 축제와 절기 및 기독교의 문화적 전통별 다양성을 배운다.

2. ‘학습을 위해 선택된’ 세계종교들

1) 신념

- 세계 종교들의 신념들을 이야기와 자료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한다.

2) 가치와 문제

- 종교와 관련된 가치를 배우고 나누고 협력하는 것을 익힌다.

48) Scottish Government, *A Curriculum for Excellence: Religious and Moral Education*, <http://www.ltscotland.org.uk/> 참조.

3) 실천과 전통

- 축제와 종교의식을 이해하고 스코틀랜드와 세계 안에서 파악한다.

종교교육의 내용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세계종교의 신념, 가치, 실천의 차원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래와 같이 학습자 자신의 신념과 가치의 발전을 함께 고려한다.

3. 신념과 가치의 발전

- 모든 단계에 걸쳐 학습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신념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동시에 “자기 자신의 신념들을 깨닫고 이해하여 긍정적인 방식으로 실천한다.”
- 초기단계: 놀며 배우며 공정, 돌봄, 나눔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킨다.
- 1단계: (제도) 종교와 독립된 신념과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 2단계: 현대 스코틀랜드의 다양한 신념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한다.
- 3단계: 사색과 토론을 통하여 사람들의 신념을 설명하고 궁극적 질문을 다룬다.
- 4단계: 신념과 도덕체계를 이해하고 추론된 시각을 갖는다.

공립학교에서의 ‘비교파적’ 종교교육은 기독교와 세계종교를 넘어서 새로운 신념들의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관용 및 나눔도 배운다. 그러나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은 학교의 ‘교파적’ 설립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반기독교’가 아닌 ‘가톨릭기독교’(Catholic Christianity)를 중심으로 ‘세계종교’를 교육하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 가톨릭 학교의 종교교육 내용

1. 가톨릭기독교

- 1) 신의 신비: 창조와 가톨릭의 자연관
- 2) 신의 이미지: 가톨릭의 인간관

- 3) 신의 계시된 진리: 삼위일체
- 4) 신의 아들: 예수와 영생
- 5) 신의 표지: 교회와 성사들
- 6) 신의 말씀: 성경공부
- 7) 신의 시간: 기도, 미사, 가톨릭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의미, 축제와 절기
- 8) 신의 통치: 용서, 화해, 신의 통치, 십계명, 예수의 계명

2. ‘다른’ 세계종교들 (유대교/이슬람)

- 1) 신념
- 2) 가치와 문제
- 3) 실천과 전통

* 가톨릭학교의 종교교육은 ‘비교과적’ 종교교육과는 달리, ‘다른’ 세계종교로서 유대교와 이슬람 가운데 하나 혹은 모두를 선택하여 다룬다. 나아가 기독교 안에 다양한 전통들을 다룰 수 없다는 내용적 한계는 있지만 반면에 가톨릭신앙에 대한 교리적, 의례적, 윤리적 교육이 입체적으로 심도 있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49) Scottish Government, *Religious Education in Roman Catholic Schools*.
<http://www.ltscotland.org.uk/> 참조.

IV.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 개선 비교

1. 종교상황과 종교교육

미국과 영국이 다종교국가이고, 기독교가 주도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가 헌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철저히 준수되고 있기 때문에 다종교상황은 점점 더 확대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영국은 비록 성공회와 스코틀랜드 교회가 각각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국교회이나 명목상의 위상에 불과하며, 불문법 국가이면서도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가 원칙적으로 준수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다종교상황이 심화되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교파와 교단을 포괄하는 기독교가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종교이지만 두 국가에서 모두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나 성당에 출석하는 기독교인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므로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이 부각되는 상황이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한 국가 내에서도 종교다원상황의 심화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영국과 미국은 여러 종교들에 대한 이해를 국민의 필수적 소양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방안을 종교교육에서 찾고 있다. 영국은 1988년의 「교육개혁법」을 통해 종교교육을 “국가의 기본적 교육과정”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전인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강조하고 있다.⁵⁰⁾ 미국도 종교에 대한 교육이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필요성은 거론하고 있다.⁵¹⁾

또한 다종교상황의 확대와 심화는,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 분명히 드

50) 영국의 1988년 「교육개혁법」 제1조 참조. 영국정부 공식 홈페이지 내에 있는 입법내용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www.legislation.gov.uk/ukpga/1988/40/pdfs/ukpga_19880040_en.pdf). 발췌 번역된 것은 이 보고서의 [부록 1] 참조.

51) 이 보고서의 [부록 3]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관한 교사용 지침서」 참조.

러났듯이,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도 다원적인 상황의 초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과 분쟁은 민족과 인종의 갈등으로 비화되기 십상이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갈등들이 중첩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연루가 될 경우 내전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가 빈번했고, 영국은 이미 북아일랜드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 분쟁은 인종적 갈등과 종교적 갈등이 중첩되고, 그것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잉글랜드는 앵글로색슨족이고 아일랜드는 게일족과 켈트족의 혼혈로서 인종적으로 두 지역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 또한 잉글랜드를 비롯하여 웨일즈와 스코틀랜드는 가톨릭에 반기를 들고 새로 세운 성공회를 수용한 반면 아일랜드는 가톨릭을 고수하였다.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의 속령이었던 아일랜드는 1919년에 독립을 선언했고 1949년에 완전히 독립된 국가가 되었으나, 현재의 북아일랜드는 제외되었다. 북아일랜드의 가톨릭계 주민들이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공민권 투쟁을 벌이고 북아일랜드를 탈환하고자 하는 아일랜드의 통일투쟁이 아일랜드공화군(IRA)의 무장투쟁으로 나타남으로써 폭탄테러가 자행되는 등 극심한 분쟁과 내전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이다. 평화협정을 통한 분쟁 종식의 실마리를 찾긴 했지만, 여전히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계 주민들과 성공회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고, 본토 영국인과 북아일랜드 영국인 사이의 해묵은 반목도 여전하다.⁵²⁾

이러한 종교들 사이의 반목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도 종교교육은 중시될 수밖에 없다. 종교에 대한 무지가 오해를 낳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겨남으로써 전쟁으로까지 비화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 종교학회가 종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이 편견과 적대감을 불리일으키고, 그로 인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로운 공존의 노력에 저해가 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⁵³⁾

요컨대 영국과 미국의 종교상황은 다소 다르지만, 종교다원사회의 확대와 심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국민의 기본적 교육의 측면에서

52) 이에 대해서는 후쿠오카 마사유키, 『21세기 세계의 종교분쟁』, 김희웅 역(국일미디어, 2001), 201-216쪽 참조.

53) 별첨 [부록 4] 「미국 공립학교(K-12)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지침서」 참조.

도,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도 종교교육을 중시되고 있다 하겠다.

2. 학교 제도 및 종교교육의 위상

영국과 미국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까지 공교육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학교교육 제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은 공립학교(public school과 charter school)와 사립학교(private school)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어서 공교육 체제가 학교교육에 전면 도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의 학교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학교(지역학교, country school)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일부 지원을 받는 학교들(기부학교, voluntary school; aided school, controlled school, special agreement school)도 공립학교로 간주되어 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단지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만 사립학교로 구분된다. 따라서 영국의 공립학교와 미국의 공립학교는 설립 주체와 운영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교육법적 규정을 따르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학교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의 위상에서는 영국과 미국이 크게 다르다. 영국은 1988년의 교육개혁법을 통해 1944년부터 유지되어 온 정규과목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위상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그 위원을 확대함으로써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상향시켰다. 더욱이 ‘종교교육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s on Religious Education)를 상설 기구로 만들어 종교교육 교과과정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종교교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사로 부각시켜 놓았다. 영국의 종교교육은 명실 공히 영국 초·중등교육에서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육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미국의 종교교육은 어떤 식의 종교교육도 가능한 사립학교(특히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만을 허용하는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으로 구분되나,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는 주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영국과는 달리 미국의 공립학교들에서는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혹은 종교학[religious studies])이 별도의 교과목으로 된 정규 과목이 아니며 수많은 선택과목의 하나일 뿐이며 그것을 선택하는 공립학교는 매우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이 논의되는 것은 중요한 정규 교과목들에도 종교에 대한 내용이 매우 많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세계사 및 미국사), 사회, 문학, 영어 등의 정규 교과목에 종교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고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는 이러한 과목들과 그 교과과정에 있는 종교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이 현안으로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다. 미국 정부(특히 교육부)와 학계(특히 종교학계) 및 주요 종교단체와 사회단체들이 그러한 현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학교에서도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의 위상이 향상되고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⁵⁴⁾

3. 종교교육제도의 역사적 변천

한 국가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종교교육제도도 법에 의해 뒷받침이 될 때 그 실효성이 있게 되는데, 영국과 미국에서도 법적인 근거를 통해 종교교육제도의 개선을 이루어왔다.

영국은 1870년에 제정된 교육법을 통해 정부지원 기숙학교에서의 비교과적 기독교교육 실시를 명문화함으로써 종교교육이 초·중등학교에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비록 기독교 내의 특정 교파나 교단에 치우치지 않은 기독교교육의 실시를 명문화한 것이지만, 종교교육을 정규 과목으로 설정한 것에서 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1902년의 교육

54) 예컨대, 미국의 학교 교과과정을 총괄하는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ASCD)는 이미 1987년에 “교과과정에서의 종교”(Religion in the Curriculum: A Report from the ASCD Panel on Religion in the Curriculum)라는 보고서를 통해 교과과정에서 종교가 더 중요하고 올바르게 포함되어야 할 것임을 천명했다. Charles C. Haynes, *Religion in American History: What to teach and How*, pp. 144-145 참조.

법 개정에서는 기독교교육에서 정부와 교회의 협조를 강조함으로써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했으며, 1944년의 개정에서는 종교훈육(religious instruction)으로서의 종교교육을 모든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협의된 교과과정의 사용도 의무화함으로써 통일된 교과과정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치인과 성공회 대표, 교사 대표, 다른 기독교교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종교교육을 위한 지역대표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기독교교육에 토대를 둔 종교교육의 근간을 확립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그렇지만 영국의 종교교육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혁명적이라고까지 언급되는 1988년의 교육법 개정(교육개혁법)에서는 종교교육의 내용이 전면적으로 수정되고 종교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으므로 오늘날의 영국 종교교육을 가능케 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기독교교육 중심의 종교훈육(religious instruction)에서 전인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개혁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교육이 학생들의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키고,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회와 책임 및 경험을 습득하는, 이른바 전인교육이기 때문에 국민의 기초적인 교육과정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과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종교교육은 정규 교과과정에 따른 수업 외에 공동 예배(종교 활동)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물론 특정 교과나 종파적인 활동을 지양해야 하지만, 종교교육에서 종교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전인교육으로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원치 않을 경우 이 활동에 자식을 보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셋째, 영국에 기독교 전통과 유증이 있다는 점을 종교교육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특정 교과에 예속되지 않은 “기독교 신념의 전통”을 가르치도록 했고, 동시에 영국을 대표하는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도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다종교상황도 반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1988년의 ‘교육개혁법’은 영국의 기독교전통과 현재의 다종교상황을 모두 고려하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함

께 충족하려는 영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교육을 위한 상설 자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요 종교전통들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⁵⁵⁾

요컨대 영국의 종교교육제도의 변천은, 기독교 중심의 종교훈육에서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종교교육으로의 전환, 기독교단체들의 협의를 통한 교육에서 정부와 교회의 협의를 거쳐 정부, 교육계와 종교학계 등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교육으로의 전환, 기독교적 인재의 양성 교육에서 시민(혹은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전인교육으로의 전환으로 요약된다.

한편, 미국 종교교육 제도의 근간은 1789년의 수정헌법 제1조로서, 국교의 금지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다.

미국의 기독교 중심적 종교교육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걸쳐 확립된 공교육체제에서 배제됨으로써 20세기 중반까지 많은 혼란을 겪어왔다. 제도적으로는 기독교교육 중심의 종교교육이 실시될 수 없었지만 기독교 세력이 강한 주들에서는 그러한 교육이 지속되었고, 법정 시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이다. 1948년에 연방대법원은 공립학교의 정규 교과시간에 교내에서의 종교수업을 위헌으로 판결(일명 ‘맥콜롬 소송’)함으로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종교교육에 대한 제도가 확립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대법원에서는 학교에서의 성서 낭독, 공립학교 재정의 종교계 학교 지원, 교실에 십자가 게시, 학생들의 자발적 기도에 대한 교사의 지도, 졸업식에서 성직자를 초청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 등을 모두 위헌으로 판결함으로써 특정종교 중심이 종교교육(education of religion)을 공립학교에서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1963년에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의 성경낭독과 주기도문 암송을 금지하면서(*Abington vs. Schempp*) 동시에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teaching about religion)은 허용함으로써 공립학교에서 금지되는 종교교육(종교의 교육, education of religion)과 허용되는 종교교육(종교에 대한 교육, education about religion)으로 명확히 구분되기

55) 예컨대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기독교 혹은 타종교 교과 대표, 영국 국교회(성공회) 대표, 교사 대표, 교육당국 등 4개 그룹이 이 상설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시작했다.⁵⁶⁾ 1971년의 대법원 판결(Lemon vs. Kurtzman)은 공립 초·중등학교에서 수정헌법의 정교의 분리(no establishment)를 준수하기 위한 시금석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는데, 레몬테스트(The Lemon Test)가 바로 그것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음에 모두 ‘그렇다’(yes)라고 답해야 합법적이고, 그 중 하나라도 부정적 대답(no)이 나오면 합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⁵⁷⁾

1. 법률이나 정부의 다른 조치가 진정으로 세속적 목적이나 시민을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는가?
2. 법률이나 정부의 다른 조치의 가장 중요한 영향이 종교를 증진하지도 않고 금지하지도 않는가? 다른 말로 하면 중립적인가?
3. 법률이 종교와 정부의 과도한 연루(entanglement)를 피하려 했는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정교의 분리를 강조하면서 공립학교(혹은 교사와 직원)가 종교의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1984년에 연방정부가 발표한 ‘동등접근법’(Equal Access Act, EAA)이 바로 그것이다. 이 법을 통해 공립학교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 자발적인 종교모임이 허용되었고 학교 시설물의 사용도 허가되었다. 그 이후 1995년에 발표되고 1998년에 일부 수정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라는 공동성명이 대통령의 지시와 교육부장관의 주도, 그리고 35개의 교육계, 종교계, 학계 단체들의 합의로 발표되었는데, 학생들의 종교자유 신장과 교직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정교분리에 의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결국 미국의 종교교육제도는 공립과 사립의 엄격한 구분 하에,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문제로 귀착되었고,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의 교육이 아니라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 규정되고,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과 교직원의 중립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룬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 제도 변천에서 중요한 내용

56) Haynes, Charles, and Oliver Thomas. *Finding Common Ground: A Guide to Religious Liberty in Public Schools*(Nashville, TN: The First Amendment Center, 2001), pp. 72ff.

57) Ibid, pp. 40-43 참조.

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영국과 미국의 공립학교 종교교육제도 변천 주요 내용

제도변천 내용	영국	미국
학교제도	공립학교(지역학교 + 기부학교) (개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는 배제)	공립학교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종교교육도 가능)
제도 변화의 법적 근거	교육법 - 교육개혁법	수정헌법 - 대법원판례 - 각주 헌법 및 교육법
교육 내용	비교파적 기독교교육 → 세계종교를 포괄한 전인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	특정 종교의 교리와 사상교육 → 종교에 대한 객관적, 중립적 교육
용어의 변화	종교훈육(religious instruction) →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 →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제도적 강조점	기독교 전통과 다종교상황, 무종교를 모두 고려한 종교교육에 주안점을 둠	학생들의 종교자유 보장과 교직원의 종교적 중립을 강조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 영국의 교육제도 변천과 그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공립학교의 교육에서 종교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고, 공교육체제에서 특정종교(특히 기독교) 중심의 종교교육을 지양하고 있으며, 법적인 규정의 변화를 통해 교육제도의 변화를 도모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4. 종교교육 현실과 특징

영국은 앞서 지적했듯이 지역별로 학교체제도 다르고 교육과정도 일치되어 있지 않다. 잉글랜드는 교과과정을 지역의 교육당국과 상설자문

위원회에 일임하고 있지만,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학년별 교육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의무적으로 개설되는 종교교육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실제의 종교교육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별 편차가 없다. 그래서 일단 스코틀랜드의 비교파적 학교(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 표 9> 영국(스코틀랜드) 종교교육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교육내용	비고
기독교	<u>신념</u> : 지식, 역사, 현실과 문화 등 신념 이해 <u>가치와 문제</u> : 도덕과 윤리의 기독교적 이해 <u>실천과 전통</u> : 축제와 종교의식의 이해	각각의 교육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교육(기독교 중심의 교육에 중점을 둠)
세계종교들	<u>신념</u> : 세계 여러 종교들의 신념 이해 <u>가치와 문제</u> : 각 종교들의 가치와 상호 이해 <u>실천과 전통</u> : 축제와 종교의식의 이해	각각의 교육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교육(기독교와 다른 세계종교를 함께 이해토록 함)
신념과 가치의 전개	자신의 신념의 중요성과 다른 사람들의 신념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맞추어 신념과 가치의 중요성을 이해토록 함	각각의 교육 내용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교육(존중과 나눔과 관용의 정신 함양)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스코틀랜드 정부가 제시한 종교교육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곧 기독교에 관한 교육, 세계 주요 종교들에 대한 교육, 종교적 신념과 가치의 전개에 대한 교육이다. 이러한 세 영역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학년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설정하고 있다. 기독교에 대한 교육에서는 특정 교파나 종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서도 기독교의 중요 신념과 가치, 실재를 균형 있게 세부적으로 교육하고, 세계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도 같은 체계로

교육하되 여러 종교들 다루기 때문에 축약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리고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들의 신념과 가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관용토록 하는 정신의 함양에 주안을 두고 있다. 가톨릭학교에서는 가톨릭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내용과 세계의 다른 종교들(주로 유대교와 이슬람교 등 현실적으로 중요한 종교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체계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신념-가치와 문제-실천과 전통으로 구분되어 있다.

요컨대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영국에서는 기독교의 전통적 중요성과 현실적 영향력을 수용하여 중점적으로 가르치지만, 동시에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도 영국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동일한 체제로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그러한 다종교상황을 고려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 관용의 정신을 함양하는 것도 중요한 교육 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앞서 언급했듯이 종교교육을 위한 독립된 정규 과목이 없고 종교학은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별도의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1988년에 미국의 주요 종교단체들과 교육단체들이 “공립학교 커리큘럼에서 종교: 물음과 답변”(Religion in the Public School Curriculum: Questions and Answers"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음과 같은 주요한 합의를 제시했다.⁵⁸⁾

첫째, 미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종교의 영향을 강력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종교를 포함하는 것은 본질적인 것(선택적이 아니라)이다.

둘째, 종교는 역사적으로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학생들은 오늘날의 삶과 종교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한다.

셋째, 종교는 커리큘럼의 모든 주제들에 실질적인 관련이 있다.

끝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만 아니라 종교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58) Nord, Warren A. & Haynes, Charles C., *Taking Religion Seriously Across the Curriculum*(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8), Ch. 2. 참조. 이 합의에 참여한 단체들로는, the American Jewish Congress, the Islamic Society of North America,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the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the 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 AFT, NEA, ASCD 등이 있다.

미국의 종교교육은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여러 정규 과목에 종교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많은 연구서들이 출판되어 있다.⁵⁹⁾

영국은 이미 교육법을 제정할 당시(1870년)부터 종교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면적인 실시를 도모하여 왔다. 다만 초기에는 교과별 편견을 극복한 기독교 교육에 치중하다가 점차 다종교, 다문화 상황을 고려한 전인적 인격 교육으로서 종교교육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국가적 차원의 법과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특히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 등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다문화주의를 영국 종교교육의 기본정책으로 채택하는데 영향을 주었고, 종교교육에서 체계적이고 교차 문화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토록 했다.

그러나 영국의 기독교적 전통(국교회인 성공회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등)을 인정함으로써 종교교육의 내용이 기독교 중심적이며, 비록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강조하지만 다른 종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기독교적 편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영국의 종교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장점으로는, 종교교육을 전인교육으로 보고 국가의 기본교육과정에 포함시킨 것, 학습과 경험을 동시에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둔 것, 기독교와 그 외의 세계종교를 동일한 체계로 교육하는 것, 종교교육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 지역별 종교상황의 차이를 반영토록 한 것, 상설 자문위원회를 통해 상시적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게 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기독교 이외의 종교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 중심적 교육에 치우친 것, 종교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세계의 주요 종교들에 대한 교육에 치우친 것,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종교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이념으로

59) 앞의 각주 9) 및 [부록 4]의 참고문헌 참조.

채택했고, 그로 인해 기독교 중심적인 종교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점차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혹은 다종파) 상황이 전개되면서 정교의 분리가 중시되고 종교교육도 특정 종교와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위한 오랜 시도가 있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지적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장점을 들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엄격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서는 어떤 식의 종교교육도 가능하지만 국가(정부)의 지원은 전무할 뿐만 아니라 학생수에 있어서 사립은 공립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⁶⁰⁾ 미국 전체에서의 사립학교 종교교육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사립학교(대부분이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비록 특정 종교나 교파 관련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공립보다 높고 학생들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입학하기 때문에 종교 관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적다. 둘째로 미국의 종교교육에서는 학생(학부모)의 종교 자유 보장과 교사 및 교직원의 엄정한 중립 요구를 통해 양자를 구분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셋째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종교교육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왔고, 마침내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기 위한 교사지침과 학부모 지침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이 주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어 주별 차이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해 몇몇 주에서는 종교교육과 관련된 계속적인 법적 시비가 생기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시비는 몇 년에 걸쳐 지속되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한 영국과 같은 종교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종교교육 자체가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이 아닌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단점이다. 양자가 학계에서나 교육계에서 분명히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종교에 대한 교육으로서의 종교교육이 일반 교과과정에 일부 포함되나 독립적인 과목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교육계와 종교학계의 공동

60) 2006년에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3-2004년 기준, 공립학교 학생은 4,900만 명 정도이나 사립은 510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교과서 개발과 교육과정 확정 및 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다.

V. 영국과 미국의 종교교육 제도 개선의 시사점

1. 역사적 변천과정의 의의

미국과 영국에서 기독교는 다수의 종교로 시민들의 세계관을 지배해 왔다. 특히 개신교 전통은 영미의 교육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회적 공통가치로서 시민들에게 교육되고 그 가치를 당연하여 여겨왔지만 20세기 후반부터 인종적인 다양성과 종교의 진정한 자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자 점차 현상학적이고 유형론적인 다문화·다종교 종교교육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제 개신교로 편향된 종교훈육의 방법과 내용을 극복하고 이성적 비판과 합리성의 잣대로 개방과 공존 그리고 대화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서 최근의 역사적 변천과정은 종교교육의 차원에서 매우 고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간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객관성을 종교교육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여전히 많다. 종교전통의 성스러운 권위와 문화의 합리적 전달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는 없을 지를 학자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의 다양한 종교전통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의 전달은 말 그대로 지식의 홍수를 초래하여 종교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별다른 감흥과 관심을 일으키지 못 한 채 무관심의 영역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종교들의 비교연구가 자칫 상대주의에 따른 허무주의의 도달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종교교육은 교리 중심적인 신학적 혹은 교학적 논쟁보다는 삶과 실천을 통한 배움 그리고 시민교육과 인격형성의 가능성에 더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종교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보다는 종교에 대한 실천적 가치 내지 윤리적 지혜를 탐색하는 방향을 더 선호하고 있다.

미국 공립학교의 종교교육은 특정한 종교적 교리와 실천을 강요하거나 기념하지 않는 중립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의례들의 기원과 형식 및 내용을 설명하면서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인지를 교육하는 것과 그 종교의 신자들이 그 절기를 기

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특정 종교 혹은 일반 종교를 조장하거나 폄훼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인 것이다.

이러한 종교교육의 특징은 20세기 후반부터 최근 21세기에 진입한 미국사회가 얼마나 종교적 차원에서 다양화된 종교 다원적 사회가 되었는지를 반증한다. 미국은 태생적으로 이민공동체에 의하여 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유럽 출신의 다양한 기독교 교파들이 안고 있던 종교자유와 특정한 교파 혹은 종교가 사회를 독식하는 국교에 대한 혐오를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에 영국은 개신교로서 성공회와 장로교를 각각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국교로서의 전통을 명목적으로는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종교자유가 인정되며 다른 기독교 교파와 최근 이민자들이 가져온 다양한 세계종교들이 영국사회를 보다 복잡하고 풍성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영미사회의 변화는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그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종교교육도 특정한 종교전통의 내용전달에서 다양한 종교전통들의 객관적 내용전달로 변모하게 되었다. 문제는 종교교육의 내용보다는 그 방법에 달려있다. 영미의 종교학과 교육학계에서는 오랫동안 종교학이 주류 학문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왔던 반면에 한국 사회에서 종교학에 대한 대중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은 정부의 책임뿐만 아니라 학계, 특히 종교학과 종교교육학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처럼 종교학자들의 자문을 구해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제작한다거나 영국의 경우처럼 아예 정부의 차원에서 종교교육을 위한 태도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한국 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세기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만들어나가는 창조적 생산자의 입장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점에서 종교교육 역시 영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한국적 종교교육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

다. 물론 영국과 미국의 종교교육을 비교하고 연구한다는 것이 단순히 나무의 과실에만 주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과실이 있게 된 나무가 처한 환경과 그 토양에서 문화적 정기를 흡수하는 뿌리를 근원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일 수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영미의 종교교육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종교교육은 소수의 깨어있는 학자들 외에는 큰 관심을 기울여 오지 않았다. 이번 공동연구에서 수차례 강조해 왔듯이 특정종교에 대한 신앙교육 내지 종교훈육을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종교교육과 혼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에서 다양한 매체와 미디어를 통한 종교교육의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종교교육에도 접목시키어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증가시키고 있다.

2. 종교교육의 위상

미국과 영국의 사회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종교교육은 건강한 시민교육을 위한 효과적이며 필수적인 교육과정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 종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정의와 환경문제와 같은 범사회적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동시에 일상의 삶을 통하여 참된 인간성의 회복과 중요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종교분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미국에서 종교교육은 과학적 종교학에 기초한 공교육의 차원으로 발전했지만 준국교 국가로서 영국에서는 종교교육이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을 중심으로 점차 증가하는 다른 이웃종교들의 세계관을 추가적으로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은 중앙집권체제에서 1998년 권력이양(devolution)의 과정을 거치면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가 독립적인 교육체계를 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교육의 경우에도 개별적인 교육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잉글랜드는 학교의 다양성과 부모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스코틀랜드와 웨일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교육을 목표로 삼는다. 웨일즈의 경우, 웨일즈어

가 주로 교육현장의 언어로 사용되며 심지어 국립학교의 경우 22%가 웨일즈어를 주된 교육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2001년에 웨일즈의 교과과정위원회는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였고 2008년에 이 지침서를 수정하여 일선 공립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웨일즈에서는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의 학생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문화적인, 정신적인,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종교교육이 마련되어 있다. 3세부터 19세까지 모든 공립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이 주어지며 기독교는 단계별로 심도 있게 가르쳐지며 동시에 영국을 대표하는 다른 주요 종교들도 종교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종교교육은 교과적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특정한 교리나 신념체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의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다.⁶¹⁾ 웨일즈 정부는 21세기의 종교교육을 학생들이 철학적, 신학적, 윤리적, 영적인 질문들을 던지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가운데 다종교와 다문화의 긍정적 차원과 삶과 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각 주정부가 교육을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미국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특정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종교훈육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학생들의 종교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종교교육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미국 북동부의 코네티컷주정부에서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인종, 젠더, 사회경제, 언어, 종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주고 있다. 주정부는 다문화교육을 반인종차별적 교육, 기초교육, 사회정의를 위한 교육, 비판적 교육, 보편적 교육이며 과정으로 간주하고 있다.⁶²⁾

영국의 웨일즈와 미국의 코네티컷 주의 사례들에서 잘 드러나듯이 영국이 명시적인 형태의 종교교육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은 함축적인 형태의 종교교육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수정 헌법 제 1조의 내용을 이루는 국교금지와 종교자유를 지켜나가기 위하여 교사들과

61) Welsh Assembly Government, *National Exemplar Framework for Religious Education for 3 to 19-Years-Old in Wales*, Cardiff: WAG, 2008.

62) 코네티컷주정부(The State of Connecticut)의 교육부는 명시적인 종교교육보다는 다문화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부모들을 위한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서를 구별해서 마련하였다. 미국에서도 종교교육은 전인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의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의 방식은 영국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에서는 대법원판결에 기초하여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을 합법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의 경우에도 종교적 목적이 아닌 문학적 혹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교육될 수 있다.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종교교육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나아가 주관적이며 포교하려는 의도로 제공되는 종교훈육이 아니라면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종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종교는 사회과학(social sciences)에서 다루어지는 핵심 주제가 되었다. 미국의 역사는 유럽기독교가 이주하는 역사이며 대대적인 동에서 서로의 확산을 거쳐 21세기에 들어 다양한 종교들과의 공존과 대화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교육은 공립학교에서 꼭 다루어야 할 주제인 것이다.

반면에 영국의 웨일즈정부는 학생들의 인성과 잠재력을 기르는 최선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서 종교교육의 가치를 평가한다. 영국은 독특한 성적인 성향과 장애를 지닌 학생들에게도 종교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종교교육에서 학생들은 삶과 세계 그리고 종교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배운다.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나름대로의 대응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문제해결에 도달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종교교육은 효과적으로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들을 포함하며 종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진다. 종교의 상징적 언어들과 다채로운 해석의 방법들을 습득한다. 학생들은 종교교육에서 파워포인트, 통계자료, 시각자료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며 종교와 세계와 관련된 자료들을 산술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말 그대로 영국의 종교교육은 전인교육을 위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웨일즈정부의 종교교육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7세부터 14세에 이르는 학생들을 위한 종교교육으로 웨일즈

지역의 언어, 문화, 경제, 환경, 역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웨일즈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진행된다. 기독교 유산을 중심으로 다른 종교들에 대한 가치와 영향이 교육되어 진다. 두 번째 단계는 14세부터 19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웨일즈와 세계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웨일즈, 유럽, 세계의 상호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종교적인 요소와 비종교적인 요소의 상호 만남과 충돌을 설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적 결정과정, 착취와 정의, 사회적 자유와 책임, 세계화 시대의 공존을 위한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 세계종교들을 통하여 영적, 도덕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들을 배운다. 나아가 종교에 따라 어떤 직업이 선택되어지는지 혹은 종교적 세계관이 직업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고 직장에서 예견되는 종교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들을 습득한다.

3. 종교교육의 제도와 내용

영국 종교교육의 내용은 교사들의 태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교육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웨일즈정부의 경우에 영국 종교교육의 내용이 영적, 도덕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 차원에서 세계, 인간경험, 의미탐구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담고 있다.

<표 10> 웨일즈 종교교육의 내용

차원/ 구분	세계 the world	인간경험 human experience	의미탐구 search for meaning
영적 차원	신체적/정신적 삶의 영역을 벗어나 의미를 탐구한다. 신/궁극 실재와 진리에 대한 대응 방식들을 이해한다.	인간됨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유된 가치/정체성, 개인적 가치, 창조성, 상상력, 사랑, 신앙, 선을 탐색한다.	‘내적 삶’의 성장시켜 지적 호기심, 개방성, 감성, 사색, 직관, 신념, 신과의 관계 등을 탐색한다.
도덕적 차원	공유된 가치와 태도를 탐색함으로	선과 악을 선택하는 인간의 능력을	도덕적 문제에 대한 개인적 대응방

	써 종교적/도덕적 기원과 동시대의 정치적/사회적 활 동을 이해한다.	탐색하고 도덕적 규칙들, 관계, 책임 감, 다양성의 존중, 유혹, 자기희생, 사 랑을 탐구한다.	식을 탐구하는데, 개인의 정체성, 양심, 사회규범, 종교를 판단하는 기준을 파악한다.
문화적 차원	문화/종교가 지역 역사와 세계 역사 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며 종교의 명암과 의 견의 차이를 이해 한다.	인간의 문화적 정 체성, 소속감, 의도 의 필요성을 탐색 하고 웨일즈에서 종교와 문화의 복 합성을 이해한다.	학생들이 웨일즈, 유럽, 세계의 다 문화/다종교에 대 한 나름대로의 입 장을 구축한다.
정신적 차원	연구를 하고 증거 를 평가하고 비판 적 사고를 하며 이론을 정당화하 고 대안을 제시하 는 지적 도전을 한다.	선택하고 편견을 극복하며 가치평가 를 한다. 나아가 복잡하고 충돌되는 정보를 통합한다.	사고, 사색, 직관 적 생각, 상징적 이해, 해석하는 능력의 명확성을 기른다.
신체적 차원	타인의 필요에 응 하는 자세와 책임 있는 사회활동과 삶의 방식을 배운 다.	창조적이며 공감적 으로 행동하며 다 른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종교적 의례, 춤, 기도)을 이해 한다.	건강과 평화를 습 득하고 사고과정 을 명확히 하고 참선과 요가를 행 한다.

웨일즈정부의 종교교육은 그 태도와 내용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암묵적인 제시를 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정부의 차원에서 분명한 교육지침을 제시하기보다는 주요 종교단체들과 종교학계 및 교육학계에서 교사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먼저 그 방식은 학문적(academic)이어야지 헌신적(devotional)이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들을 인식(awareness)하도록 노력해야지 학생이 종교를 수용(acceptance)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셋째 학교는 종교에 대한 연구(study)를 지원해야지 종교에 대한 실천(practice)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넷째 학교는 종교의 다양성에 학생들이 노출되도록(expose) 할 수는 있지만 특정한 종교적 시각을 강요할(impose) 수는 없다. 다섯째 학교는 모든 종교들에 대하여 교육하는(educate) 것이지 특정한 종교를 선전하거나(promote) 폄하해서는(denigrate) 안 된다. 다섯째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종교적 전통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inform)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신앙을 확신시켜서는(confirm) 안 된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토론은 교사의 입장이 지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토론에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학생의 종교적 견해도 표출될 수 있다. 문제는 헌법 수정안 제 1조에 따라 교사는 어느 경우에서든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교육될 수 있는 종교의 내용과 그 정도는 교사지침서에 제시되고 있다. 학생의 학년과 교과과정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첫째 초등학교(elementary level)에서는 가족, 공동체, 문화, 국가와 다른 주제들이 종교교육과 관련될 수 있다. 세계종교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념과 실천이 소개될 수 있고, 종교적 신앙들의 일반적인 성격들이 교육될 수 있다. 종교의 핵심 교리, 의례, 주요 인물과 이야기들이 사용될 수는 있지만 이 모든 선택된 자료들은 종교에 대한(about)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

둘째 중등학교(secondary level)에서는 사회과학, 문학, 예술이 교육될 때에 종교교육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습되는 내용에 따라 어떤 종교들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역사 교과과정에 따르면 특정한 종교(기독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하여 더 많이 다루어질 것인데, 이는 미국역사에 준 영향이 많아서이지 결코 그 종교를 포교하거나 옹호하려는 목적을 지녀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세계 역사를 공부할 때에는 지역문명을 형성한 핵심적인 종교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들을 공부한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유도하기 위하여 종교들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조화롭게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종교에 대한 교육을 지향하지만 종교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를 동반한다. 왜냐하면 종교전통들은 역사의 형성과 발전의 과

정에서 명암이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에 분석과 토론 및 해석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의 사용이 허락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자료에 토대를 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해석들이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과서와 제한된 수업시간에 종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교과서 외에 학문적 자료들을 참고하여 학생들에게 교과서에 담을 수 없었던 풍성한 자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학교에서는 세계의 주요 종교 전통들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종교학(religious studies)과 관련된 선택과목들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효과적인 종교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의 종교전문가를 초대한다면 학문적 객관성과 깊이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지역 종교공동체의 지도자를 초대하는 경우에도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키는 범위에서 객관적인 내용을 전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서 종교교육은 이미 교과적 종교훈육의 단계를 뛰어넘어 다문화 종교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정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연방정부의 수정헌법이 제시하는 종교자유와 국교금지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객관적이며 광범위한 종교교육을 권장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의 주된 흐름이다.

4. 문제점과 대안

21세기 다른 교육의 현장만큼이나 종교교육의 현장도 급속한 세계화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들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환경과 사회정의와 같은 사회문제를 포함하여 철학, 실존, 인격, 교육 전반에 관련된 분야들과 종교의 관계성을 고려한다면 그 복잡성과 모호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종교교육이 요청된다.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서 결정론과 운명론을 형성하는 종교교육과는 거리를 두면서 인간이 삶 가운데 경험하는 다양한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먼저 검

토하고 한국의 학교교육에서 종교교육을 위하여 고려할 만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 주목해야 할 문제점은 바로 영미와 한국 사이에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미국은 유럽 대륙의 이민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세운 국가이므로 수정헌법 제1조에서 정교분리와 국교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을 기독교세계관이 지배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한국과 같은 불교와 기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사회의 분위기가 정착되었다기보다는 기독교의 교과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물론 2001년 9·11사태 이후로 이슬람을 비롯한 이웃종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의 기독교가 진보적이며 자유주의적 경향으로 발전해 왔다고 한다면 한국의 기독교는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문자주의를 토대로 한 기독교가 주로 발달하였다. 따라서 종교의 갈등도 주류 기독교(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엔 침례교, 영국의 경우엔 성공회)와 다른 교파의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주요 쟁점이 되어왔던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는 기독교와 불교의 갈등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도 이슬람 공동체의 최근 성장세로 인하여 기독교와 타종교의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독보적인 개신교의 일방적인 성장이 수그러들고 그 쇠퇴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가톨릭과 불교의 교세가 선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신교와 이웃종교들 사이에 갈등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종교교육이 핵심적인 교과과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정부와 학계의 꾸준한 지원을 받아 온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교교육이 여전히 정부와 학계의 무관심 속에 교과과정의 주변에 남아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한국 정부의 지원과 참여가 지나치게 미미했던 것이 최근 종교의 갈등과 불통을 부추기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정종교에서 주도하는 고백론적인 ‘종교의 교육’ 혹은 ‘종교훈육’이 강조되어 오는 교육과정에 오랫동안 머물러 왔다는 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 혹은 ‘다문화 종교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모델이 필요하긴 하지만 정부의 전폭적

인 지원이 없이 그 실효성을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체인구의 53%가 종교인구라는 점에서 그에 맞는 종교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개발이 정부의 차원에서 필요한 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방치해 왔던 것이다. 경제선진국이 꼭 문화선진국일 수는 없겠지만 종교교육의 차원에서는 적어도 한국정부가 별다른 법제적, 교육적, 문화적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종교교육이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낙후되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 이 점에서 오랫동안 거듭된 실패와 수정의 절차를 경험해 온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 모델이 단시일 내에 한국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정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2008년부터 한국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공직자종교차별예방> 교육과 이에 따른 관련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정부의 종교교육에 대한 각성과 태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시발점이라 할 것이다.

셋째 21세기에 제시되고 있는 세속화와 재성화의 문제이다. 영국의 경우에는 기독교 문화가 사회전반에 깔려있지만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참여와 열정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신자가 줄고 청장년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이질적인 문화의 배경을 지닌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새로운 신종교운동(new religious movement)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의 가치를 특정한 종교전통(주로 기독교)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종교와 나아가 세속적인 가치와 함께 나누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기독교가 사회의 주변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주류사회의 핵심이념으로 성장해 왔고 신자들이 보여주는 열정과 공동체 참여의 강도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신종교의 성장과 사회적 영향력도 미국과 영국의 종교상황과 비교해 볼 때 미미하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갈등과 충돌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조화와 통합을 지향하는 동양적 사고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사회가 서구화되면서 영미에서 겪었던 종교적 갈등이 그대로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들 간의 충돌은 과학기술문명의 발달과 함께 강화되어 온 세속화에 따른 좁아진

종교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종교 간 경쟁일 수 있다.

한국과 영미가 경험해 온 상황적 차이점(contextual difference)을 부각시킬 때 위의 문제점은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이겠지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로 세계화가 가속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영미의 종교교육에 대한 개선사례는 한국의 종교교육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종교학계와 한국 종교교육학계의 학자들은 꾸준히 기존 종교교육의 방향과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해 왔다.⁶³⁾

지금까지 살펴 본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의 사례를 참고로 우리는 한국에서 소극적인 ‘종교의 교육’(education of religion) 모델에서 적극적인 ‘종교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religion) 모델로의 성숙한 방향전환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다. 교육제도는 단순히 벤치마케팅이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가지 교육제도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인교육을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적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한 여과된 대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종교 관련 공통교과서(common textbook)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 교과서의 사용여부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당국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어야겠지만 적어도 정부와 학계가 세계종교 혹은 일반종교에 대한 지침서의 차원에서 공통집필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기독교(개신교와 가톨릭)와 불교 등 한국사회의 주요 종교별로 개별 종교교과서를 출판하여 교육현장에서 사용해 왔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면 이웃종교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감적인 내용(contents)의 부실과 왜곡된 이미지의 생산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종교학계와 종교교육학계의 전문가 조언을 얻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종교 공통교과서 내지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서가 제작되어 일선 교사들에게 보급된다면 지금까지 종교별 종교교과서들의 편견을 수정하고 보다 객관적이며 공감적인 종교일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종교에 대한 교육의 기준

63) 강돈구 외, 『종교교육 비교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와 『종교교육학연구』의 다수 논문들이 있다.

(criterion)과 원천(resource)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개별종교에서 마련한 종교 교과서는 해당 개별종교에 대하여 4분의 3을 그리고 일반종교에 대하여 4분의 1정도를 할당하여 기술해 왔지만 그 깊이와 균형 면에서 개선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정작 정부가 종교 관련 교과서를 제작한 후에 그 교과서를 학교에 강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따라서 교과서를 제작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는 종교 교과서를 일반 종교과 특정 종교로 이원화하거나 혹은 종교일반과 세계종교에 대한 부분을 종교학자와 교육학자가 분리하여 집필한다든가 혹은 개별종교교과서를 따로 만드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무종교인(no religion)의 세계관에 대한 교육도 종교 교과서에 새롭게 편성되어 종교교육의 장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종교인들만큼이나 무종교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국가들 가운데 하나이면서도 동시에 동서양 종교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나아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한 이해는 미래의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종교학적 혹은 종교교육학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종교’라는 용어와 범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켄트 웰 스미스는 ‘신앙’(faith)을, 니니안 스마트가 ‘세계관’(worldview)을, 조나단 스미스는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최근 국영수를 위주로 하며 입시중심의 교육에서 교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종교적 사고방식이 제도종교를 넘어 무종교 내지 다양한 신종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종교와 사회일반의 관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셋째, 종교 간 대화와 소통의 방법과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종교인과 비종교인 사이의 관계개선과 대화문화의 정착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오히려 기독교사회에서 세속화를 경험하면서도 무신론(혹은 무종교) 논쟁이 활발한 영미의 분위기와는 달리 47%의 무종교인에 대한 무관심이 학계나 교육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종교와 정치와 관련된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보다 상호 존중과 이해를 태도를 가지고 교육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특정 종교

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회통합과 대화를 위한 노력 내지 객관적인 이해를 위한 상호 존중과 비교의 흐름들은 건강한 시민의 소양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넷째, 초·중등학교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교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 강사의 양성과 파견을 제안한다. 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종교와 세계종교를 균형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강사를 교육하여 정기적으로 일선학교에 파견한다면 특정 종교로 편중된 교육내용을 채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주도하여 종교교육과 관련된 미디어 매체와 교육콘텐츠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⁶⁴⁾ 그리고 기존에 종교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을 하거나 혹은 종교교사를 중앙부처에서 파견하는 시범학교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다.

다섯째, 다종교 교육을 위한 특별 주간이나 구체적인 지역행사와 연계된 종교교육이 일선학교에서 진행된다면 지역 공동체의 종교 간 이해와 화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⁶⁵⁾ 단순히 지침서와 교재를 통한 종교교육을 넘어서 구체적인 경험과 만남을 통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에게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 정부의 경우도 특정종교의 행사나 연구에 대한 지원은 피하지만 종교간 혹은 다종교 연구와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고 있다. 입시중심의 왜곡된 교육에서 전인교육을 향한 종합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종합적 교육에서 종교는 단순히 교리적 차원만이 주입되어 공동체 안에서 성원들 간에 그 신앙적 차이만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일종의 문화유산으로 인식되고 사회적 통합과 화해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섯째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효과적인 종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문제이다. 철학과 윤리의 차원을 포함하면서도 종교일반과 세계종교전통들에 대하여 객관적이며 광범위한 지식을 가지고 공감적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교사가 일선 교육현장에 파견되어야 한다. 그 종교교사는 종교교육을 위한 특강

64) 안 신, “영화의 상상력과 다문화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010.

65) 안 신,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2009.

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공인한 종교교사로서 공교육의 현장에서 그 기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특정교단에 소속된 성직자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과학적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연장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종교학과 종교일반 및 세계종교에 대한 균형 잡힌 지식과 편견 없는 태도가 재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종교교육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형태로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예배에 대한 참석과 공동체의 윤리를 어느 정도 체득하는 것이 종교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문제는 학생들이 특정종교에 편행되거나 특정종교를 배제하는 태도를 극복하면서도 그러한 실천적 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인근 성당, 교회, 사찰 등 종교공동체의 지도자들이 해당종교를 설명하며 학생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과 연대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세대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종교교육은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정교분리의 헌법과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온 초기 백인정착민들의 기억이 아직도 사회저변의 의식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공교육의 차원에서 특정 종교교육을 지양하며 종교학의 기초를 둔 접근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영국은 성공회(잉글랜드의 경우)와 장로교(스코틀랜드의 경우)를 국교로 정하고 있는 준국교의 국가적 전통을 유지하면서 이주민공동체에 의한 종교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1세기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을 교육한다는 차원에서도 종교교육이 필요하다.

아홉째, 끝으로 영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종교교육과 종교학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 교안개발이 한국 교육 현장에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종교교재 개발의 영역은 마치 황무지와 같다. 소수 학자들의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 교육제도가 입시위주로 편재되어 있고 학부모와 학생의 의식도 국·영·수 위주의 교육만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현장 자체에서의 내적 개혁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종교학과 종교교육 분야의 학제 간 전통

서적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고 교육과정을 통시적이며 공시적으로 살펴서 마련된 세계종교의 지식과 실천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안들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을 무시하는 차원에서 고려하기보다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교육자의 과감한 수용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공립학교를 우선으로 종교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종교 일반에 대한 지식과 특정 종교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전달되지 않도록 교육 태도와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영미의 경우에도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은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지만 공립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다 공감적이며 객관적인 다문화 종교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고려한 쇄신안을 개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정 종교단체들의 종교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어도 공교육의 차원에서는 시민교육을 위하여 긍정적인 기여보다는 부정적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판단 아래 영국과 미국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특정 종교에 치우친 종교의 교육을 포기하고 종교에 대한 교육, 나아가 다문화 종교교육에서 그 탈출구를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재정적 지원과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21세기 한국 사회가 종교교육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고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한국 사회문화에서 최근 일어나는 갈등과 불통으로 인한 사회분열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V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과 영국의 종교교육에 대한 다채로운 개선 사례들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그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상호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종교교육에 적용할 만한 몇 가지 대안들을 살펴 보았다. 세계의 최근 종교교육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학제 간 연구를 기초로 종교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종교교육도 단순히 종교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다변하는 세계에서 학생이 창조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과 세계에서 조우하게 되는 다채로운 의미를 탐색하는 의미의 시민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의 종교교육은 교육자의 교수방식뿐만 아니라 교육내용과 수준을 정부와 학계가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미의 종교교육을 대표하는 모델이다. 기초단계(foundation phase)에서는 학생 자신과 가족, 이웃, 세계의 신비에 대한 질문과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제제기 위주의 종교교육이 제공되며, 제 2단계(key stage two)에서는 학생들이 세계와 인간경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자극하는 단계이다. 제 3단계(key stage three)에서는 학생 스스로 삶, 세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고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영국을 넘어 유럽과 세계의 종교적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단계(key stage four) 혹은 16세가 된 이후부터는 자신과 타인의 사고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가치관에 스스로 도전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한다. 종교와 비(非)종교의 담론에 대하여 창조적 참여와 토론을 통하여 문화적 감각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단계별 종교교육의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들이 여덟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⁶⁶⁾ 정부가 마련한 지침서에는 학생이 종교교육의 목적을 성취했을 때 예상되는 능력의 수준을 설명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에게 기대되는 효과와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매우 명시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다.

66) [부록 2]에 참조할 수 있도록 웨일즈 종교교육의 학생수준 평가 기준을 번역해 두었다.

반면에 미국에서의 종교교육은 공립학교와 그 교사들이 가능한 종교교육에 있어서 특정한 종교적 입장을 떠나 가능한 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종교에 관한 교육에서 필요한 교수자의 태도와 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제시하는 정도로 깊이 간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정부를 대신하여 종교학계와 종교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서에 따르면 특정 종교를 훈육하는 교사양육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3R 프로젝트(여기서 3R은 권리rights, 책임responsibilities, 존중respects을 의미한다)에서는 종교에 관한 교육을 위한 교육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며 동료 교사들에 의하여 헌법과 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근 대학교의 종교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양질의 종교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유타 3R 프로젝트에서도 제공되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하버드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서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를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공공사회에서 종교자유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학문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종교교육은 영국과는 달리 교사에게 지침서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종교자유와 국교금지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암묵적 의미의 종교교육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도 소수의 종교학과들이 서울대학교, 한신대학교, 서강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등에 개설되어 있지만 미국과 영국의 사례처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보다 혁신적인 차원에서 공공부분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과 종교의 자유를 교수한다는 안목을 가지고 미래의 종교교사들을 교육하는 수준으로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기존의 종교교사를 재교육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갈등과 대립을 극복한다는 차원에서 서로의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의 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여 상호 준중의 풍토를 이어가는 이해와 대화의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종교교육을 위한 매뉴얼과 종교교사를 양육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최근 한국의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들은 일부 교과목에 대한 지나친 편중과 입시위주의 기형적 교육방식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선 교사들에게까지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의 책임 있는 종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육성은 지금까지 소외되어 온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전인교육 나아가 21세기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류유산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지식을 갖춘 시민을 교육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번에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영국과 미국의 종교교육에 관한 귀중한 자료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다른 후속 연구들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번역하여 부록으로 싣게 되었다.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영국의 경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에 대한 비교연구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우에도 북부, 동부, 서부, 중부, 남부의 여러 주들을 선택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수차례 컨설팅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장조사와 질문지연구 및 면접조사가 가능했더라면 보다 영미 종교교육현장에서 발견되는 명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어떻게 제도적인 노력들이 수정의 과정을 거치고 하위정부(영국의 네 정부와 미국의 50개 주정부들)의 상황에 적용되었는지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종교교육도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종교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종교학자와 교육학자의 조언과 연구를 과감히 수용하여 교육과 문화 일반의 진화를 거듭해 온 영미종교교육의 사례는 한국의 척박한 종교교육의 현실에 좋은 귀감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교는 한국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가 미래의 시민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공감적이며 객관적으로 이해되지 못한다면 사회 성원들 간의 반목과 질서를 증가시키고 소통과 화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영국과 미국의 사례에서도 종교자유를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건국이념을 유지하면서도 최근의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심각하게 고려한 종교교육의 혁신안들이 제시되어 왔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과 불통이 심화되는 현상은 국가의 경쟁력과 사회통합에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

따라서 종교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학계의 조언과 일선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안이 마련되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서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의 명시적인 종교교육에서 발견되듯이 적극적인 교육 방식, 교육 내용, 교육 결과를 정부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목표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지나친 수준인 듯하다. 오히려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에 거쳐야 할 하나의 과도기 모델로서 미국의 종교교육처럼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거나 대학교에서 초·중·등학교의 종교교육을 전담하면서도 기존의 종교교사를 재교육할 수 있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고등학교 일반교양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1997년 교육부 위탁 연구과제 답신 보고서: 제7차 고등학교 일반교양 교육과정 개정시안의 연구개발』, 1997.
- 고진호, 「제7차 교육과정과 중등 불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13권, 종교교육학회, 2001.
- 김귀성, 「한국 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현황과 과제」, 『종교교육학연구』 제3권, 종교교육학회, 1997.
- _____,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과서 개발」, 『종교연구』 28집, 한국종교학회, 2002.
- _____, 「학교교육과정에서 종교교육의 개념모형 탐색」, 『대순사상논총』 18집, 대순사상학술원, 2004.
- _____,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이해』 문음사, 2010.
- 김종서, 「종교교육 실태분석-종교교육의 이론적 체계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제6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 _____, 「학교 도덕교육에 영향을 주는 종교적 변수」, 『교육개발』 14권 6호, 한국교육개발원, 1992.
- _____, 「한국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종교학연구』 20권, 서울대학교종교학연구회, 2001.
- 김철주·고병철, 「종교교사 양성 및 연구프로그램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1-2, 한국교원교육학회, 2004.
- 김청봉, 「종교교육학의 정체성 수립을 위한 시도」,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4집, 한국기독교학회, 2004.
- 김형중, 「한국의 초·중등학교와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7.
- 남궁 달화, 「기본적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발-월슨의 도덕성 요소를 중심으로-」, 『도덕교육학연구』 4집, 2003.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부 편, 『종교』,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류성민, 「한국 중고등학교 기독교 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문화신학회 편, 『한국에 기독교문화는 있는가』, 한들출판사, 2005.
- , 『중·고등학교 종교교육의 현실과 개선방향-도덕교육에의 기여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연구소, 1994.
- , 「한·미·일 삼국의 종교정책과 종교교육 비교」, 강돈구 외, 『종교교육 비교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와 종교연구소, 2009.
- 박범석,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본 종교적 경험의 통합적 성격」, 『종교연구』 37집, 한국종교학회, 2004.
- , 「교육의 종교성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 「교육종교학 성립의 필요성과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15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 박지봉, 「미국 헌법상의 정교분리원칙」, 『미국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2007. 9.
- 서경전, 「종교와 원불교 강의를 통한 도덕성 회복」, 『원불교사상』 25집,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01.
- 서희정, 「종교교육의 의의와 방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성기선, 「제7차 교육과정과 가톨릭학교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성낙인, 「종교의 자유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판례실무연구(Ⅱ)』, 비교법실무연구회 편, 1998.
- 손원영, 「제7차 교육과정과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 「영국에서의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제14집, 2006. 8.
- 손희권, 「국가의 종교학교 지원에 관한 미대법원 판례분석」, 『교육문제연구』 13집, 고려대교육문제연구소, 2000.
- , 「한국 학교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 『교육법학연구』 10집, 한국교육법학회, 1998.
- 실리(J. Sealey), *Religious Education: Philosophical Perspectives*, 강돈

- 구박진원 역, 『종교교육이론』, 서광사, 1992.
- 안병초, 『한국의 가톨릭 학교교육』, 가톨릭문화원, 1999.
- 안 신, 「잉글랜드와 웨일즈 종교교육의 최근 변화와 한계」, 『종교연구』 제 47집, 2007. 6.
- _____, 「다문화 종교교육을 위한 심리학적 모델」, 『종교교육학연구』, 26집, 2007. 6.
- _____, 「세계종교 교수법을 통한 다문화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30집, 2009. 6.
- _____, 「영국에서의 신종교 연구의 최근 경향」, 『신종교연구』, 제21집, 2009. 10.
- _____, 「영국의 이주 무슬림 공동체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제19집, 2009. 6.
- 양은용,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3권, 종교교육학회, 2001.
- 염연철, 「미국공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및 활동에 대한 교육법적 검토」, 『교육행정학연구』 20-2, 한국교육행정학회, 2002.
- _____, 「미국의 종교관련 교육법제의 사회통합기능 연구」, 『교육문제연구』 제11집, 1999.
- 오인택, 「독일의 종교교육과정이론의 최근 동향」, 『교육철학』 8권, 교육철학회, 1990.
- 유방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04.
- 유봉호·김용자, 『한국 근/현대 중등교육 100년사』, 교학연구사, 1998.
- 윤이흠, 「종교 다원문화속에서의 종교교육」, 『종교연구』 2집, 한국종교학회, 1986.
- 이경숙, 「종교의 자유에 관한 연구-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 이세현, 「한국인의 정체성과 유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6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 이은봉, 「학교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 『학문과 종교』, 도서출판 주류, 1987.

- 이진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개신교의 이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이창조, 김남식, 「종교」, 『제6차 교육 과정 해설』, 교육부, 1992.
- 장종철, 「종교다원주의 상황에 있어서 종교교육의 목적 개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세계』 29권, 감리교신학대학교, 1994.
- 정영희, 『개화기 종교계의 교육운동 연구』, 해안 1999.
- 정진홍, 「공교육과 종교교육: 초,중,고교 도덕교육과정 개발과의 관련에서」, 『종교연구』 2집, 한국종교학회, 1986.
- _____, 「제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 2001.
- _____, 「종교교육의 실태-각급학교 종교교육 실태분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철학 종교사상의 제문제』 6권, 1990.
- _____, 「한국에서의 종교교육의 문제점」, 『학술원 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41집, 대한민국 학술원, 2002.
- _____, 「한국의 종교생활과 교육」, 『교육월보』, 교육부, 1993.
- 정현숙, 「종교교육의 연구영역」,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편, 『논문집』 8권, 경희대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1992.
- _____, 「청소년 선도와 종교교육」,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편, 『논문집』 11권 1호, 경희대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1995.
- 조난심, 「인성교육과 도덕과 교육」, 『도덕교육학신론』, 문음사, 2005.
- 최성환, 「삶의 형식으로서의 학문-교양교육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15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3.
- 코우(George Albert Coe), *A Social Theory of Religious Education*, 김도일 역, 『종교교육사회론』, 그루터기하우스, 2006.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한국 교단의 기독교교육사』, 한국장로교출판사, 1999.
- 한명희, 유상덕, 이은선, 외., 『종교성, 미래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학지사, 2007.
- 해리스(A. Harris), *Teaching Morality and Religion*, 정현숙 역, 『도덕교육과 종교교육』, 집문당, 1993.
- 홍성방, 「양심의 자유」, 『고시연구』, 2000년 1월호.

- Bastide, Derek, *Teaching Religious Education 4-11*, 2nd. ed.,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7.
- Barnes, L. Philip, "Comparative Analysis and Research in Religious Education: A Response to Professors English", *Religious Education* vol. 100, no. 2, 2005.
- Baumfield, V., *Thinking through Religious Education*, Cambridge: Chris Kington, 2002.
- Bayefsky, Anne F. & Waldman, Arie, *State Support for Religious Education*, Brill Academic Public, 2006.
- Brian, Gates, *Freedom and Authority in religions and Religious Education*, London: Cassell, 1996.
- Broadbent, L. & Brown, A., *Issues in Religious Education*, London: Routledge, 2002.
- Bruce, Steve, *Religion in Modern Brita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Burgess, Harold William, *An Invitation to Religious*, Religious Education Press, 1976.
- Copley, T. *Teaching Religion: Fifty Years of Religious Education in England and Wales*, Exeter: Exeter University Press, 1997.
- Copley, T. & Walshe, K., *The Figure of Jesus in Religious Education*, Exeter: Exeter University Press, 2002.
- Cristopher, Winch & Hohn, Gingell, *Key Concepts in The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outledge, 1999.
- Darcy-Berube, Francoise, *Religious Education at A Crossroads: Moving on in The Freedom of the Spirit*, New York: Paulist Press, 1995.
- Douglass, Susan L., *Teaching About Religion: In National and State Social Studies Standards*, Council on Islamic Education & First Amendment Center, 2000.
- Edwin, Cox and JosePhine, M. Cairns, *Reforming Religious Education*, London: Kogan Page, 1989.

- Engebretson, K., Souza, M., Durka, G. & Gearon, L. eds. *International Handbook for Inter-religious Education*, London: Springer, 2010.
- Elizabeth, Ashton, *Religious education in the early years*, London: Routledge, 2000.
- Elton, G. R., *Renaissance and Reformation: 1300–1648*, New York: Macmillan, 1976.
- Ernest, John Chave, *A Functional Approach to Religious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7.
- Erricker, Clive & Erricker, Jane, *Reconstructing Religious, Spiritual and Moral Education*, London: Routledge, 2000.
- Erricker, Clive, *Religious Education: A Conceptual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for Second Level*, Oxford: Routledge, 2010.
- Erricker, C., Lowndes, J. & Bellchambers, E., *Primary Religious Education: A New Approach*, Oxford: Routledge, 2011.
- Ezeh, Christopher, *The Disaster of the Absence of Moral and Religious Education in the American Public Schools: Controversies and Possible Solutions*, Nihil Obstat, 2010.
- Finkelman, Paul, ed., *Religion and American Law*,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2000.
- First Amendment Center, *Living with Our Deepest Difference: Religious Liberty in a Pluralistic Society, Teacher's Resource Lesson Plans*, First Amendment Center, 2009.
- First Amendment Center, *Teaching about Religion in Public Schools: Where do we go from Here?*, First Amendment Center, 2003.
- Gardener, Peter, "Religious Upbringing and Liberal Ideal of Religious Autonom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22, no. 1, 1988.
- Gerald, Grace, *Catholic Schools: Mission, Markets, and Morality*, London: Routledge Falmer, 2002.

- Greeley, A., "A Note on the Origin of Religious Differences," *JSSR* 3, 1963.
- Hatfield, John T., *An Educator's Classroom Guide to America's Religious Belief and Practice*, Westport, Connecticut & London: Libraries, 2007.
- Haynes, Charles C. & Oliver, Thomas, eds., *Finding Common Ground: A Guide to Religious Liberty in Public Schools*, Nashville, TN: First Amendment Center, 2001.
- Haynes, Charles C., *Teaching about Religion in American Life: A First Amendment Guide*, Nashville, TN: First Amendment Center, 1998.
- Helmreich, Ernst *Religious Education in German Schools: An Historical Approach*,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 Ian, MacMullen, "Education for Autonomy: The Role of Religious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38, 2004.
- Jackson, Robert & Starkings, Dennis, *The Junior Religious Education Handbook*, Cheltenham: Stanely Thornes Ltd, 1990.
- Jackson, Robert, *Religious Education: An Interpretive Approach*,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97.
- Jackson, Robert, *Rethinking Religious Education and Plurality*, London: Routledge, 2004.
- Jackson, Robert, Miedema, S., Weisse, W., & Willaime, J. eds. *Religious Diversity and Education in Europe*, Muster: Verlang, 2007.
- James M., Gustafson, *A Retrospective Interpretation of American Religious Ethics, 1948-1998*, JRE, 1998.
- John, P. Reeder Jr., What is a religious ethic?, JRE, vol. 25, 1998.
- John, Wilson, *Education in Religion and the Emotions*, London: Heinemann, 1971.

- Knauth, Thorsten, Jozsa, D.-P., Bertram-Troost, G., & Ipgrave, J., eds. *Encountering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Muster: Waxmann, 2008.
- Koller, Nathan R., *Depending Religious Diversity in Public Schools: A Practical Guide for Building Our Democracy and Deepening Our Education*, Santa Barbara, California: ABC-CLIO, LLC, 2009.
- Lester, Emile, *Teaching about Religions: A Democratic Approach for Public Schools*, The University of Michigan, 2011.
- Lester, Emile & Roberts, Patrick S., *Learning About World Religions in Public Schools: The Impact on Student Attitudes and Community Acceptance in Modesto, Calif.*, Nashville, TN: First Amendment Center, 2006.
- Melton, J. Cordon ed., *Encyclopedia of American Religions*, 4th Ed., Detroit: Gale Research INC, 1993.
- Moore, Allen J., *Religious Education As Social Transformation*, Religious Education Press, 1989.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NCES), *2007-08 Private School Universe Survey(PSS) Data File User's Manual and Survey Documentation*,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NCES), *Characteristics of Public, Private, and Bureau of India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2007-08 Schools and Staffing Survey*,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09.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NCES),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11*, U. S.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 Nord, Warren A. & Haynes, Charles C., *Taking Religion Seriously Across the Curriculum*,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1998.
- Osmer, Richard Rober & Schweitzer, Friedrich, *Religious Education*

- Betwee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Cambrid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3.
- Ratcliff, Donald & Neff, Blake J., *The Complete Guide to Religious Education Volunteers*,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3.
- Scottish Government, *A Curriculum for Excellence: Profess and Proposals*, Edinburgh: Scottish Executive, 2006.
- Smart, Ninian & Horder, Donald, eds. *New Movements in Religious Education*, London: Temple Smith, 1975.
- Souza, de Marian, Durka, G., Engebretson, K., Jackson, R., & Mcgrady, A., eds. *International Handbook for the Religious, Moral, and Spiritual Dimensions in Education*, Dordrecht: Springer, 2007.
- Stark, R., "Religion as Context: Hellfire and Delinquency one More Time" *Sociology of Religion*, vol. 57, 1996.
- Stern, Julian, *Teaching Religious Education*, London: Continuum, 2006.
- The AAR Religion in the Schools Task Force,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2010.
- The California Council for the Social Studeis, "Religion and the Public Schools" in *Social Studies Review, Religion and the Public Schools*, Voleme 40, No. 2, 2002.
- UK Government, *Religious Education in English Schools: Non-Statutory Guidance*, London: Departmen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10.
- UK Parliament, *Education Reform Act 1988*,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88.
- UK Parliament, *Education Act*, London: HMSO, 1993.
- UK Parliament,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Londo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Employment, 1998.
- Ursula King, *Turning Points in Religious Studies*, Edinburgh: T & T Clark, 1990.

- Viteritti, Joseph P., *The Last Freedom: Religion from the Public Schools to the Public Square*, Princeton Unieiversity, 2007.
- Watson, Brenda & Thompson, Penny, *The Effective Teaching of Religious Education*, London: Longman, 2007.
- Wilkerson, Barbara,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7.
- Wright, A., *Religious Education in the Secondary School: Prospects for Religious Literacy*, London: David Fulton, 1993.
- Wright, A., *Religion, Education, and Post-Modernity*, London: RoutledgeFalmer, 2004.
- 加藤西郷, 「現代における宗教と教育の問題」, 『龍谷大學論文集』 427號, 1985.
- 加藤西郷, 『宗教と教育』, 東京: 法藏館, 2000.
- 家塚高志他, 「宗教教育の理念」, 日本宗教學會 編, 『宗教教育の理論と實際』, 金鈴出版, 1985.
- 江原武一 編, 『世界の公教育と宗教』, 東京: 東信堂, 2003.
- 磯岡哲也, 「日本の宗教教育における宗教別比較」,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2001.
- 寺川幽芳, 「私立大學における宗教教育の現状をめぐで」, 『佛教文化研究所紀要』 13, 1983.
- 杉原誠四郎, 大崎索史, 具塚茂樹, 『日本の宗教教育と宗教文化』, 文化書房博文社, 2004.
- 小山一乗, 「宗教教育・宗教科教育における宗教の教育考」, 『宗教研究』, 76-2 (通巻 333), 日本宗教學會, 2002.
- 小原國芳, 『宗教教育論』, 東京: 玉川大學出版部, 1972.
- 柴沼晶子・新井淺浩 編, 『現代英國の宗教教育と人格教育』, 東京: 東信堂, 2001.
- 井上順孝, 『教育のなかの宗教』, 東京: 新書館, 1998.
- 『宗教教育資料集』, 東京: すずき出版, 1993.
- 『宗教と教育』, 東京: 弘文堂, 1997.

眞城義まろ,『危機にある子どもたち－宗教教育の本質を問』, 藏館, 2005.
賀川豊彦,『宗教教育の実際』, 東京: 大東出版社, 1934.

[부록 1]

영국의 종교교육에 대한 법제적 개선사례

『1988년 교육개혁법(Education Reform Act)』

종교교육 관련 주요조항들 67)

종교교육 Religious education

6 . Collective worship

7조. 지역학교들에서 합동예배에 대한 특별조항

8조. 기초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종교교육: 추가조항들

9조. 예외, 특별조정, 보충, 그에 따른 조항들

6조 1항: 이 법의 9조에 따라 공립학교(maintained school)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매일 수업일에 합동예배(collective worship)의 행사에 참여해야만 한다.

6조 2항: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학교에서의 합동예배를 위한 조정은 각 수업일에 따라 모든 학생들을 위하여 1회의 예배행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다른 연령 모임들 혹은 다른 학교 모임들에서 학생들을 위한 예배 행위를 분리해서 제공할 수도 있다.

6조 3항: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지역학교 혹은 자율학교에서의 합동예배를 위한 조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야 한다.

(a) 지역학교(county school)의 경우에서 이사회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 교장에 의하여

(b) 자발학교(voluntary school)의 경우에는 교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사회에 의하여

67) UK Parliament, *Education Reform Act 1988*, London: Her Majesty's Stationary Office, 1989. 영국정부는 1988년 교육개혁법 전문을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8/40/pdfs/ukpga_19880040_en.pdf

6조 4항: 아래 5항에 따라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립학교의 합동예배는 학교 부지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6조 5항: 만약 (a) 지원(aided) 혹은 특별합의(special agreement) 학교 혹은 (b) 공립학교의 이사회가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학교에서의 합동예배 행위를 학교의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최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그 의도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조정을 할 수 있다.

6조 6항: 위 5항에 따라 이사회의 영향력들(powers)은 모든 언급된 그러한 학교에서 이 항목에서 요구하는 합동예배가 통상 학교 부지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규칙을 훼손시키는 차원에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6항 7조: 이 항목의 의도를 위하여, “공립학교”(maintained school)는 공립 특별학교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모임”(school group)은 다른 학교 활동들에 교육하고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루는 모임을 의미한다.

7조 1항: 이 조항의 다음 항목들에 따라서 이 법의 6조에 따라서 지역 학교의 경우에 학교에 요구되는 합동예배는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광의의 기독교 성격을 보여야 한다.

7조 2항: 위 1항의 의도에 따르면 합동예배는 그것이 특정한 기독교 교파의 특색을 지니지 않으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폭넓은 전통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광의적으로 기독교적인 성격을 갖는다.

7조 3항: 이 법의 6조에서 요구하는 모든 합동예배 행위는 지역학교의 경우 만약에 학기 전체를 따져 보았을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그러한 일들이 1항을 따를 필요가 없다.

7조 4항: 위의 1항부터 3항까지의 조항에 따라

(a) 이 법의 6조에서 요구하는 합동예배 행위가 1항을 따르지 않지만 지역학교에서 일어나는 지 그 정도는

(b) 위 1항에 부합하는 사립학교에서의 합동예배 행위가 광의의 기독교 신앙 전통들을 반영하는 지 그 정도는

(c) 그러한 합동예배에서 그러한 전통들이 반영되는 방식들은;

아래 5항에 따라 설명이 필요한 관심 학생들과 연결된 고려사항들이 적절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7조 5항: 그러한 고려사항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a) 관심 학생들의 가족 환경들과 연관된 상황들, 그러한 경우 적절한 합동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관련이 있는 경우에 상황들 그리고
- (b) 그들의 연령들과 적성들

7조 6항: 이 법의 12조에 따라 종교교육 상설자문위원회가 위 1항이 그 결정이 지역학교의 경우에 혹은 그 학교의 학급 혹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한하여 그 결정은 다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 (a) 그 항은 그 학교의 관계에 혹은 (상황에 따라) 그 학생들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 (b) 이 법의 6조에서 요구하는 합동예배는 그러한 학교 혹은 그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기독교 혹은 다른 종교 교파의 특징을 띠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한 예배가 특정한 신앙의 특징을 띠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8조 1항: 이 법의 2조 1항 (a)는 이 법의 9조의 영향을 받는다.

8조 2항: 어떤 특정한 공립학교를 위한 기초 학습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2조 (1)항 (a)에서 요구되는 조항에서의 종교교육은 1944년 법의 26조부터 28조까지의 조항들이 그러한 학교의 경우에 요구했던 종교교육이어야만 한다.

8조 3항: 이 항이 발효된 후에 그 법의 일정(Schedule)5(이 법에 의하여 수정된 것처럼 종교교육의 합의된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 채택, 재고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채택될 예정인 합의된 교육과정은 대영제국의 종교전통들은 주로 기독교 전통이며 대영제국을 대표하는 다른 주요 종교들의 가르침과 실천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9조 1항: 어떤 학생이 공립학교에 참석하는 조건으로서 주일학교(Sunday school) 혹은 다른 종교예배(religious worship)의 장소에 참석하는 것이 요구되거나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9조 2항: 아래 3항부터 10항까지의 의도에 따라 “공립학교”(maintained school)는 “공립 특수학교”(maintained special school)를 포함하지 않는다.

9조 3항: 어떤 공립학교에 출석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그가 다음의 사항에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되는 것을 요구한다면

- (a) 학교의 종교예배에 참석하는 것
 - (b) 학교의 기초 학습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종교교육을 받는 것
 - (c) 그러한 참석 혹은 그러한 교육을 받는 것;
- 학생은 그러한 요청이 철회될 때까지 면제되어야 한다.

9조 4항: 위의 3항에 따라서 어떤 학생이 종교예배에 참석하는 것 혹은 학교의 종교교육을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책임 당국이 다음 사항들을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a) 학생의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면제되는 동안에 학교에서 제공되지 않는 종류의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 of a kind)을 받는 것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b) 학생은 학부모가 원하는 종류의 종교교육이 제공되는 다른 공립학교로 합리적으로 용이하게 보내질 수 없다는 사실을

(c) 학교수업시간 동안 대상 학생이 그러한 종류의 종교교육을 다른 곳에서 받도록 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 학생은 조정에 따라 종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학교에서 나올 수 있다.

9조 5항: 이 항목에서 “책임 당국”(the responsible authority)은 다음을 의미한다.

(a) 지역(county) 혹은 자율(voluntary) 학교의 관계에서 지역 교육 당국

(b) 기금으로 유지되는 공립학교(grant-maintained school)의 관계에서 이사회

9조 6항: 만약 책임 당국이 그러한 조정들이 학교에서 학생이 학교 기간의 처음 혹은 끝을 제외한 날 혹은 그 날 학교 수업 가운데 한 번 이상이라면 수업 기간에 출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 4항에 따라 학교에서 면제될 수 없다.

9조 7항: 공립학교의 기숙행인 학생의 부모가 학생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허가하는 경우에

(a) 일요일이나 혹은 그의 부모들이 속한 종교단체에서 종교의무를 위하여 특별하게 구별된 다른 날들에 특정한 종교 교과와 교의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도록

(b) 학교 수업시간 외에 그러한 교의에 따라 종교교육을 받도록

학교의 이사회는 그 학생이 그럴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제공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9조 8항: 조정들은 위 7항에 따라 학교부지에서 그러한 예배 혹은 교육을 위한 시설들이 제공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조정들은 책임 당국에 의한 지출을 수반해서는 안 된다.

9조 9항: 이 항목에서

(a) 학교에서의 종교예배는 이 법의 6조에 따라 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종교예배를 의미하며

(b) 학교의 기초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되는 종교교육에 대한 언급들은 이 법의 2조 1항 (a)에 따라 학교의 기초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들에 따라 제공된 그러한 교육들을 의미한다.

9조 10항: 이 법의 일정(Schedule)1은 종교교육과 관련된 이 장의 규정들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그곳에 언급된 수정된 법조항에도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종교교육 상설자문위원회

Standing advisory councils on religious education.

11조. 종교교육 상설자문위원회

12조. 기독교함동예배를 위한 필수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자문위원회 결정

13조. 자문위원회: 추가조항들

11조 1항: 모든 지역교육당국은 종교교육 상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책임이 있다.

(a) 위원회는 당국에 지역 학교들의 종교예배와 합의된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된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당국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언한다.

(b) 위원회는 이 법의 12조에서 이 항목 아래 구성된 위원회들에 대하여 언급된 기능들을 시행한다.

이 항목의 이하 언급들과 이 법의 12조와 13조의 위원회에 대한 언급들은 이 항목 아래 지역교육당국이 구성한 위원회를 의미한다.

11조 2항: 위의 1항에 언급된 문제들은 특히 교육의 방법들, 자료들의 선택, 교사훈련의 준비를 포함한다.

11조 3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a) 아래 4항에서 요구하는 대표 구성원들과

(b) 당국에 의하여 당분간 채택된 합의된 교과과정이 사용되고 있는 공립학교 혹은 공립학교들에서는 이사회가 임명한 사람 (경우에 따라서) 학교 혹은 학교들의 이사회가 임명한 사람; 혹은 양자가 선택한 구성원들일 수도 있다.

11조 4항: 아래 5항에 따라서 이 세부사항이 요구하는 대표 구성원들은 각각 다음을 대표하도록 당국에서 지명한 사람들이다.

(a) 기독교와 다른 종교교파들과 같이 당국이 판단할 때 그 지역의 주요 종교 전통들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b) 웨일즈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영국국교회(성공회교회)

(c) 교사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같이 당국이 판단할 때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하여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

(d) 당국

이 항목의 아래에 위원회에 대표 모임이라는 표현들은 위의 (a), (c), (d)의 문장들에 따라서 임명된 각 구성원을 언급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위의 (b)문장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구성원들은 그와 같이 임명된다.

11조 5항: 그 구성원들은 4항 (b)문장에 따라 임명되어야만 한다. 세부사항의 (a)문장에 의하여 요구되는 대표 구성원들에는 영국국교회를 대표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11조 6항: 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된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의 대표 모임들은 투표를 할 권리가 있으며 각 모임마다 한 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11조 7항: 위원회의 대표 모임들은 당국을 대표하기 위하여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 모임들과는 다르며 언제든지 당국이 채택하고 있는 어떤 합의된 교과과정을 검토할 수 있다. 관련된 각 대표모임들은 그러한 심사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한 번의 투표를 해야 한다.

11조 8항: 그러한 요구사항에 대한 서한을 당국이 받았을 때 당국은 1944년 법의 5장의 준비들에 따라 요구사항과 관련된 합의된 교육과정을 재고하기 위하여 구성된 청문회를 소집해야 할 의무가 있다.

11조 9항: 위원회는 매년 그들의 기능들에 따라 실천한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지난 해 동안 위의 7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대표 모임들에 의하여 결정된 행위에 대하여 보고서를 출판해야 한다.

11조 10항: 위원회의 보고서는 특별히

- (a) 위원회가 당국에 조언을 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
- (b) 주어진 조언의 성격을 폭넓게 묘사하고
- (c) 그러한 문제를 당국이 위원회에 언급하지 않았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위원회의 이유를 밝혀야 한다.

12조 1항: 어떤 지역 학교의 교장이 이사회와의 협의 후에 지원을 했을 때 위원회는 그 학교의 경우 혹은 그 학교의 어떤 학급의 경우 혹은 학생들의 기술(description)에서 기독교 협동예배를 위한 필수요소의 적용여부가 적절한 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항목에서 기독교 협동예배란 표현들은 이 법의 7조 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12조 2항: 그 요구사항을 어떤 학교의 경우 혹은 어떤 학급 혹은 그러한 학교 학생들의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 위원회는 그 경우에 협동예배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관련된 문제의 학교 학생들 혹은 학급 학생들의 가족 배경과 관련된 환경들을 고려해야 한다.

12조 3항: 위원회는 이 항목에 따라 그들에게 지원한 교장에게 그 지원에 대한 그들의 결정을 서한(written notification)으로 알려야 한다.

12조 4항: 위원회가 기독교 합동예배의 요구사항을 관련된 학교, 학급,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 항목 아래 적용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위의 3항에 따라서 그들의 결정을 통지할 때 구체적 날짜에 대하여 이 법의 7조의 의도들을 위해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

12조 5항: 이 항목 아래 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결정은 기독교 합동예배가 어떤 학교, 학급, 학생의 경우에 당분간 적용되지 않는다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a) 이사회와 협의한 후에 학교의 교장이 신청을 했을 때.

(b) 결정이 처음 효력이 발생한 날 혹은 (이 세부사항 아래에서 심사될 때에는) 마지막 심사에서의 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건에서.

12조 6항: 위의 5항 (b)에 따라서 행해진 심사에 대하여 위원회는 교장에게 심사 아래 결정에 대하여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장은 그러한 표명을 하기 전에 이사회와 상의를 해야 한다.

12조 7항: 위의 5항에 따라서 심사를 할 때 위원회는 심사된 결과를 (변화 있거나 혹은 변화 없이) 확정하거나 (편견 없이, 이 항목 아래 진전된 결정에 대하여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회는 위의 5항 (b) 세부사항의 의도들을 위하여 그 결정이 유효하게 된 날을 구체화하는 그들의 결정을 서면으로 학교의 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12조 8항: 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위의 세부사항 5항 (b)에 따라서 검토되어야만 한다면 그러한 심사 때 확정되지 않았다면 언급된 기간이 끝나도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12조 9항: 어떤 지역 학교의 이사회는 이 항목 아래 교장의 조언을 받을 때 그들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학교의 등록된 학생들의 부모들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의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12항 10조: 이 항목 아래 위원회에 행해진 적용은 위원회에 요구되어지는 태도와 형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3조 1항: 어떤 교과 혹은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임명하기 전에 관련된 지역 교육 당국은 그들 스스로 그가 문제가 되는 교과 혹은 단체의 대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3조 2항: 만약 당국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원이 그가 임명된 교과 혹은 단체의 대표 혹은 상황에 따라 당국의 대표를 그만 두었을 때에는 당국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국에 의하여 해임될 수 있다.

13조 3항: 이 법의 11조 3항 (b) 항목에 의하여 요구되는 위원회는 구성원은 언제든지 이사회 혹은 (경우에 따라서) 관련된 국립학교 혹은 국립학교들의 이사회에 의하여 사임될 수 있다.

13조 4항: 그 항목의 세부사항 (3)에서 “함께 선택된 구성원”이란 그들 자신이 함께 선택되지 않은 위원회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선발된 사람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께 선발된 사람은 그를 함께 선발한 구성원들에 의하여 결정된 조건들에 따라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

13조 5항: 위원회의 어떤 구성원도 언제든지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13조 6항: 그러한 항목의 세부사항 (6)에 따라, 위원회는 특별한 범주의 위원회의 구성원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문제와 관련하여, 그 범주의 성원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결정과정들을 규제할 수 있다.

13조 7항: 위원회 혹은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위원회의 성원들의 결정과정들에 대한 유효성은 다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a) 그 조항의 3항에 의하여 요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의 자리가 공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b) 어떤 교과 혹은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결정과정이 진행되는 때에 문제가 되는 교과 혹은 단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부록 2]

『2008년 영국의 웨일즈정부 종교교육지침서』에 나타난 종교교육을 위한 국가표준 68)

종교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에 대한 설명 []

1. <수준 1>에서 <수준 4>까지
2. <수준 5>에서 <수준 8>과 <예외적 수준>까지
3. <수준 1> 이하의 결과들

다음 수준들에 대한 설명은 특정한 수준에 속한 학생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의 유형과 범위를 기술한 것이다. 각 단계를 마무리할 때에 학생의 성취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단계의 서술들 중에 학생의 성취결과를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을 교사가 결정해야만 한다. 각 수준의 묘사들 가운데 인근의 상·하위 수준들을 묘사하는 데 중복된 표현들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 2단계를 마칠 무렵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준 2>에서 <수준 5> 사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제 3단계를 마칠 무렵에는 <수준 3>에서 <수준 7> 사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준 8>은 매우 뛰어난 학생들에게 해당되며 교사들이 수준 8을 넘어선 예외적인 수준의 학생들을 구별해 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준 8> 이상에 대한 <예외적 수준>에 대한 설명도 제공한다.

수준을 설명하는 모든 진술들은 기독교와 구체적인 지역 공통교과목에서 정하

68) Welsh Assembly Government, *National Exemplar Framework for Religious Education for 3 to 19-Year-Olds in Wales: Guidance for Local Education Authorities and Agreed Syllabus Conferences*, Cardiff: Department of Children, Education, Lifelong Learning and Skills, 2008, pp. 22-24. 웨일즈 정부는 2002년 교육법에 준하는 웨일즈 지역의 종교교육을 위한 지침서를 2008년 만들어 그 전문을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다.

[http://wales.gov.uk/dcells/publications/curriculum_and_assessment/arevisedcurriculumforwales/religiouseducation/R.E_Framework_WEB_\(E\).pdf?lang=en](http://wales.gov.uk/dcells/publications/curriculum_and_assessment/arevisedcurriculumforwales/religiouseducation/R.E_Framework_WEB_(E).pdf?lang=en)

고 있는 주요 종교들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수준 1>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들, 자신들 주위의 세계, 그리고 종교의 측면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은 공부한 몇 가지 기초적인 종교적 신념들, 가르침들, 실천들을 기억하고 반응한다. 그들은 종교의 이러한 측면들이 특별하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그들은 자신의 느낌, 행동, 의견이 다른 사람의 것들과 유사하거나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은 때때로 그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순하지만 적절한 종교적 어휘들을 사용한다.

<수준 2>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들, 자신들 주위의 세계, 종교의 측면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몇 가지 답변을 한다. 그들은 공부한 종교적 신념들, 가르침들, 실천들의 몇 가지 내용을 기억하고 단순하게 의사소통을 한다. 단순한 용어로 그들은 왜 이러한 종교의 측면들이 일부 사람들에게 중요한지 제시한다. 그들은 단순한 용어로 그들 자신의 느낌, 행동, 의견과 다른 사람의 것들에 대하여 말한다. 그들은 단순한 종교적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수준 3>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들, 주변의 세계, 그리고 종교의 측면들에 의하여 제기된 질문들을 토론하고 자기 나름의 의견을 표명한다. 그들은 공부한 기초적인 종교신념들, 가르침들, 실천들의 몇 가지를 묘사한다. 그들은 이러한 종교적 차원들이 신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묘사한다. 그들은 자신의 느낌, 행동, 의견을 설명하고 단순한 용어지만 다른 사람의 견해에 의견을 개진한다. 그들은 종교적 상징들이 의미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종교적 어휘들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수준 4> 학생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 주변의 세계 종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반응을 토론한다. 그들은 공부한 종교적 신념들과 가르침들과 실천들을 묘사하고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러한 측면들이 신자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공하며 종교들 사이에 유사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단순한 용어로 그들 자신의 느낌, 행동,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몇 가지 종교적 상징들을 인식하고 적절하게 상당한 종교적 어휘들을 사용한다.

<수준 5> 학생들은 그들의 탐색과 경험의 조명 아래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사고와 의견을 표현하고 정당화한다. 그들은 공부한 종교적 신념들, 가르침들 사이를 연관시키고 신자들의 삶에 주는 영향력을 묘사하고 종교 안과 밖에 유사점들과 차이점들을 파악한다. 그들은 어떻게 자신의 느낌, 행동, 의견이 그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묘사한다. 그들은 상당한 종교적 어휘들을 사용하고 상징적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능력을 보여준다.

<수준 6>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자료들과 자신의 경험들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반응들을 표현하고 발전시킨다. 그들은 공부한 종교적 신념들, 가르침들, 실천들 사이에 관련성을 이해를 사용하여 종교를 이해하는데 사용하고 다른 종교적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에도 활용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신념들과 행동들 사이에 관계를 설명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념들과 행동들 사이에 관계도 설명한다. 그들은 상당한 종교적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상징주의와 상징적 언어에 대한 이해의 능력을 보여준다.

<수준 7> 학생들은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근본적 질문들을 다양한 종교적 시각에서 탐색하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상당한 종교적 개념들을 다양한 신념들, 가르침들, 실천들에 적용한다. 그들은 정확하게 종교적 인간들이 지닌 관점들의 이유를 설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신념들과 행동들의 가정들을 고려하고 이 가정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상당한 종교적 어휘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종교적 대상들, 행위들, 언어들의 상징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수준 8> 학생들은 종교적이며 윤리적인 근본적 질문들을 탐색하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평가하고 수집된 증거에 기초하여 합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은 공부한 종교들 안에서 신념들, 가치들, 전통들을 포함한 종교적 개념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그들은 종교의 다양한 측면들을 평가하고 어떻게 이 측면들이 개인, 공동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공부한 종교적 관념들을 탐구하고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견해들은 합리적 논쟁과 증거를 통하여 평가한다. 그들은 상당한 종교적 어휘들을 적절히 사용하며 상징적 언어에 대한 발전된 이해의 능력을 보여준다.

<예외적 수준> 학생들은 근본적인 종교적 질문들이 자주 복잡하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답변들이 자주 부분적이며 결론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들은

공부한 신념들, 가치들, 전통들에 관한 다양한 시각들을 분석하고 그 합리성을 설명한다. 나아가 종교들 사이에 차이점을 인식하며 각 종교들 안의 일치와 다원성의 긴장을 이해한다. 그들은 다양한 신앙 체계의 신자들이 보이는 행위와 신념들을 깊이 있게 자세히 알고 있다. 공부한 종교적이며 도덕적 관념들의 관계에서 그들은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하여 잘 고려된 의견들을 표현한다. 그들은 상당한 종교적 어휘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종교적 언어들에 대하여 잘 발달된 이해의 능력을 보여준다.

종교교육에서의 결과들:

다음 종교교육의 결과들은 법령적인 것이 아니다. 그들은 <수준 1>의 아래에 소속된 학생들의 성취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시된 것이다. 종교교육의 <결과 1>, <결과 2>, <결과 3>은 기초단계의 <결과 1>, <결과 2>, <결과 3>에 해당한다.

기초단계	종교교육
기초단계 <결과 1>	종교교육 <결과 1>
기초단계 <결과 2>	종교교육 <결과 2>
기초단계 <결과 3>	종교교육 <결과 3>
기초단계 <결과 4>	종교교육 <수준 1>
기초단계 <결과 5>	종교교육 <수준 2>
기초단계 <결과 6>	종교교육 <수준 3>

다음 결과들에 대한 설명은 특정한 결과에 속한 학생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의 유형과 범위를 기술한 것이다. 각 단계를 마무리할 때에 학생의 성취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단계의 서술들 중에 학생의 성취결과를 가장 잘 묘사한 부분을 교사가 결정해야만 한다. 각 결과의 묘사들 가운데 인근의 상·하위 결과들을 묘사하는 데 중복된 표현들이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결과 1> 학생들은 자기 자신들, 익숙한 사람들, 그림들/이야기들의 장소들과

대상들을 인지하고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지식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익숙한 종교적 이야기와 작품들에 대한 관찰내용을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표시, 상징을 사용한다. 격려하면 학생들이 특별한 건물들의 방문, 축제들, 기념일들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소통하기 시작한다.

<결과 2> 학생들은 그들의 느낌들과 경험들(‘무엇이죠?’ ‘어디에서?’)에 대한 열린 질문들에 응답한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며, 때로는 연관성을 만들거나 예측을 한다. 학생들은 작품들을 다루고 탐구하며 특별한 인물, 책들, 예배장소에 대한 지식을 보여준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들과 사건들에 대하여 반응한다. 그들은 종교적 이야기와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에 표현된 다른 사람들의 느낌들을 확인하기 시작한다.

<결과 3> 학생들은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고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다. 학생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관심을 끄는 대상들에 대한 독립적인 생각과 관찰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종교적 이야기들, 사건들, 대상들에 대한 발달된 지식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하고 이것들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학생들은 점차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감지한다. 나아가 살아있는 것들을 존중과 관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부록 3]

미국의 종교교육 관련 주요 지침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관한 교사용 지침서』⁶⁹⁾

(A Teacher's Guide to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

Written by: Charles C. Haynes
Editor: Natilee Duning
Design: S. Watson

미국 수정헌법 센터(First Amendment Center⁷⁰⁾)

(서언)

매일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수백 만의 학부모들이 미국의 공립학교에

69) 이 지침서는 미국수정헌법센터에서 출판한 것이며, 미국 학교행정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미국교사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 관리 및 커리큘럼 발전협회(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미국초등학교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Elementary School Principals), 미국중등학교교장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미국사회과학학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미국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 미국학부모-교사협회(National PTA), 미국학교행정국협회(National School Boards Association) 등 주요 교육관련 단체들과 미국유대교위원회(American Jewish Committee), 미국유대교의회(American Jewish Congress), 공공문제들에 대한 침례교 연합위원회(Baptist Joint Committee on Public Affairs), 국제기독교교육자협회(Christian Educators Association International), 기독교법률협회(Christian Legal Society), 이슬람교육위원회(Council on Islamic Education), 미국복음주의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미국기독교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등 주요 종교단체들이 망라된 19개 단체가 배서한 것이다.

70) 미국수정헌법센터(The First Amendment Center)는 첫 번째 수정헌법에서 언급한 자유를 홍보와 교육을 통해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지지그룹이다. 이 센터는 자유로운 표현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포럼 형태로 유지되며, 그러한 자유로운 종교의 표현에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와 청원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이 센터는 1991년에 저널리스트 존 사이겐트랄러 경(John Seigenthaler, Sr)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센터의 사무실은 벤더빌트 대학(Vanderbilt University)에 있다.

있는 교사들에게 그들의 자녀 교육을 맡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공교육에서의 종교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헌법적이고 교육적인 원칙들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 교사용 지침서는 보통교육운동이 일어났던 초기부터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둘러싸고 야기되었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의 역사 대부분에서 극단적 주장을 한 사람들이 많은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그 극단의 한쪽 끝에는 학교의 실제와 정책에서 종교(보통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 대한 장려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른 한쪽 끝에는 공립학교를 종교 공백지역(religion-free zones)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극단적 접근방법이 모두 미국 수정헌법에 있는 종교관련 규정의 원칙과는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수정헌법과도 일치하고 많은 교육단체들과 종교단체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대안이 있다. 이 대안의 핵심적 내용은 “종교의 자유, 공교육,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 미래”(Religious Liberty, Public Education, and the Future of American Democracy)라는 성명서에 매우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 성명서는 미국의 24개 전국규모의 단체들에 의해 발표된 것이다. 이 성명서의 제4원칙은 다음과 같다.

공립학교들은 종교를 주입해서도 안 되고 금지해서도 안 된다. 공립학교는 종교와 종교적 확신을 공정하게 다루고 존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공립학교는 어떤 종교를 믿는 학생들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수정헌법을 따라야 한다. 적절한 과목에서 완전한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종교에 대한 공부(study about religion)를 커리큘럼에 포함하는 것은 정당하다.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래의 지침들은 공교육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관한 이러한 공동의 비전에 따른 것인데, 그것은 교사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야기되는 종교관련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답은 수정헌법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법원에서 해석되고 종교단체들과 교육단체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것이다. 교사들이 그 문제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논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의 토대 찾기: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지침」(Finding Common Ground: A Guide to Religious Liberty in Public Schools)을 참조해야 한다. 이 지침서는 특별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 종교와 공립학교라는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그렇지만, 법만이 모든 문제들에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사와 학교행정가는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수정헌법

을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정당하게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치기

1.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가?

그렇다. 미국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한 가르침을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

2. 왜 종교에 대한 공부가 커리큘럼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미국 전역에서 점점 더 많은 수의 교육자들이 사회, 문학, 예술 그리고 음악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이 균형 잡힌 교육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있다.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합의의 기초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에서 형성된 것이다.

- (1) 대법원이 분명히 제시했듯이,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은 헌법에 합치된다.
- (2) 종교에 대한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들이 역사와 문화에 대해 적절히 교육을 받는데 매우 중요하다.
- (3) 종교는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공립학교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종교 전통들의 다양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지 어떤 전통을 그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

3. 종교에 대한 교육이 교과서와 국가 표준에 포함되는가?

종교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한 동의가 공립학교에서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들에서 종교를 취급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사회과목을 위한 주(州)의 교육체계 표준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로 사회, 역사, 생활지리 등의 교과서와 국가교육표준에서 종교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4. 종교에 대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공립학교들에서 이제 이전보다 더 많이 종교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이제는 “종교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묻지 않고, “어떻게 종교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묻게 되었다. 종교의 가르침과 종교에 대한 가르침의 결정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종교에 대한 학교의 접근방법은 학문적(academic)이지 헌신적(devotional)인 것이 아니다.
-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들을 알게 하는 것(awareness)을 추구해야지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도록(acceptance)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종교에 대해 공부하도록(study) 후원을 해야지 종교를 실천(practice)하도록 지원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종교적 견해들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어야지(expose)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갖도록 강요해서는(impose)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모든 종교에 대해 교육을 해야지(educate) 종교를 증진하거나 부정해서는(promote or denigrate) 안 된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념들을 알려 주어야지(inform) 어떤 특별한 신념을 학생들이 확신하도록(conform)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적 견해가 토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사들은 종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그것이 수정헌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가르치면서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을 삽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어떤 종교들이 얼마나 가르쳐져야 하는가?

어떤 종교들을 가르쳐야 하고 종교에 대해 얼마나 토론을 해야 하는가는 학생들의 학년과 가르쳐지는 과목의 학문적 요건에 의해 결정된다.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가족, 공동체, 다양한 문화, 민족, 그리고 그 외의 주제나 화제에 대한 공부에서 종교에 대한 약간의 토론이 포함된다.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종교적 신앙들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의 주요 종교들의 기본적인 이념과 실천(핵심적인 신념과 상징들, 주요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대해 소개를 받게 된다. 다양한 신앙들에서 이끌어낸 이야기들이 학생들에

의해 읽혀지는 더 광범위한 이야기들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 재료들은 항상 종교에 대한 학습의 정황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사회, 문학, 예술 과목에서 종교들(종교들의 이념과 실제)에 대한 공부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과목의 학문적 필요가 어떤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역사 교과과정에는 어떤 신앙 공동체들이 다른 신앙공동체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될 수 있는데, 단지 그러한 공동체들이 미국이라는 국가의 발전에 더 두드러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세계사 과목에서는 역사와 사회를 형성했던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 각 지역의 다양한 종교 신앙이 학습되어야 한다.

중등교육 수준에서 종교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공부에는 종교전통들이 포함되는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포함된다. 종교적 신념들은 인간 역사에서 최선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고 최악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전체의 역사적 기록(그리고 그것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분석과 토론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일차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직접 역사적 기록을 갖고 공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다수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종교적 이념들과 사건들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강의계획서 상의 제한된 시간을 고려하면, 미국과 세계의 역사와 문학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공부하기는 어렵다. 교사들은 학자들이 제공하는 보충 자료들을 필요로 할 것인데, 그 자료들은 할당 시간 안에 요구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논의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현재 어떤 학교들은 학생들이 좀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주요 신앙 공동체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 종교학(religious studies)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기도 한다.

6. 종교에 대한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외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는가?

역사 과목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칠 때 어떤 교사들은 공부하고 있는 종교 전통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들은 교실에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속한 교육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

만일 외부 인사가 초청된다면,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고, 대학의 교수들이 적절하다고 본다. 지역 공동체의 종교지도자들도 초청될 수 있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종교에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외부 초청인사이드 간에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수정헌법의 지침을 충분히 이해한 사람이어야 한다.

7. 수업시간에 종교적 축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교사들은 허용이 되는 종교적 축일들에 대한 교육과 허용이 안 되는 종교적 축일을 축하하는 것의 구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종교적 상징들의 사용은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유산에 대한 사례로서만 사용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 종교적 상징들은 공부하는 학문적인 학습의 한 부분으로 잠시 동안만 전시될 수 있다. 학생들은 종교적 상징을 가지고 예술작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그러한 예술작품을 만들라고 과제를 주거나 제시해서는 안 된다.

8.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교사 교육의 기회는 있는가?

수정헌법센터(The First Amendment Center), 캘리포니아 3Rs 프로젝트(the California 3Rs Project [Rights, Responsibilities, and Respect]), 유타주 교육청(The Utah State Office of Education co-sponsors a Utah 3Rs Project), 하버드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석사 프로그램(Harvard University and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offer master's level programs),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의 종교와 공교육 자료센터(the Religion and Public Education Resource Center at California State University) 등 여러 대학들에 교사교육 기관이 있다.

9. 종교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좋은 학습자료들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있다.

- 수정헌법센터에서 출판한 *Finding Common Ground: A Guide to Religious Liberty in Public Schools*
-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출판한 CD-ROM *On Common Ground: World Religions in America*.
-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출판한 17권의 시리즈물: 미국인의 삶에서의 종교

10. 종교와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사들은 종교에 관한 한 중립적이어야 한다. 종교들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하고 종교와 무종교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교사들이 시민적 덕성이나 도덕적 품성에 대해서도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개인적이고 시민적인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 예컨대 정직, 배려, 공정, 통합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이 종교적인 권위에 호소함이 없이 가르쳐져야 하고,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종교적 혹은 철학적 확신을 부정하지 않고 가르쳐져야 한다.

학교 당국이 포괄적인 인격교육을 위한 계획을 개발할 때에는 상당수 미국인들의 도덕적 생활이 깊은 종교적 확신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인격교육에 대한 접근방법과 수업 자료들이 모두 학부모와 폭넓은 관점들을 대표하는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긴밀한 논의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교사의 개인적 신념

11. 교사가 학교에 있을 때 기도를 하거나 그밖에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교사는 수업이 있는 날에 학생들과 함께 혹은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할 권리가 없다.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지역의 종교 공동체에서 가르치거나 다른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외부 종교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공립학교 교사로서의 지위를 활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기도를 하고 싶거나 다른 종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학생들이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해야 한다.

교사들은 십자가나 다윗의 별과 같은 돌출적이지 않은 장식물을 착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개종을 하도록 하는 메시지가 쓰인 옷을 입지 말아야 한다.(예컨대 “예수가 구원하신다.”(Jesus Saves)라는 문구가 쓰인 티셔츠).

12. 만일 학생들이 교사에게 어떤 종교를 믿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사들은 그러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개인적인 견해와 학교의 공식적 입장을 분별할 수 있지만, 매우 어린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 교사는 최대한 간략하게 자신의 신앙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에로 귀의하거나 종교를 반대하는 기회가 되는 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사는 교사 자신의 종교적 견해에 학생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거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의 종교적 표현

13.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현행법에 대한 연합 성명”(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 A Joint Statement of Current Law)에서 35개의 종교자유 및 시민자유를 위한 기구들은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들 자신의 종교적 견해를 표현할 학생들의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그들이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기도하거나, 그들의 동료와 함께 종교적 견해를 논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학생들은 그들의 성경이나 다른 경전을 읽을 수 있고, 식사 기도를 할 수 있으며, 시험 전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다fms* 자발적 청중과 종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그렇지만 자발적인 기도와 관련된 권리는 (확성기 등을 통해 들리기 때문에)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는 청중이 있는 경우나 다른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4. 학생들은 과제물에서 자신들의 종교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가?

미국 교육부(the U. 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출판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표현”(Religious Expression in Public Schools)이란 제목의 지침에서는 학생들의 과제물에서의 종교적 표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숙제, 예술작품 제작, 그 외의 문서와 구두 과제물에서 종교에 대한 그들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들이 제출한 것에 들어있는 종교적 내용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숙제와 교실에서의 작업은 일반적인 학문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15. 공립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수업 면제를 요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대한 학부모용 지침서”(A Parent’s Guide to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에서 미국학부모-교사협회(National PTA)와 미국 수정헌법 센터(First Amendment Center)는 수업면제 요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고 있다.

... 예컨대 무슬림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학교에 있을 때의 기도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필요로 할 수 있다. 여호와증인 신도들은 그들의 자녀 생일 축하를 위해 수업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들을 존중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학교 행정가들은 수정헌법의 정신에 따라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학교 행정가들과 교사들은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종교적 요건에 따르는지를 모니터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도와 식사 제한 규정, 혹은 머리를 덮은 커버를 착용하는 것 등과 같은 종교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책임이지 교사의 책임이 아니다.

17. 학생들이 비교과 종교 클럽을 만들 수 있는가?

1984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동등접근법(The Equal Access Act)은 중등 공립학교가 다른 “비교과 관련 클럽”을 허용한다면, 그 학교 학생들은 성경 클럽을 포함한 종교적 클럽을 만들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이 법에 따르면, 외부인들이 학생 종교 클럽을 “지도하고 지휘하거나 그것에 주기적으로 참석할 수 없고, 모니터로서 활동하는 교사들은 단지 비참여적인 지위(a non-participatory capacity only)로 종교적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18. 학생들이 종교적 문서들을 학교에서 배부할 수 있는가?

미국 교육부에서 발행한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학생들은 그들이 학교의 교과과정이나 활동에 관련되지 않는 다른 문서들을 배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들의 학교 동료들에게 종교적 문서를 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교 문서 이외의 문서들을 배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적절한 시간, 장소, 방법 그리고 그 외 교칙에 따른 규정 등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을 종교적 문서를 배부하는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종교적 문헌을 배부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부록 4】

미국 종교학회 제공

『미국 공립학교(K-12)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 지침서』(요약)⁷¹⁾

(Guidelines for Teaching About Religion in K-12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목차

서론

제1부 종교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이유

제2부 종교와 교육, 그리고 헌법

제3부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

제4부 교사 교육

결론

부록

참고문헌

서론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는 각 주로 하여금 유치원에서 12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까지(K-12)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들에 대해 표준 교과

71) 이 문서는 미국 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 AAR)의 “학교에서의 종교 테스크포스”(의장: Diane L. Moore)에서 2010년 4월에 발표한 것으로 교사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서는 미국 교육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가 각 주에서 교과과정 표준을 발전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에 참조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이며, 기존의 관련 논의를 종합한 것이다. 미국 종교학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미국 최대의 종교관련 학회이며, 1970년대부터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07년에 이 책을 펴낸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였는데, 종교학자와 교사 등 7인의 멤버와 11인의 워킹 그룹을 만들어 함께 작업했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요약, 번역하였다.

과정과 학문적 평가방법을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각 주 정부의 교육부는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 분야의 학자들과 교육자들의 지혜를 모아 자체의 표준 교과과정과 지침을 만드는 전국 교육협회들(예컨대 “전미사회과학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NCSS]나 ‘전미영어교사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Teachers of English, NCTE])의 지도를 받고 있다.

종교학(religious studies)은 공립 K-12 학교의 필수 교과목은 아니지만, 종교는 여러 과목의 표준 교과과정에 두루 포함되어 있고, 특히 사회과목과 영어과목에서는 두드러지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종교연구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적 주제나 화제에 초점을 맞춘 선택과목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곧 (1) 종교에 대한 공부에 이미 공립학교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2) 종교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 자체에 관한 교사 지침서가 없다는 것, (3) 교사들과 학교 당국이 종종 헌법적으로 볼 때 타당하고 지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몰라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인해, 종교에 관해 가르치기 위한 일련의 지침서가 필요하다라는 강력한 합의가 생겨나고 있다.

미국종교학회(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NCSS나 NCTE와 같이, 종교학 그 자체에 주안을 둔 전국적인 교육협회는 없다. 그러나 미국종교학회는 K-12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학술적인 지침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합한 전문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종교학회는 종교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학회이다. 약 1만 명의 회원들이 있는 이 학회는 북미를 비롯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종교학회는 1970년대부터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대한 교육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K-12 공립학교들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교과 과정적, 도덕적, 교육적 차원 등에 집중적인 연구출판물을 발행하였다.⁷²⁾

72) Anne Carr and Nicholas Piediscalzi, eds., *The Academic Study of Religion: 1975*

K-12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치기 위한 권위 있는 지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종교학회에서는 2007년에 교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당국자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일련의 표준 교과과정과 지침을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종교학회의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한 태스크포스’(Religion in the School Task Force)가 이 일을 주도했다.

제1부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3가지 근본적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에서 종교에 대한 문맹(illiteracy about religion)이 널리 퍼져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문맹으로 인해 편견과 적대적인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다양성과 평화로운 공존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셋째, 초·중등 학교들에서 종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종교적 문맹을 줄일 수 있다.

이 문건에서 종교적 문맹은 다음과 같은 것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 세계종교전통들과 전통으로 포괄되지 않는 다른 종교적 표현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조(信條)
- 종교전통들과 종교적 진술 속에 있는 신념과 표현의 다양성
- 종교가 인간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 속에 행했던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주요 역할

반면, 종교에 대한 교양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닌 사람들이다.

- 여러 세계종교전통들과 표현들이 지닌 역사, 핵심적 경전, 신념, 실천, 현대적 양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표현들 속에 있는 종교적 차원들을 분별하고 탐구할

Public Schools Religion Studies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5); Nicholas Piediscalzi and Barbara De Martino Swyhart, eds., *Distinguishing Moral Education, Values Clarification and Religion-Studies*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6); and Paul J. Will, ed., *Public Education Religion Studies: An Overview* (Chico, CA: Scholars Press, 1981).

수 있는 능력

이러한 정의들은 종교가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인간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속에서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그것들은 종교가 사회문화적 정황을 형성하고 그것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경건한 신념들과 실천과, 학문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종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중요한 점은, 미국 헌법에 의해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되어 공립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비신앙적 종교연구방법(the non-devotional religious studies approach)이라는 것이며, 이 지침서는 바로 그러한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전제: 미국에는 광범위한 종교에 대한 문맹이 있다.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종교적 문맹이 표현되는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종교적 전통들과 표현들은 그 종교전통과 표현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종종 부정확하게 제시된다.
2. 어떤 종교전통이나 표현들의 종교적 지도자나 신자들은 그 전통과 표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지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전문가’로 인정된다.
3. 종교에 대한 연구와 종교적인 신앙적 표현의 구분이 제대로 이해되는 법이 없다.
4. 종교 전통들과 표현들은 종종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정적이어서 다양하지도 않고 발전하지도 않는다고 말해진다.
5. 어떤 상황에서는 종교가 세속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문화적인 “공적”(public) 영역과는 구별되는 “사적인”(private) 사안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며, 그렇기 때문에 비신앙적인 학문적 종교 연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교육이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두 번째 전제: 종교적 문맹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편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며, 그로 인해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성, 평화로운 공존, 화합에 대한 존중을 고무하는 노력을 방해하게 된다.

종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다른 신앙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할 수 있다. 그러한 지식은 시민교육으로서도 중요하며, 다종교 국가인 미국에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세 번째 전제: 초·중등 학교들에서 비신앙적 관점으로 종교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종교적 문맹을 줄일 수 있다.

종교에 대해 배운다고 하여 종교적 편협과 광신을 없앨 수 있다고 보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 배움으로써 부지불식간에 그러한 편협과 광신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는 있다.

이 문건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교사들이 지적인 책임을 갖고 헌법에 합당하면서도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제2부 종교와 교육, 그리고 헌법

미국 대법원은 정부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후원해서는 안 되며, 신앙적 목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도 후원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헌법적으로 합당하고 지적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보다 복잡한 문제이다.

종교에 대한 가르치기를 위한 지침

미국 수정헌법센터(First Amendment Center)는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에 관한

교사용 지침서』(A Teacher's Guide to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⁷³⁾를 포함한 여러 문건을 출판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교에 대한 학교에서의 접근방법은 학문적(academic)이어야지 신앙적(devotional)이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학생들이 종교를 인식(awareness)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어떤 종교를 받아들이도록(acceptance) 압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종교에 대한 공부(study)를 지원해야지 종교의 실천(practice)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종교적 견해가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줄(expose)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견해를 강도록(impose) 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모든 종교에 대해 교육(educate)할 수 있으나 종교를 증진(promote)하거나 부정(denigrate)해서는 안 된다.
-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념들에 대해 알게(inform)할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신념을 확신(conform)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지침은 비신앙적이고 학문적인 관점에서 종교에 대한 가르치는 것과 신앙적인 시각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적절히 구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침은 공립학교가 세속인 법과 가치에 의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3부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

서론

여기서는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러한 방법들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다룰 것이다.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된 상황에서 교사들은 종교에 대해 가르치게 된다.

73) [부록 3] 참조.

1. 교과과정에서 종교 전통들의 역사적 기원이나 현대의 상황과의 관련성을 다루게 될 때
2. 교사들이 가르치는 소설이나 이야기들이 명백한 종교적 주제나 암시를 담고 있을 때
3. 학생들이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에 의거하여 질문을 할 때

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매우 다르지만, 그들에 의해 선택되는 방법은 그들이 담당하는 과목, 그들의 훈련, 그들 자신의 개인적 견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공립학교에서 공통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세 가지 접근방법은 역사적 방법, 문학적인 방법, 전통에 토대를 둔 방법 등이다. 네 번째 방법으로 문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세 방법을 통합한 것이며 종교학자들과 교육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이다. 이러한 4가지 방법을 요약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역사적인 방법

이 방법은 역사에 초점을 맞춘 수업에서 종교가 등장하는 사회과 과목들에서 주로 사용된다. 역사적 방법의 장점은 문명하다. 곧 어떤 종교의 기원과 역사적 전개는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역사적 정황에서 제시되는데, 그것은 어떤 종교가 어떻게 출현하여 신자들이 생겨나며 전파되는가를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사안이 된다. 종교는 진공상태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종교전통이나 세계관이 전개되어 온 역사적 상황을 찾아보는 것은 종교들이 단일하고 완전히 형성된 일련의 이념과 신념이라기보다는 다양한 표현들로 이루어진 실천과 가치의 복잡한 연계망(web)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방법 자체에는 단점이 없다. 그러나 그 방법을 사용할 때 교사들은 종교의 역사적 복잡성에 주안을 둔 종교학적 지식이 없음을 토로한다. 게다가 종교는 종종 전근대적인 정황에서만 탐구됨으로써 학생들에게 1) 종교는 현대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그리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으며)는 인상만 주거나, 2) 종교적 신념은 변함없는 체계로 형성된 다음 고정불변의 것이 되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학생들은 18세기 이후로 종교가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했는지를 배우는 경우가 별로 없고, 현대 문화에서 종교가 해온 역할을 성찰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도구도 제대로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문학적인 방법

학생들이 종교적 경전들을 읽거나 종교적 주제가 들어 있는 소설과 이야기, 시를 읽게 되는 것은 통상 영어(English language arts) 과목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여 교사들은 종교적 암시와 은유가 사람들에게 의해 공유되는 공통의 언어가 되는지를 보여 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가 문화의 모든 측면들에 스며드는 방식을 음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종교적 표현이 주제가 되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살펴봄으로써 개개인이 종교를 경험하는 매우 특별한 방식을 알게 할 수도 있고, 종교에 대한 일반화(generalization)가 종종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종교적 경전들을 다룰 때에는, 학생들이 그 경전들의 문학적 가치를 배우게 되고 종교적 경전들이 문학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방식도 알게 된다. 역사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문학적 방법 자체에는 단점이 없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공부하는 경전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시하는데 필요한 종교학적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러한 훈련의 부족으로 인해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경험에 의존하거나 다른 신앙적인 해석을 참고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에 토대를 둔 방법

이 방법은 종종 세계사 교과서에 제시되는데, 고학년의 선택과목이나 독립과목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저학년의 비교 종교연구를 위한 토대 과목에서도 사용된다. 종종 많은 종교 전통들에 적용되는 어떤 범주들, 예컨대 신념, 경전, 의례, 기원(起源), 축일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혹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체성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등등 종교가 삶의 목적에 연관되는 본질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이 방법은 학생들도 하여금 종교 전통 안에 있는 공통의 주제를 보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종교적 표현을 이해하는 유용한 작업틀(framework)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종교 예술이나 의례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은 종교가 그들 주위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는 방식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방법의 주된 약점은, 1) 종종 종교 전통들의 내적 다양성을 적절히 제시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 2) 종교 전통들 사이의 공통점을 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비교의 범주들 자체가 특정의 종교적 전통에 의해 만들어짐으로써 “창시자”(founder), “성문서”(sacred text)와 같은 것을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고, 결국 보편적이지도 않고 편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문화학적 방법

이 방법은 종종 종교학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해 사용되며, 지역연구 과목이나 다문화적 분석 시각을 지닌 과목들에 적합하다. 이 방법은 종교가 문화 속에 깊이 새겨지고, 특정한 사회역사적 표현들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앞의 세 가지 방법을 확립하고 고양하는 도구가 된다. 게다가 이 방법에서는 사회적 세력과, 다른 종교적 표현들과 그 문화적/정치적 영향을 탐구하게 될 때 인종, 계급, 성별(性別, gender) 등이 중요한 분석 범주되는 방식을 고려하게 된다. 끝으로 문화적 방법은 교사와 학생이 의미의 해석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가정이 개개인들이 아는 것을 표현하고 종교에 대해 배운 것을 해석하는 방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인정한다. 문화적 방법의 장점은 1) 종교가 인간 경험의 한 부분이라는 것과,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요소들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고 그것을 형성하기도 하는 종교적 신념들과 그 실천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게 해준다. 2) 어떤 종교적 신념들과 표현들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도적인 것이 되며 어떤 다른 것은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변화되는 바로 그러한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 3) 지식에 대한 모든 주장을 해석하는 차원들을 인식하고 분석하는 도구가 된다. 이 접근방법의 문제는, 1) 종교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과 2) 교사가 보다 심층적인 차원에서 서서히 단계적으로 적은 내용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서에 대한 검토

대부분의 사회과 과목 교사들은 그들의 학생들을 위한 정보의 주요 자료로서의 교과서에 의존한다. 대부분의 교과서 저자들은 역사적인 방법과 전통에 토대를 둔 방법을 사용하는데, 후자는 세계사 교과서 도처에 있는 차트들로 진형화되어 있고, 주로 몇몇 세계종교전통들을 범주들로 요약하고 비교 묘사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역사적으로 정리된 종교적 실천의 사례들이 제시된 차트들을 보충 교재로 사용하도록 권장되는 경우는 매우 적지만, 그러한 것들이 종교를 정적이고 비역사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디어 활용과 종교에 대한 검토

미디어 문학은 비판적 교육학에서 뜨는 분야이고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다양한 출처에서 나온 미디어 이미지와 정보에 포화되어 있으며, 받아들인 정보의 신뢰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어린이들의 능력은 오늘날 비판적 사고의 중요한 측면이 되었다. 미디어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종교에 대한 정보의 주된 두 출처의 하나이다. 그래서 미디어 문학은 종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특별한 관련이 있다. 교육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1) 종교와, 인간사에서의 종교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에 따른 문제를 학생들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며, 2) 위키피디아(Wikipedia)와 유튜브(You Tube)와 같은 대중적 사이트를 종교에 대한 정보의 유일하고 권위 있는 출처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의 준비

종교에 대한 교육과 종교의 신앙적 표현 사이의 차이를 알게 하기 위해 종교와 관련된 강의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구분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1. 종교에 대한 공부는 공립학교에서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는 점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2.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목적은 인간 경험의 종교적 차원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지 종교를 조장하거나 어떤 특정의 종교적 견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을 수업 첫 시간에 분명해 해 둬으로써 그 교육적인 목적을 명백히 제시하고 혼동이나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작 단계

학생들은 종종 세계에서 종교가 지닌 역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념을 강하게 갖고 있고, 종교적인 사람들과 비종교적인 사람들에 대한 관념도 갖고 있으며, 특정한 신앙들에 대한 관념도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교사들도 어떤 특정한 종교 전통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배경으로 해서 그 전통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다고 느끼기도 하며, 혹은 종교에 대한 견해들을 갖고 있고 그들이

종교적 화제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똑같이 종교 일반에 대해, 그리고 특정한 종교전통들에 대해 갖고 있는 가정들을 제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정들을 탐구하는 것은 종교를 분명하게 보는데 도움을 주는 첫 번째 단계이다. 학생들 자신들의 가정들을 검토하는 것이 왜 그들의 학습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첫 단계가 되는지를 분명히 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편견들과 가정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에 걸림돌이 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종교에 대한 탐구에도 되돌아 올 수 있는 중요한 도구를 갖게 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이 누군가의 정체성 문제를 깊이 건드릴 수 있으며, 어떤 토론에서는, 특히 잘못된 정보나 판에 박힌 주장이 있을 때에는,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으로써 관용과 존경과 정직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다.

- 일반화(generalization)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진술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관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기독교인들은 관용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가?” 혹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관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옮겨가야 한다.
- 그들의 판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해야 한다.
- 두려워하지 말고 관념들을 탐구하고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교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것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 종교를 공부하는 목적은 인식(awareness)과 이해(understanding)이다.
- 종교전통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특정한 종교적 세계관이나 비종교적 세계관에 대한 잘못된 일반화, 적대감 혹은 가치 평가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잘못된 이해를 줄여준다.

교사들이 다루어야 할 범위, 시간, 자료에 대한 관심 때문에 머리가 아프겠지만, 아래에서 정리한 종교학이 근본적인 전제들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공

통된 오해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계속된 연구를 위한 좋은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종교학(religious studies)의 전제

1. 종교들은 내적으로 다양하다.

종교학의 기본적 전제는 종교가 내적으로 동질적이지 않고 다양하다는 것이다. 학교와 대중 문화에서 종교전통들은 종종 내적 변이가 없는 일련의 단일한 신앙과 실천과 주장으로 제시된다. 한 종교 전통 내에서의 주요한 차이는 소개될 수 있지만(“무슬림의 대다수는 수니파에 속하고 나머지는 시아파에 속한다.” 등), 덜 인상적이고 분명치 않은 차이는 종종 간과되거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예컨대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이 나이지리아의 무슬림과 다른 신앙을 실천할 것이란 사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살고 있는 부유한 무슬림은 시골 자바에 사는 가난한 무슬림과는 다소 다른 이슬람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세계에는 “이슬람교들”(Islams) (혹은 많은 유대교들이나 많은 힌두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줌으로써 이슬람교를 공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무슬림은 무엇을 믿는가?”와 같은 물음에 답하는 것이 복잡하다는 것을 주의 깊게 고려하도록 해줄 수 있다.

2. 종교들은 역동적이다.

종교학의 두 번째 전제는 종교가 역동적이고 변한다는 것이며, 정적이고 고정적인 것과는 반대된다는 것이다. 종교적 실천들이나 경전들이 역사적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르쳐질 때 학생들은 의례나 이야기들을 모든 시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된 하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렇지만, 종교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신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재해석된다. 예를 들면, “천명”(天命, mandate from heaven)이라는 유교적 개념은 왕조에 따라, 지정학적 지역에 따라, 역사적 시대에 따라 발전되었고, 오늘날에도 계속 발전되고 있다. 종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종교 전통, 실천, 혹은 신념 체계에 “단 하나의 의미”라는 것은 없다.

3. 종교는 문화 속에 깊이 심겨져 있다.

종교학의 세 번째 전제는 종교가 문화들 속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관념들, 실천들, 가치들 그리고 이야기의 집합이기 때문에 문화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가 그것의 문화적 표현들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인종, 민족, 성별(gender), 성(sexuality) 등이 항상 문화적 해석의 요소들이 되듯이 종교에서도 그러하다.

자주 제기되는 물음들

매우 조심스럽게 준비된 수업에서조차 어려운 질문에 의해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데, 종교에 대한 공부를 포함한 수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될 때, 교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종교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목적이 이해이지 동의가 아니며, 다른 종교적 견해들이 서로 충돌할 수도 있고 종종 충돌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 공동체가 신자들에게 답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답하는 것은 학문적인 종교 연구에서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올바른” 신념 혹은 “참된” 신념인가와 같은 질문은 신학적 질문이고, 교사들이 교실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많이 제기되는 몇 가지 공통된 질문들과 그에 대한 가능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들은 왜 아직도 종교를 믿는가?

종교는 과학과 철학이 발전한 현대에서는 낡아빠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장은 종종 종교와 역사와 과학에 대한 경직되고 지극히 협소한 이해에 기인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주장들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게 할 수 있다.

종교와 과학은 양립할 수 없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들과 세계관들은 과학적 세계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보완적이다. 더군다나 많은 과학자들이 종교를 믿고 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과학에 헌신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종교 전통들 안에서는 어떤 과학적 주장과 긴장관계에 있는 신학적 주장들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예로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이다. 그렇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신학적 신념과 진화론이 상충된다고 여긴다거나, 종교적 세계관과 과학

적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긴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창조과학(creation science)이나 지적설계론(intelligent design)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렇지만 과학시간에는 안 된다. 창조과학과 지적설계론은 과학의 영역 밖에 있는 세계관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생명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의 물음에 주안을 둔 것이기 때문에 사회과 과목이나 문학 과목에서 다룰 수 있으나, 그러한 공부에서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다양한 관점을 대변하는 다양한 세계관을 포함해야 하며, 어떤 견해가 다른 견해보다 더 합당하다고 하는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성서는 동성애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류의 동성 성관계를 범죄라고 믿고 있으며, 토라나 기독교 성경에서 그에 해당하는 구절을 인용한다.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한 성경의 구절을 고대 사회의 산물이고 현재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유대교와 기독교에서도 서로 다른 견해들이 있고 성서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믿는가?

대부분의 유대교 전통과 가르침은 현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사후 세계에 대한 사고가 유대교 전통에도 많이 나오고 매우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은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 유대교 전통 내에 사후 세계에 대한 많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을 지라도, 유대교의 관점은 기독교의 관점과 다르고, “천국”에 대한 공통의 이미지가 대부분 기독교적 관점에 의해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예수의 실존에 대한 일차적인 역사적

자료가 단지 4권의 책, 곧 신약성서의 복음서들(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그러한 책들조차 예수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고 다른 해석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로마 황제의 통치 기간에 살았고 죽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예수에게 십자가형의 사형을 언도한 것이 로마 당국이었고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사형 방식이었다는데 동의한다. 초기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죽음을 이유로 “유대인들”(Jews)을 비난했고, 이러한 관점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념과 실천에 깊이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부처는 신인가?

부처(The Buddha)는 고타마 싯다르타(Siddhartha Gautama)라는 이름을 가진 기원전 5세기의 인도 왕자였고, 전설에 있듯이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어떤 불교 전통의 흐름에서는 부처를 인간으로 여기고 우주적 의미를 부처와 연관시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다른 흐름에서는 그를 성인이나 특별한 영적인 힘을 지닌 존재로 숭경한다. 이와 관련된 신념과 실천도 엄청나게 다양하다. 따라서 질문자가 “신”(god)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가 이러한 질문에 응답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어떤 종교의 규범들을 종교적인 것으로 따라야 하는가?

어떤 종교를 믿는다고 스스로 확인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매우 개인적이면서도 광범위한 문화적 모습이기도 하다. 종교는 민족성과 문화 등과 얽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종교의 의례에 자주 참여하지 않거나 그 종교의 신념들 중에서 일부만은 받아들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종교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여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실천에 깊이 헌신하면서도 그 종교 공동체에는 주변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종교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한 종교 전통 내에서도 장소에 따라 매우 다를 수도 있다.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신학적인 것이며, 가족들 사이에서나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루기에는 적절한 물음이다. 그렇지만, 공립학교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의 관심을 신의 존재

와 관련된 다양한 신념들을 검토하는 데로 돌리는 것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이다.

이슬람교는 폭력적인 종교인가?

기독교, 불교, 이교 등등과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는 폭력적이지도 않고 비폭력적이지도 않다.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종교적 표현들은 극악무도한 사람에서부터 영웅적인 사람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어떤 종교전통을 단 하나의 특징으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종교적 문맹의 가장 명백한 표현의 하나이다. 이슬람교를 풍부하고 다양하게 공부할 기회가 없음으로 해서 이러한 극히 부정적 묘사를 이슬람 전통 자체를 모두 설명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힌두교 신자(혹은 무슬림,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이고, 나의 종교는 우리가 공부하는 힌두교(혹은 이슬람교, 기독교, 불교)와는 사실상 다르다. 왜 그러한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질 수 있다. 교사들은 종교전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전통들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종교적 표현들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교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한 종교전통의 특정한 신학적 표현들은 정확하고도 정중하게, 그러면서도 배타적이지 않게 기술하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가 왜 종교를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학교를 다니는 것이지 교회를 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종교에 대한 세속적 연구와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종교의 실천은 다르다. 불행히도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배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신념을 갖게 만든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분명하게 제시했듯이, 헌법에 비추어 볼 때 종교에 대해 배우는 것은 합법적이면서 동시에 포괄적인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차원이다. 인간의 문화와 역사를 그 종교적 차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종교에 대한 문맹은 공동체들 사이에서 편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 학교에서 종교에 대해 배우으로써 인간의 경험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고 다양

성을 보다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결론

교사들은 종종 수업시간에 종교에 대해 가르치게 될 때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고 실수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 그래서 종교에 관해서는 가르치기를 회피하거나 가장 “객관적인 것”(예컨대 기독교의 십계명, 이슬람교의 다섯 기둥, 불교의 사성제 등)으로 보이는 것만을 제시하려 한다. 여기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교사들을 기죽이거나 거대한 요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종교의 연구 방법에 대한 그들의 레퍼토리를 확대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며, 왜 교과과정에 있는 이러한 종교적 요소들이 제대로 가르쳐져야 하는가를 정당화하기 위한 좋은 이유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제4부 교사 교육

아래에서 제시한 천거 내용은 학습 성과 접근방법(learning outcomes approach)에 의거한 것이다. AAR은 교사교육, 특별히 사회과 과목과 영어 과목의 임용 전 교사교육과 재직 중 교사교육에서 필요한 일련의 교육 성과 혹은 교육 역량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것을 천거한다.

교육내용에 대한 역량

세계의 문화, 사회, 종교는 물론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녀야 할 역량

1.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 살아 있는 세계종교 전통들 및 각 지역의 토착종교(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에 대한 기본적 식견, 경험, 실천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종교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도 그 종교적 표현과 실천이 다양하다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특정한 사회적/역사적 상황에서 특정한 종교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3. 종교들이 그것들의 문화적 정황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교가 내적으로 다양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녀야 할 역량

1. 북미 원주민(그리고 하와이 원주민) 종교들의 기본적 신념들과 실천을 숙지해야 하는 동시에 중요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이민 공동체의 종교에 대해서도 그러해야 한다.
2. 미국 국가의 형성에 기초가 되는 문건들, 특히 수정헌법에서 종교가 어떠한 위상으로 설명되는지를 이해해야 하고, 또한 종교 관련 조항들이 법원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3. 종교적 신념과 실천과 귀의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행동을 통해 국가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 방식(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사회적이든 간에)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한다.

성서를 문학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이 지녀야 할 역량

1. 다양한 성서 본문들을 산출한 고대 종교 공동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2. 다른 신앙의 공동체들(예컨대 유대교,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이 다른 성서들을 갖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종종 중요한 신학적 차이가 반영된 매우 다른 성서의 번역본(예컨대 새 유대교 출판부 성경[the New Jewish Publication Society], 생활 토라[the Living Torah], 새표준개정성서[the New Standard Revised Version], 킹제임스성서[the King James Version], 새국제성서[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3. 성서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인물, 가르침 등에 대해 다른 여러 전통들의 관점에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4. 성서(그리고 다른 고대의 경전들)에 대한 연구를 위한 역사비평적 방법을 이해하고 그것이 이룩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5. 성서의 이야기, 인물, 중요한 설교, 이미지, 가르침 등이 서구의 문학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교육학적 역량

1. 종교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좋은 실재의 몇몇 사례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2. 수업시간에 생겨나는 종교적 불일치와 갈등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3. 인터넷이든 다른 전통적인 미디어이든 간에 종교와 관련된 자료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4. 수업시간에 종교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5.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종교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6. 큰 공동체의 종교적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한다.
7. 종교에 대한 세속적인 학문적 접근방법과 신앙적 접근방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세속적인 학문적 접근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8. 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과 실천에 대해서도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9. 서로 존경하고 관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학생들이 종교에 대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교사들의 적절한 태도와 자세

1.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종교전통, 신념, 실천은 물론 무신앙이나 무신론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 교사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적 신념, 실천 혹은 전통이 부적절하다는(혹은 공정하지 않다는)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
3.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이나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4. 교사들은 승인된 교과과정의 내용대로 종교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5. 교사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실천이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아니며 부자격 요건도 아니다. 종교의 내용과 교육학에 대한 학문적 훈련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종교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요건이며, 교사가 개인적 종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결론

미국 종교학회에 있는 우리들은 이 지침서가 공립학교의 교사, 학교 당국,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과 관련된 문제들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이 지침서를 만들면서 교사들과 긴밀히 함께 일했고, 학생들이 인간 경험에서 매우 풍부한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

참고문헌

- American Assembly. *Matters of Faith: Religion in American Public Life*. New York: American Assembly, 2000.
- Art Institute of Chicago. "Introduction to the Exhibition."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Art Institute of Chicago, 2000.
<http://www.artic.edu/taoism/introduction.php>.
- Bash, Barbara. *In the Heart of the Village: The World of the Indian Banyan Tree*. Layton Utah: Gibbs Smith, 2002.
- Beck, Roger B., et al. *World History: Patterns of Interaction*. New York: Houghton Mifflin Harcourt, 2005.
- Bracher, Peter, et al., *PERSC Guidebook, Public Education*

- Religion-Studies: Questions and Answers*. Dayton, Ohio: Public Education Religion Studies Center, 1974.
- Brown, Karen McCarthy. *Mama Lola: A Vodou Priestess in Brookly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1.
- Bruchac, Joseph. *Native American Animal Stories*. Golden, CO: Fulcrum, 1991.
- Bryan, Ashley. *All Night, All Day: A Child's First Book of African-American Spirituals*. New York: Athenium, 2003.
- Caduto, Michael J., and Joseph Bruchac. *Native American Stories: Myths and Legends*. Golden, CO: Fulcrum, 1991.
- Carr, Anne, and Nicholas Piediscalzi, eds. *The Academic Study of Religion: 1975 Public Schools Religion Studies*.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5.
- Crozier-Hogle, Lois, et al. *Surviving in Two Worlds: Contemporary Native American Voices*. Austin: University of Texas, 1997.
- DelFattore, Joan. *The Fourth R: Conflicts over Religion in America's Public School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 Eck, Diana L. *A New Religious America*. San Francisco: Harper Collins, 2001.
- First Amendment Center. *A Teacher's Guide to Religion in the Public Schools*. Nashville: First Amendment Center, 1999.
- Fisher, James T. *Catholics in America*. New York: Oxford, 2000. Religion and American Life, edited by John Butler and Harry S. Stout.
- Fraser, James. *Between Church and State: Religion and Public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America*. New York: St. Martin's Griffin, 1999.
- Geldart, Anne. *Buddhist Temples*. Chicago: Heinemann-Raintree, 2005.
- Greenawalt, Kent. *Does God Belong in Public Scho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 Hakim, Joy. *The First Americans: Prehistory-1600*. A History of US, edited by Joy Hakim. New York: Oxford, 2003.
- Hamilton, Virginia. *The People Could Fly*. New York: Knopf, 2009.
- Harvard Divinity School. "Program in Religious Studies Education." <http://www.hds.harvard.edu/prse/>.
- _____. "Study on Teaching About Religion in the Schools (H-STARS)."

<http://www.hds.harvard.edu/prse/hstars>.

Harvard University Extension School. "Citation in Religious Studies and Education."

<http://www.extension.harvard.edu/2009-10/courses/citations/crse.jsp>.

Haynes, Charles, and Oliver Thomas. *Finding Common Ground: A Guide to Religious Liberty in Public Schools*. Nashville, TN: The First Amendment Center, 2001.

Little, Stephen. *Taoism and the Arts of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Mankoff, Robert, ed. *The Complete Cartoons of The New Yorker*. New York: Black Dog and Leventhal Publishers, 2004.

Manser, Martin, and David Pickering, eds. *Facts on File Dictionary of Classical and Biblical Allusions*. New York: Facts on File, 2003.

Martin, Joel W. *Native American Religion*. Religion and American Life, edited by John Butler and Harry S. Stout. New York: Oxford, 1999.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Design Lab in the School of Architecture and Planning. *ArchNet*. <http://www.archnet.org/lobby>.

Miller, James. *Chinese Religions in Contemporary Societies*. Santa Barbara: ABC-CLIO, 2006.

Moore, Diane L.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World History Connected*, November 2006.

<http://worldhistoryconnected.press.uiuc.edu/4.1/moore.html>.

_____.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Schools*. New York: Palgrave, 2007.

Moreno Vega, Marta. *The Alter Altar of My Soul: The Living Traditions of Santeria*. Oxford: One World, 2001.

Mozeson, I.E., and Lois Stavsky. *Jerusalem Mosaic: Young Voices from the Holy C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4.

Nanji, Azim A., ed. *The Muslim Almanac: A Reference Work on the History, Faith, Culture, and Peoples of Islam*. New York: Gale, 1996.

National Council for Teachers of English. *Standards for the English Language Arts*.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and the National Council for Teachers of English, 1996.

- www1.ncte.org/library/files/Store/Books/Sample/StandardsDoc.pdf.
-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National Task Force for Social Studies Standards. *Curriculum Standards Expectations of Excellence: Curriculum Standards for Social Studies*.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1994. <http://www.socialstudies.org/standards>.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Advisory Council of Experts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Toledo Guiding Principles on Teaching About Religions and Beliefs in Public Schools*. Warsaw: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2007.
- Orsi, Robert. *The Madonna of 115th Stree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2.
- PBS. *From Jesus to Christ: The First Christians*. WGBH Educational Foundation, 1998.
- 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religion.
- _____. *Islam: Empire of Faith*. DVD. Gardner Films, 2001.
- www.pbs.org/empires/islam.
- _____. *Muslims*. DVD. WGBH, 2003.
- www.pbs.org/wgbh/pages/frontline/shows/muslims.
- PBS. *This Far by Faith: African American Spiritual Journeys*. The Faith Project, 2003. <http://www.pbs.org/thisfarbyfaith>.
- Piediscalzi, Nicholas, and Barbara De Martino Swyhart, eds. *Distinguishing Moral Education, Values Clarification and Religion-Studies*. Missoula, MT: Scholars Press, 1976.
- Prothero, Stephen. *Religious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And Doesn't*. San Francisco: Harper, 2007.
- Raboteau, Albert J. *African-American Religion*. Religion and American Life, edited by John Butler and Harry S. Stout. New York: Oxford, 1999.
- Ringgold, Faith. *Tar Beach*. Albuquerque: Dragonfly Books, 1996.
- Ris, Rolf. "The Banyan Tree at Fort Myers." Panoramas.dk, edited by Hans Nyberg.

<http://www.panoramas.dk/fullscreen7/f23-banyan-tree.html>.

Ruthven, Malise, and Azim Nanji. *Historical Atlas of Islam*.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Said, Edward. *Covering Islam: How the Media and the Experts Determine How We See the Rest of the World*. Revised edition. New York: Vintage, 1997.

School District of Abington Township, Pennsylvania, et al. v. Schempp et al. 374 US 203 (1963).

Smith, Huston. *The World's Religions*. 50th-year anniversary edition. New York: HarperOne, 2009.

Smith, Wilfred Cantwell. *The Meaning and End of Religion*. Minneapolis: Fortress, 1991.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Bible Electives in Public Schools: A Guid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8.

<http://www.sbl-site.org/assets/pdfs/SchoolsGuide.pdf>.

_____. "The Bible in American Public Schools."

<http://www.sbl-site.org/educational/thebibleinpublicschools.aspx>.

_____. *Teaching the Bible*.

http://www.sbl-site.org/assets/media/TBv2_i1.htm.

Strong, John S. *The Buddha: A Short Biography*. Oxford: One World, 2001.

_____. *The Experience of Buddhism: Sources and Interpretation*. 3rd ed. New York: Thompson Wadsworth, 2008.

Tan, Amy. *The Joy Luck Club*. New York: Penguin, 2006.

Ungar Grudin, Eva. *Stitching Memories: African American Story Quilts*.

Williamstown, MA: Williams College Museum of Art, 1990.

University of Hamburg. *Religion in Education: A Contribution to Dialogue or a Factor of Conflict in Transforming Societies of European Countries* (REDCo). European Commission, 2009.

www.redco.uni-hamburg.de/web/3480/3483/index.html

University of California at Chico. *Religion and Public Education Resource Center*. <http://www.csuchico.edu/rs/rperc>.

Will, Paul J., ed. *Public Education Religion Studies: An Overview*. Chico, CA: Scholars Press, 1981.

Wolfe, Michael, ed. *One Thousand Roads to Mecca: Ten Centuries of Travelers Writing about the Muslim Pilgrimage*. New York: Grove, 1997.

Zeitlin, Steve, ed. *Because God Loves Stories: An Anthology of Jewish Storytelling*. New York: Fireside, 1997.

▣ 연구진 ▣

연구책임자: 류성민(한신대 종교문화학과 교수)

공동연구자: 안 신(배재대 교양학부 교수)

외국(영, 미)의 종교교육제도 개선사례 연구

=====

2011년 12월 발행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